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6년 2월

석사학위논문

조선 후기 실학사상이 차문화에 끼친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

박 혜 란

조선 후기 실학사상이 차문화에 끼친 영향

The Influences of Practical Thought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Tea Culture in the Latter
Part of Chosun Dynasty

2016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

박혜란

조선 후기 실학사상이 차문화에 끼친 영향

지도교수 황 병 하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

박 혜 란

박혜란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 원 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하 립(인)

위 원 조선대학교 객원교수 염 숙(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황 병 하(인)

2015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실학사상의 등장과 학파별 특징

제1절 실학의 개념

제2절 실학사상의 형성 배경

제3절 실학파의 유형과 특징

제3장 실학사상이 차문화의 정신적 측면에 끼친 영향

제1절 현실적 자아의식의 확립

제2절 실사구시 정신

제3절 실용주의 정신

제4장 실학사상이 차문화의 사회·산업적 측면에 끼친 영향

제1절 차음용의 확산

제2절 개방적 소통문화의 형성

제3절 차 생산의 확대

제4절 차 산업의 발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Influences of Practical Thought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Tea Culture in the Latter Part of Chosun Dynasty

Park Hye Ran

Advisor : Prof. Hwang Byung-ha, Ph.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ea Cul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ea culture entered into Korea since 1200 years ago. During this period, tea culture has developed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and trends. Historically, Korean tea culture has formed focusing on the upper classes, and has reflected various thoughts, religions, arts of each epoch and society. Also tea culture has influenced on the politics and economy of every dynasty, and established new spiritual culture.

In the latter part of Chosun dynasty, people had experienced many wars and internal strifes, and felt devastation of mind and spirit. In this period, some scholars oriented into the practical thought had tried to reform trouble-ridden social life into moderated and good life, and to develop national economy. They had researched ways of developing practical social life and creating equality without classes. This was called as a Silhak(practical thought and sciences).

This research is focused on the study on the influences of practical thought in 18th centur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tea culture. For this purpose, this research will give some ideas on the concepts of practical thought, basic ideas, background of forming this thought, some important schools, and scholars. If we want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practical thought on the development of tea culture, it is necessary to know the practical thought and its scholars. Because the practical thought had influenced on the 18th's tea culture in the areas of agriculture, trade, and arts.

제1장 서론

우리나라에 차문화가 들어온 지 약 1200여 년이 흘렀다. 이 기간 동안 차문화는 시대와 계층과 분야에 따라 다양한 성격과 특징을 드러내며 발전해 왔다. 역사적으로 차문화는 처음부터 상류층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시대마다 그 시기의 사상과 문화와 예술 분야의 특징을 반영하였고, 정치·경제·사회 등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며 중요한 정신문화를 형성해왔다.

삼국시대의 차문화에 관한 문헌은 매우 적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그리고 최치원 및 승려들의 문집 등을 통해 당시의 차문화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신라시대 차문화 유적은 한송정에서 화랑들이 즐긴 차문화 유적들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차문화가 불교의 융성과 함께 사상과 종교와 예술의 발전을 선도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차문화가 유교의 융성과 함께 왕실과 사대부들의 선비 정신 형성과 시·서·화의 발전을 유도하며 다양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조선시대 중기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대부분의 국토를 황폐화시켰고, 백성들의 생활을 도탄에 빠지게 하였으며, 우리의 전통문화도 훼손시켰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매우 피폐해졌다. 이 시기에 피폐해진 백성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국가 경제를 부흥시키는데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사회를 개혁하여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현실적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백성들의 실제 생활과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방법을 연구하는 이용후생(利用厚生)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문, 현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학(實學)이었다.

조선시대 후기의 차문화는 실학사상의 발전을 이끈 주요 요인들 중 하나였다. 당시의 시대정신과 사상을 이끌었던 실학의 대표적 학자들은 자신들의 고달픈 삶을 달래고 정신을 가다듬는데 차문화를 적극 활용하였다. 실학이 활성화되었던 이 시기의 사상은 차 정신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차 정신은 선비정신이었으며, 정직하고 올바르게 곧은 진실성을 내포

하고 있었다. 이런 차 정신은 실학자들의 실학사상 형성에 영향을 끼쳤으며, 차 정신은 조선 후기의 상황이 요구했던 시대적 정신이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실학사상은 조선 후기의 시대적 성격을 반영한 대표적인 현실적·실용적 사상이었다. 여기에는 기존의 성리학이나 주자학에 대한 반감과 비판 정신도 내재되어 있었다. 실학이 조선 후기의 시대적 성격을 반영하는 대표적 학풍의 하나로 자리를 잡으면서¹⁾ 자연과학과 인문학, 그리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은 조선 후기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적·산업적 변화를 주도하였다. 이처럼 실학은 종래의 권위주의적인 주자학의 세계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변화를 지향하여 자유로운 학문탐구의 기풍을 추구하였다. 또한 학문의 중심을 도덕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부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전환하여 경제치용이나 이용후생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실학이 당시의 현실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으며, 실제 생활에 유용한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학은 조선 후기 사회의 시급한 현실이 절실하게 요구하였던 상황 변화 요구에서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극히 자기 반성적이었고 비판적이었으며 미래 지향적인 자발성과 실용성과 주체성을 포함하고 있었다.²⁾ 이 시기에 고증학(考證學)의 영향을 받아 저술된 실학서(實學書)로는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의 『반계수록(磻溪隧錄)』,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의 『색경(穡經)』, 이익(李瀾, 1681~1763)의 『성호사설(星湖僿說)』,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의 『동사강목(東史綱目)』,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연암집(燕巖集)』,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청장관전집(靑莊館全集)』, 유득공(柳得恭, 1748~1807)의 『발해고(渤海考)』,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목민심서(牧民心書)』와 『경세유표(經世遺表)』, 서유구(徐有榘, 1764~1845)의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이 있었다.

1) 신창호, 『유학자 추사 실학 교육을 탐구하다』, 서현사, 2006, p.20;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9, p.292.
 崔英成 著, 『韓國儒學思想史 IV』, 아세아문화사, 2004, pp.64.
 2)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실학사상사』, 다운샘, 2002, pp.26-27.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실용적인 개화사상을 이끈 실학사상의 계보는 정약용 → 최한기·김정희 → 박규수·강위·신헌 등으로 이어졌다. 박제가(朴齊家, 1750~1805)의 『북학의(北學議)』에서 주장한 ‘통상무역론’과 이규경이 주장한 ‘통상개국론’은 최한기, 오경석, 강위, 박규수에게 계승되었다.³⁾ 이들은 대부분 차 애호가들이었으며, 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차문화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실학사상과 함께한 차문화는 현실 생활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농업과 무역과 산업 등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발전을 이룩하였다. 실학자들은 차의 효능을 통해 건강 증진에 관심을 갖고 정신적 안정을 되찾았으며, 약리작용 측면에서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도 시작하였다. 차는 궁중 의식에서 사용되었으며, 왕실이나 사대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의 삶으로 전파되었고, 차의 소비량이 증가하자 중국의 차 전매법에 대한 연구와 차를 통한 해상무역 확대 및 국가재정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은 「서진사택을 방문하여」란 시를 통해 당시 사대부 가문에서 차로 손님을 맞이하여 예의를 지켰다고 말했다. 홍양호(洪良浩, 1724~1802)는 「호로다주에 쓴 명문」에서 중국의 차 애호가였던 기운(紀昀)이 그에게 차 주전자와 차 사발을 선물로 주었으며, 조병현(趙秉鉉, 1791~1849)은 「차를 달이며(煮茗聯句)」라는 시를 통해 임금과 신하가 궁중에서 차를 달이며 함께 시를 지었음을 노래하였다.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가 지은 네 편의 연작⁴⁾을 살펴보면, 왕세자가 즐겼던 궁중의 차문화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이상적(李尙迪, 1804~1865)은 김석준(金奭準, 1831~1915)에게 일본 후지산에서 생산되는 차와 차 주전자를 선물로 받았다. 이는 당시 조선이 중국과 일본과 차를 통한 교류를 시행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⁵⁾ 그리고 정약용은 1830년 강진 백운동 이대아(李大雅)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삼증삼쇄’의

3) 장동익 외2 공저, 『한국사 강론』, 흥진출판사, 1999, pp.250-251.

4) 효명세자, 『경현집』 권8, 다관(茶罐)·차종지(茶鍾)·차주전자(茶壺)·차(茶)에 관한 시

5) 송재소, 유흥준, 정해림 외 옮김, 『한국의 차문화 천년1』, 돌베개, 2009, pp.7-8.

제다법이나 「범석호가 병오년에 회포를 기술한 시 십 수를 차운하여 송옹에게 부친다」라는 시에서 ‘구증구포’의 제다법을 언급하였다.

차의 효용성과 대중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제다법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차의 생산을 확대하여 차의 해외무역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부국강병의 꿈을 이루자라는 글들도 등장하였다. 이규경(李圭景)의 「도다변증설(茶茶辨證說)」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차의 어원과 용례 등과 관련된 문헌에 대한 학문적 고찰도 이루어졌다. 특히 안정복(安鼎福)은 『수다설(漱茶說)』에서 식후 차로 입을 헹구는 법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이덕리(李德履, 1728~?)의 「기다(記茶)」, 이운해(李運海)의 「부풍향다보(扶風鄉茶譜)」, 윤형규(尹馨圭, 1763~1840)의 「다설(茶說)」,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는 차의 효능이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초의 선사의 『동다송(東茶頌)』과 김정희의 「이재권돈인에게(彝齋權敦仁)」라는 시에는 지리산 차의 우수성이 언급되어 있으며, 신헌구(申獻求, 1823~1902)는 「다설(茶說)」에서 초의선사가 제다한 차의 우수성을 언급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중국에서 차를 전매하는 법[推茶法]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차음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세종실록』 12년(1430) 12월 8일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등장한다.

“경연에 납시어 강(講)하다가 차를 전매하는 법[推茶法]에 이르러 말씀하셨다. 중국에서는 어찌 차를 좋아하면서 엄히 금하는가? 우리나라는 궐내에서도 차를 쓰지 않는다. 좋아하는 것이 각각 다르기가 또한 이와 같구나.’ 시강관(侍講官) 김빈(金鑣)이 아뢰었다. ‘중국 사람은 모두 기름진 고기를 먹는 까닭에 차를 마셔서 기운을 내려가게 합니다. 또 손님을 접대할 때면 반드시 먼저 차를 낸 뒤에 술을 내옵니다.’”⁶⁾

세종은 중국에서 역대로 각다법을 시행한 것을 의아해했다. 조선의 대궐에서는 차를 마시지 않고 있었는데, 중국은 어째서 국가가 법으로 권장할

6) 『세종실록』, “御經筵, 講至推茶法曰: “中國何好茶, 而嚴其禁乎? 我國闕內, 亦不用茶, 好尚各異, 亦如是也.” 侍講官金鑣曰: “中國之人, 皆食膏肉, 故飲茶令下氣. 且當對客, 必先茶後酒.”

만큼 차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시강관 김빈은 중국인들이 차를 즐겨 마시는 이유를 그들이 즐겨 먹는 기름진 음식에서 찾았다. 이를 통해 고려 때 흥성했던 차문화는 조선 초기에 와서 일시적으로 쇠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차를 전매법[推茶法]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당시 우리의 차문화가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조실록』 29년(1596) 11월 4일에 호마(胡馬) 무역에 대한 사복시(司僕寺)의 언급은 다음과 같다.

“이제 제주목사의 보고를 보니 도체찰사(都體察使)가 요청한 말 50필은 구해 뽑아내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년 들어 제주의 마필은 많은 숫자를 반출해 와서 그 형세가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비록 다시 공문을 보내 숫자를 더해 뽑아내게 해도 반드시 쓸만한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전대에 중국에서는 차를 가지고 오랑캐의 말과 교역하였고, 지금 중국 조정 또한 개시(開市)에서 무역으로 교환하니, 진실로 우리에게 쓸모없는 물건을 가지고 저들의 날랜 말과 바꾼다면 전장(戰場)에 보탬이 되고 무공(武功)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7)

조선은 국경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말을 제주 목장의 말로 더 이상 충당할 수 없게 되자 이를 보충할 방법으로 호마(胡馬) 무역에서 찾았다. 중국에서는 차와 말을 교역하는데 우리에게 그다지 쓸모없는 물건을 말과 바꿔 무역할 것을 제안한 내용이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단천(端川) 지역에서 나는 은자(銀子)나 인삼(人蔘) 등과 말을 교역할 것을 말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차를 제품으로 만들어 말과 바꿀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와 실학사상의 영향으로 차 전매를 통한 차의 산업화와 차 무역으로 부국강병에 대한 의지가 나타났는데, 이런 내용은 이덕리의 「기다」, 정약용의 「차의 생산과 판매」, 「차의 전매제도」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7) 『선조실록』, “今見濟州牧使啓本, 都體察使行移, 五十馬艱得以捉出云云. 近年濟州馬匹, 多數出來, 其勢然矣. 今雖更爲行移, 加數捉出, 必無可用之馬矣. 前代中國, 以茶易虜馬, 今中朝亦開市貿換, 誠以吾無用之物, 易彼追風之足, 可以資戰場而收武功也.

실학사상은 차를 단순한 문화적 기호음료로 간주하기 않았고, 이용후생과 실사구시의 도구로 활용하였으며, 이를 위해 차의 재배 기술을 향상시키고 생산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는 차를 국가의 산업자원으로 활용하여 해외교역 확대와 부국강병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 실학사상은 차문화의 발전과 차를 통한 경제, 과학, 무역의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조선 후기 실학사상이 차문화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실학의 개념과 형성과정, 기본 사상과 전개과정을 고찰할 것이며, 17세기 이후 실학사상의 형성 배경과 학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18세기 실학사상이 차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학의 기본 개념과 사상이 차 정신과 사상, 그리고 차문화 형성에 끼친 영향을 고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논문은 실학사상과 차문화의 상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대표적인 실학과인 중농학과와 중상학과의 등장 배경과 학자들, 그리고 주요 업적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조선 후기 중농학과와 중상학과 학자들이 차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들의 영향은 차문화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사상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 그리고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실학사상에 대한 연구와 실학과 학자들에 대한 연구는 다수 발표되었으며, 개별 실학자의 차 관련 내용은 단편적으로 다뤄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정신세계와 사상, 그리고 현실의 삶이 차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더욱이 차문화에 끼친 영향을 사상적, 사회문화적, 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사례는 없었다. 이런 부분이 본 논문이 지니는 대표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실학과인 중농학과와 중상학과가 차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은 21세기 우리 차문화의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지침을 제시해줄 것이며, 미래의 실용적인 차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데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제2장 실학사상의 등장과 학파별 특징

제1절 실학의 개념

실학이라는 용어는 1930년대에 민족주의 사가들에 의해 조선 후기에 일어난 새로운 학풍으로 지칭되었다. 정인보(鄭寅普, 1893~1950), 최남선(崔南善, 1890~1957), 문일평(文一平, 1888~1939) 등 민족주의 사가들은 ‘조선학(朝鮮學)’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면서 실학을 새로운 학풍으로 인정하였다. 실학은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약칭으로 중국 역사서인 반고(班固)의 『한서(漢書)』에 수록된 「하간헌왕전(河間獻王傳)」의 구절에서 비롯되었다. 이 구절에는 “학문을 닦으며 옛 서적을 좋아하여 실제의 사실에서 옳은 것을 찾았다[修學好古 實事求是]”⁸⁾라는 말이 등장한다. 실학이라는 용어는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후기부터 현대까지 통시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실학이라는 용어가 어느 시대에서든 그 시대의 현실성 또는 현실적 의의를 지니는 학문으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송대에는 도학의 성립과정에서 도학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당시 이단사상으로 간주되었던 노장(老莊) 사상과 불교를 ‘허무의 학(虛無之學)’이라 비판하는 입장에서 도학 자체를 실학이라 일컫기도 하였다. 도학으로서의 실학은 진실성을 기준으로 하는 ‘실심(實心)의 실학’을 문제로 삼았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성, 즉 진실한 마음이란 인간의 주체로서 자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경전을 궁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궁경(窮經) 실학’을 의미하였다. 도학은 불가(佛家)와 도가(道家)의 허무적멸(虛無寂滅)적 성격을 허학(虛學)으로 보았던 반면, 유학은 현세주의적 성격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실학이라 하였다.

우리나라의 실학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천하였다. 여말선초(麗末鮮初)에는 적멸위락(寂滅爲樂)의 불교나 부화무실(浮華無實)한 사장학(詞章學)에

8) 반고, 『한서』 「하간헌왕전」, “修學好古 實事求是” 재인용 :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147.

대해 성리학을 실학이라 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 번쇄(煩瑣)하고 지리(支離)한 데로 흘러버린 성리학과 예학의 밀폐를 반발하여 일부 학자들이 경제치용(經世致用)·이용후생(利用厚生)·실사구시(實事求是)를 부르짖으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을 실학이라 하였다.⁹⁾ 그 이후 1920년대 일제 치하에서 우리의 국학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장지연은 『조선유학사(朝鮮儒學史)』에서 실학의 의미를 지닌 ‘경제지학(經濟之學)’이라는 용어를 실학의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최남선(崔南善)이 1931년 『조선역사(朝鮮歷史)』에서 “유형원, 이익, 안정복, … … 정약용과 그 일류(一流)로 박지원, 홍대용, 이덕무, 박제가 등의 이름을 들고 이를 실학의 풍이라는 동시에 그것은 실증 실용의 학이며, 조선연구의 조수(潮水)이다.”라고 언급하였다.¹⁰⁾ 최남선이 언급한 실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실사구시의 학풍으로 규정하여 체계화를 시도한 인물은 문일평이었다. 그는 “영조·정조 시대에 성행하던 실사구시의 학이 이조사상사상(李朝思想史上) 자못 주목할 현상”이라 하면서 실학을 실사구시 학의 동의어로 확립하였다. 정인보와 안재홍(安在鴻) 등은 국학연구와 관련하여 우리의 역사·지리·언어·풍속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던 전통의 새로운 학풍을 부각시키면서 실학으로 명명하였다.

1930년대, 특히 1936년 다산의 사후 100주년이었던 시기를 중심으로 문집 간행, 기념 강연회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실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후 실학은 조선 후기 사상사의 중요한 흐름으로 재평가되었다. 19세기 말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개항 이후의 개화사상은 그 사상 자체를 ‘실학’, 즉 현실 문제에 대한 진실한 대답으로서의 실학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논쟁은 1950년대 말부터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실학이란 용어가 조선 후기에 일어난 새로운 학풍을 전칭(專稱)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갔다.¹¹⁾ 이처럼 실학은 현실적인 학풍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의 학풍이 도학에

9) 崔英成 著, 앞의 책, pp.64-65.

10) 최남선, 『조선역사』, 1931, p. 993. 재인용 : 김용옥, 앞의 책, pp.45-46.

11) 李佑成, 『實學思想入門』 「實學研究序說」, 일조각, 1973. p.63.

대해 본격적으로 도전하면서 자신의 학풍을 보다 다양하고 독특하게 전개
 했던 점에서 이 시기의 학풍을 사상사적 특정 학파의 명칭으로서 ‘실학’이
 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때의 실학은 특정 학문의 체계 · 성격 · 개념 · 범위
 등을 한정시켜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 실학은 사실성을 기준으로 하는 ‘실
 사(實事)의 실학’을 문제 삼는 것으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증명과 고증적
 인 증거를 중요시하였으며, 사회에 유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실용실학(實
 用實學)’으로 자리를 잡았다.¹²⁾

그러나 또 다른 실학 개념으로 김용옥은 실학은 사실이 아니라 개념이라
 고 말하였다. 그는 실학이 하나의 학풍으로 일어난 조선사상사의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꿰뚫어 기술하기 위해 날조된 후대, 즉 1930년
 대 이후의 최근세사적 개념이라고 말했다.¹³⁾

본 논문에서 실학은 실사구시를 학문연구의 방법으로 견지하고, 실용지
 학을 학문연구의 대상과 내용으로 간주하며, 경세치용(經世致用)을 학문연
 구의 목적으로 간주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즉, 본
 논문에서 실학은 자유로운 비판 정신을 바탕으로 17~18세기의 양반 중심
 사회를 비판하면서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실용적인 학문을
 의미하며, 실학의 개념은 학문 연구 성과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실학은 조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연구했던 조선 후기의 학문이었으며,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실용적 학문이었고, 실제로 옳고 그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
 구하는 학문이었으며, 조선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었던 학
 문이었다. 이런 실학의 개념을 바탕으로 조선의 실학은 농업을 중요시하는
 중농 학파와 상공업을 강조는 중상 학파로 나뉘어졌다.

12)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p.145-147.

13) 김용옥, 『讀氣學說』, 통나무, 2003, p.60.

제2절 실학사상의 형성 배경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이 형성된 배경에는 당시의 사회적, 사상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적용되었다.

1. 사회적 배경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두 번에 걸친 오랜 전쟁으로 대부분의 국토는 황폐화되고 백성은 도탄에 빠졌다. 농본주의였던 조선의 농가는 식량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라 일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고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은 소홀하게 간주되어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의 참상은 『조선실록』 등의 기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전란 통에 묵었던 전야는 아직 다 일구지 못해
 버려진 들에는 덩불만 무성하고,
 가득 찬 달은 쓸쓸히 눈두렁 발두렁을 비추는데
 어디를 가나 엉덩이 붙이고 살 곳이 없구나.”¹⁴⁾

서애 유성룡(西厓 柳成龍, 1542~1607)의 『서애집(西厓集)』 권 16, 기란후사(記亂後事)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임진년 사월 삼십 일 인금의 어의가 서울을 빠져나가자 백성들은 맨 먼저 장예원(掌隸院)과 형조를 불태웠는데 이 두 곳에 공사의 노비문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탕고(內帑庫)에 들어가서 값진 금붙이와 폐백(幣

14) 『조선실록』 권 161. 선조편. “田野未盡闢, 汚萊榛莽, 滿目蕭然, 畎畝阡陌, 無跡可據”

帛)을 닥치는 대로 훔쳐 갔다. … …(중략) … … 계사년 사월에 적들이 서울에서 철수했는데 그때 살아남은 백성 중 또다시 굶주림과 돌림병으로 죽은 자가 열 명 중에 여덟아홉 명이나 되었다. 이처럼 우리 백성들은 일대 액운을 당한 것이다.”¹⁵⁾

이는 변란에 속수무책이었던 조선 지배층의 무능함과 백성들의 어려운 삶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지봉 이수광(芝峯 李睟光, 1563~1628)의 『지봉유설』 권 1, 재이부(災異部) 기황(饑荒) 편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선왕조 계사 갑오년은 왜란을 겪은 다음이어서 무명 한 필에 쌀 두되였고, 말 한필 값이 쌀 서너 말에 불과했다. 굶주린 백성은 백주에 사람을 잡아먹고, 부자와 부부가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거기에 전염병이 겹쳐서 길에 죽은 시체가 서로 베개 삼았고, 수구문 밖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어 성벽 위로 두어 길이나 높았다. … … (하략)”¹⁶⁾

이처럼 왜란 이후 30년도 지나지 않아 두 차례의 호란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처참하고 피폐한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두 차례의 전쟁을 치른 16세기 조선의 농민들은 파산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렸으며, 거주지에서 도망치거나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폐로 인해 백성들의 영양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면역력도 매우 낮아져 잦은 전염병이 창궐하였고, 많은 사망자들이 속출하였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로 인해 지배 이념이었던 성리학의 효용성은 의심을 받게 되었다. 16세기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조선 사회는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면서

15) 유성룡, 『서애집』 권16, 기란후사. “壬辰四月三十日 車駕出城 亂民先焚掌隸院刑曹 蓋以局公私奴婢門籍所在地 又入內帑庫 搶掠金帛 … …(중략) … … 明年四月賊出城 而因饑餓癘疫 死者又十八九 蓋其生民一大厄會”

16) 이수광, 『지봉유설』, “頃在先王朝 癸巳甲午年間 新經倭寇 木線一匹直米二升 一馬價不過三四斗 至父子夫婦相殺食… … (하략)”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모순을 드러냈다. 사회적으로 관리들은 백성들의 생활은 돌보지 않았고, 실생활과 거리가 먼 학문적 논쟁을 격화시키며 자신들만의 생각을 내세웠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백성들의 어려운 삶 속에서 조선 왕조의 지배원리였던 성리학은 사회적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새로운 서양 문물이 청나라로부터 유입되고 있었다. 이런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이 요구되었지만, 조선의 성리학은 합리적 수습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성리학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회적 변화를 갈망했던 학자들은 현실을 직시하였고, 기존 양반 사회의 모순을 내재적으로 비판하였으며, 백성들이 잘 살고 나라가 튼튼해지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처럼 실학의 형성과 발전은 17세기를 전후 하여 시작되었으며, 실학은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변동과 변화의 중심축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적 변화 요구에 부응하여 유학도 이에 상응하는 획기적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렇듯 실학이 17세기 초 조선에서 대표적인 신사조이자 신학풍으로 형성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사회, 역사, 문화 및 과학 기술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실학사상은 이전의 진보적 사회정치 사상을 이론적 전제로 삼았으며, 17세기 이후 조선 사회의 역사적 발전과 변화로 인한 필연적 산물이었다. 17세기 초 실학사상은 외부적으로 중국을 통해 전해진 서양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내부적으로 조선의 자연과학의 발전과 성과로부터 영향을 받아 기초가 형성되었다.

2. 사상적 배경

조선 왕조의 지배원리였던 성리학은 15세기 조선의 통치 질서 확립에 지대한 역할과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성리학은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사회적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조선 사회의 학문의 중심을 이룬 성

리학은 불교를 억압하였고, 자연과학과 기술도 경시하였으며, 자유롭고 실용적인 학문의 발달을 가로막았다. 더욱이 왜란과 호란 이후 조선 사회가 사회적,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론적 주장에만 치우쳤던 성리학은 이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당시의 유학자들은 이론과 학설만 따지면서 백성들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였다. 이러한 때에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학문을 연구하자고 주장한 학자들이 다수 나타났다.

국제적으로 17세기의 서구 사회는 계몽주의 사상이 발전했던 시기였으며, 왕실과 귀족들의 상업 자본이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척식회사들을 창립했던 시기였다.¹⁷⁾ 국내적으로 17세기 조선 사회도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본질적·합리적인 대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608년 김육이 주장한 대동법이 경기도부터 실시되었고, 1610년 허준(許浚, 1546~1615)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이 출간되었으며, 1614년 이수광은 명나라에 사신으로 왕래하면서 습득한 새로운 지식을 종합해 백과전서인 『지봉유설』을 저술하였다. 1618년 허균(許筠, 1569~1618)은 이상세계를 설파한 『홍길동전(洪吉童傳)』을 발표하였으며, 1670년 유형원은 『반계수록』을 통해 조선 후기 실학을 정초하였다. 이처럼 변화를 갈망했던 신진 학자들은 성리학을 반성하고 비판하였으며,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백성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적 변화를 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17세기 이래 중국에서 간행된 각종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가 조선으로 전래되었으며, 실학자들의 철학적·사상적 인식과 사유에 영향을 끼쳤고, 전래된 과학기술 서적들은 실학자들에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상을 갖게 하였다. 이 시기에 유입된 청대의 고증학은 실사구시를 내세워 학문연구의 실증적 방법을 강조하였으며, 이로 인해 천문학, 지리학, 기하학 등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였다.

조선 후기의 사상계 일각에서는 기존 양반 사회의 모순을 내재적으로 비

17) 유럽은 동인도 회사 건립하는 시기로 영국은 1600년, 네덜란드는 1602년, 프랑스는 1604년, 덴마크는 1616년에 동양을 개척하기 위해 서구 열강이 다투어 나선 시기이다.

판하는 실학이 등장하였다. 조선 후기에 나타난 실학사상은 전통적 사회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려는 일련의 사상체계 확립으로 발전하였으며, 이는 유교적 이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교 본래의 민본사회로의 복귀를 의미하였다. 조선 후기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변동과 모순에 직면하면서 그 해결책을 구상하는 노력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개혁 사상이 실학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실학의 사상이나 개혁 논리는 종래의 성리학과는 달리 백성의 실생활에 입각하였으며, 그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실학은 성리학이 초기의 참신한 기운을 잃고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이론에만 치우치자 사실에 입각한 비판 정신이 일어나게 되었고, 청나라에서 들어온 고증학과 서양의 과학적 사고방식을 받아들여 새로운 학풍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발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18세기를 전후하여 재야의 진보적 지식인들에 의해 사회 개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조선은 국제 정세의 변화와 사회적 변화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점차 성리학의 교조적인 주자 해석에 따라 경전을 해석하기를 거부하였고, 성리학 자체를 거부하며 극복하려는 단계에 이르렀고, 결국 근대 문물을 도입하려는 개화사상을 발전시켰다.

18세기 전반 이익을 대중(大宗)으로 하여 토지제도 및 행정기구와 기타 제도상의 개혁에 치중하는 경제치용학파가 형성되었다. 18세기 후반에는 박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상공업의 유통 및 생산기술의 혁신을 지표로 삼는 이용후생학파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19세기 전반에는 김정희(金正喜)를 중심으로 경서, 금석(金石), 전고(典故)의 고증을 위주로 하는 실사구시학파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실사구시학파의 거장(巨匠) 김정희의 경학연구는 단편적인 부분에 머물러 체계화·논리화되지 못했다.

3. 경제적 배경

조선시대의 경제정책은 농본주의를 중시하는 중농정책이었다. 조선의 주요 관심사는 농업을 중심으로 봉건적 소작체제를 유지하는 차원에 머무르고 있었다. 더욱이 사전(私田)을 축소하고 공전(公田)을 확대하여 재정수입의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하여 여러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중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은 납세자인 농민의 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수세법이였다. 하지만 답험손실법의 집행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답험하는 관리의 부족과 답험의 책임자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현대에서도 조세집행의 핵심적인 문제는 세무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청렴도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세무관리의 전문성보다는 청렴도가 더욱 요구되었다. 그러나 관리의 태만 및 부패 등으로 인해 청렴도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¹⁸⁾ 뿐만 아니라 토지제도 측면에서 조선은 과전법이라는 토지 개혁을 통해 농민을 보호하면서 대신 전세(田稅, 토지세), 공납(貢納, 토지세), 역(役, 군역과 요역)이라는 수취 체제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점차 양반지주 등이 더 많은 토지를 가지려 하였고, 탐관오리들이 공납제를 교묘히 역이용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것은 공납(각 지방의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는 것)으로 인한 폐단이었다. 이런 와중에 16세기 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토는 더욱 황폐화되었고, 백성들의 삶도 매우 힘들어져 갔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조선 후기 사회는 경제적 변화와 발전을 촉구하였으며, 이런 상황에서 실학이 발생하였다. 전쟁 피해의 복구 과정에서 피지배층은 끊임없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개선과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표적 사상으로 실학이 등장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실학자들은 학문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백성들의 실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광해군 때 민생 안정과 왕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경기도에서 기존 공납을 쌀로 환산해 내는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뒤

18) 오기수, 「조선시대 전세(田稅)의 공평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7권 제1호 (2010년 3월), p.135.

등장한 공인(貢人)은 공납 청부업자인 어용상인으로서 산업자본가로 성장하여 수공업과 상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또한 화폐의 유통을 촉진시켰고, 운송활동을 증대시켰으며, 이로 인한 교환경제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상공인 계층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농민분화를 촉진시키며, 기존의 신분질서를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었다.

조선시대에 상공업은 국가의 엄격한 통제 하에 놓여 자유로운 성장에서 제약을 받고 있었다. 조선은 상업으로 인해 사치와 낭비가 조장되며 빈부 격차가 심해진다고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상공업과 무역과 화폐유통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농업이 중시된 반면 상공업은 위축되었다. 조선의 상공업은 관영 수공업체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전국의 수공업자들은 각 관청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제조해야만 했다. 더욱이 상품의 유통으로 인한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매 활동도 부진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유통으로 인한 화폐경제가 진전을 이룩하였고 민영 수공업자의 활동이 활발해졌지만, 상공업은 국가의 통제 하에 시전이라는 어용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7세기 후반부터 상공업은 반전을 거듭하면서 시장과 상업 활동이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조선 후기 상공업은 실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서서히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제3절 실학파의 유형과 특징

1. 초기 실학운동의 등장

조선 후기 실학은 대체로 이이(李珥)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수광, 김육, 한백겸(韓百謙, 1552~1615) 등을 거쳐 유형원에 이르러 학(學)으로서의 성격을 이루었고, 이익에 이르러 학파로서의 존재가 확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7세기 초 실학파는 실제 생활과 생산에 유리하거나 유용한 학문을 모두 실학연구의 대상과 내용으로 삼았다.

실학은 18세기 중엽에 학풍으로 형성되었고, 개항을 계기로 개화사상으로 전환되었다는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¹⁹⁾ 이처럼 실학 운동은 한백겸, 이수광, 김육 등에 의해 실용적 학문으로 제기되어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실학의 전개와 발전 과정은 이들의 삶을 통해 살펴보아야 한다.

1) 한백겸(韓百謙, 1552~1615)

17세기에는 안으로 분열된 사회를 다시 통합하고, 밖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되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임진왜란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사회경제 정책 시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예제(禮制)의 회복과 교화(教化)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며, 다양한 사상적 요소들을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역사학에도 영향을 끼쳐, 이전의 서술체제와는 다른 역사지리 중심의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고, 이러한 흐름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한백겸이었다.

그는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젊은 시절부터 학문에 뜻을 두고 화담 서경덕(花潭 徐敬德, 1489~1546)의 제자였던 행촌(杏村) 민순(閔純, 1519~1591)의 문하에 들어가 그로부터 『소학』과 『근사록(近思錄)』 등의 가르침을 받았다. 역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고, 예서(禮書)에 힘을 기울였다. 또한 의리(義理)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여 육경논맹(六經論孟)과 염락관민(濂洛關閩)까지 정통하였다.

한백겸은 과거 시험에는 응하지 않고 학문 연마에만 집중하였지만, 1586년(선조 19) 주변의 천거로 관직에 올라 중부참봉(中部參奉)·경기전(慶基殿) 참봉·호조좌랑·형조좌랑을 지내다가 외직인 황해도(黃海道) 안악현감으

19) 박찬영, 「한국사를 보다」, 리베르스쿨, 2011, p.40.

로 발령받아 2년간 근무하였으며, 다시 함중현령을 지내고 강원도 영월군수에 부임했다. 1589년(선조 22) 정여립 모반 때 연좌되어 귀양을 떠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 때 석방되어 적소에서 적군에게 아부하여 난을 선동한 자들을 참살한 공으로 내자직장(內資直長)이 되었다가 여러 내외직을 거쳤다. 1602년 청주목사를 지내고 당상관으로 승진하여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장례원 판결사와 호조참의를 지냈다. 그는 역학(易學)에 밝아 선조 때 홍가신(洪可臣) 정구(鄭逵) 등과 함께 『주역전의(周易傳義)』의 이동(異同)을 교정하는 일에 선발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의 졸기(卒記)에는 그를 ‘사람됨이 단아하고 마음가짐이 관대하였으며, 지극히 효우(孝友)의 행실이 있을 뿐 아니라 지방관으로 있을 때는 순리(循吏)로 칭해졌다’²⁰⁾고 평가되어 있다.

1608년에 선조가 죽었을 때 대신들은 한백겸이 예(禮)에 밝다 하여 빈전(殯殿)의 모든 상례(尙禮)를 그에게 맡겼다. 그는 58세 때인 1610년에 ‘공물변통소(貢物變通疏)’라는 상소를 올려 이른바 지방의 특산물을 나라에 공물로 바치는 폐악스러운 제도 때문에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열거하였다. 이러한 공물변통의 주장은 당시의 대관이던 이원익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공물제도를 개선한 대동법으로 바뀌었고, 후에 김육의 정책으로 반영되어 대동법을 시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1612년 60세 때에 과주목사에 발령되었으나 벼슬을 사퇴하고 낙향하여 학문연구에 몰두하였다. 1615년 64세에 명저인 『동국지리지』의 저작을 마치고 그해 7월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저술 『동국지리지』는 60장에 이르는 작은 책자이나 그의 독창성과 비판정신이 가득한 학문적 태도는 종래의 역사가들의 학설을 비판 수정하였고, 이 방면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동국지리지』는 역사 지리학의 단서를 열어 놓았고, 또한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 전개된 고대사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또한 이 책은 조선자체의 역사·지리에 대한 관심이 결집되어 나타난 최초의 저서로 실증적이고 고증학적인 방법으로

20) 『조선왕조실록』, 光海 92卷, 7年(1615), 前參議韓百謙卒 百謙字鳴吉 自號久庵 爲人端重 秉心平恕 少師閔杏村純 精於易學 尤致力於禮書 以薦入仕 宣廟嘗命聚中外儒臣 校『周易傳義』 同異 百謙與洪可臣 鄭逵 同與其選 居家有孝友至行 屢典州郡 稱循吏 辛亥 拜坡州牧使 見廢朝政亂 卽棄官歸西湖小庄 以書史自娛 沈潛經籍 及是卒.”

저술된 책이었으며, 실학의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강역, 공간의 역사적 변천에 대한 체계적인 최초의 저술로 간주되었다.

한백겸의 학문적 업적으로는 ‘기전유제설(箕田遺制說)’과 ‘기전도(箕田圖)’가 있다. 기전도는 고조선의 왕 기자(箕子)가 시행하였다는 정전(井田) 제도의 유적이 평양에 남아 있음을 입증하였다.²¹⁾ 후대에 실학자들이 쓴 『반계수록』과 『경세유표』에는 토지정책의 핵심은 토지소유의 평등과 분배의 균등화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주자(朱子)가 부인했다는 이유로 주자 이후의 보통의 성리학자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던 정전제도였지만, 한백겸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통해 실재했음이 밝혀지면서 후대에 공전제(公田制)의 확충을 주장했던 실학자들이 자신들의 학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던 중요한 자료였다.

『반계수록』과 『동국여지지도(東國輿地誌)』를 쓴 반계 유형원은 “오직 근세의 한백겸이 변론했던 것이, 천년동안 정해지지 못했던 것을 깊이 알아냈으니 그분의 학설에 의해서 확정한다.”고 격찬하며 그의 학설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여암 신경준, 순암 안정복 등도 한백겸 학설에서 일정부분의 영향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다.²²⁾ 실학의 집대성자 다산 정약용도 그의 저서 『아방강역고』에서 “한백겸의 학설은 바꿀 수 없는 정론(定論)”이라고 단정하여 높은 수준의 학문이라고 평가하였다.²³⁾ 역사학자 이기백 교수는 『구암유고 동국지리지』 서문에서 “그의 주장이 반드시 옳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당시의 학문적 수준에 비추어볼 때 그의 주장은 실로 놀랍도록 참신한 새 학설이었다. 그러기에 그의 주장은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등 여러 실학자들의 전제개혁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²⁴⁾

2) 이수광(李睟光, 1563~1628)

21) 김성호, 『씨성으로 본 한일민족의 기원』, 푸른숲, 2000, p.41.

22) 정민,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김영사, 2006, p.110.

23) 지금완, 『한백겸의 『구암유고』 역주 (韓百謙의 『久菴遺稿 譯註)』,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5, pp.13-24.

24) 박석무, 「역사의 땅, 사상의 고향(15) 실학적 역사학 창시 한백겸」, 경향신문, 2007.

조선시대 문화백과사전의 효시라 평가받은 『지봉유설(芝峯類說)』의 저자로 조선중기 학자이자 정치가였으며, 후대에는 실학의 선구자로 인정받는 인물이다. 1628년 12월 26일자 『조선왕조실록』 「인조」 편에 실려 있는 이수광의 졸기(卒記- 인물이 사망한 뒤 기록한 평가)를 보면, 그의 인물 됴됨이가 잘 드러나 있다.

“약관의 나이(23세)에 급제하여 청현직(淸顯職)을 두루 거쳤으며, ‘교유(交遊)를 일삼지 않고 전랑(銓郎)이 된 사람은 수광뿐이다.’”²⁵⁾

“수광은 외모가 옷을 감당하지 못할 듯이 약했으며 매우 과묵한 인물이었고, 몸가짐은 단정하고 엄숙하였으며 음악과 여색, 이욕(利慾- 사사로운 이익을 탐내는 욕심)에 대해서도 담담하여 좋아하지 않았다. 편당 짓는 것을 싫어하고 담백하였으며, 권위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벼슬살이 44년 동안 여러 차례 변란을 겪었으나 출처와 언행에 조금도 흠결이 없었으니,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²⁶⁾

이를 통해 그는 지성과 함께 인품도 갖춘 훌륭한 인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수광은 내외환이 극심했던 시기에 살았으며, 임진왜란의 참상을 경험하였고, 정치인으로서 뼈아픈 반성을 하였다. 전쟁이 끝난 뒤 정치적 혼란 속에서 당색을 멀리하며 중도의 입장을 취했던 이수광은 계축옥사(癸丑獄事, 1613)가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비우당(庇雨堂)에 은거하며 『지봉유설』을 집필하였다. 그의 저술 『지봉유설』에는 「조완벽전(趙完璧傳)」이라는 개인의 전기가 실려 있다. 조완벽은 경남 진주의 선비로 1597년 정유재란의 발발과 함께 일본에 포로가 되어 노예생활을 하던 중 한문을 읽을 줄 안다는 이유로 베트남 무역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인 무역

25) 『조선왕조실록』 仁祖 19卷, 6年, “暉光字潤卿 號芝峯 弱冠擢第 歷敷淸顯 人謂不事交遊 而得銓郎 惟暉光云”

26) 위의 책, “暉光貌若不勝衣 言若不出口 而繩檢甚嚴 雅性恬退 除命每下 必逡巡辭避 於聲色紛華 泊然無所好 接人和遜 而人自不敢以狎進 立朝四十四年 屢經世變 而出處 言行 無少玷類 人莫不多之”

상인에게 팔려갔다. 그는 조선인 최초로 베트남에 가게 되었다. 그는 베트남에서 지봉 이수광의 시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훗날 고국에 돌아와 베트남에서 이수광의 시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수광은 1597년에 사신으로 연경(燕京, 지금의 북경)에 갔다가 안남(베트남) 사신으로 대문장가 풍극관(馮克寬, 1528~1613)과 옥하관(玉河館)에서 50여 일간 함께 머물며 시를 지었고, 이후 두 사람의 시는 각 나라에 소개되어 회자되었다. 두 사람의 옥하관 창수(唱酬)는 그로부터 2세기가 지난 1790년(정조 14) 열하에서 서호수(徐浩修)를 만난 안남 사신 반휘익(潘輝益)에 의해 ‘천고의 기이한 만남’으로 묘사되었다. 이처럼 그는 베트남에서도 유명하였으며,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살았던 이수광은 조선인이 아니라 세계인이었다. 『지봉유설』 권 2의 제국부 「외국」 조에는 안남(베트남)으로부터 시작하여 진랍국(캄보디아), 회회국(아라비아), 불랑기국(포르투갈), 대서국(이탈리아) 등 유럽 나라들에 대한 정보까지 소개되어 있다. 그는 3차례에 걸친 명나라 사행을 통해 신간 서적 및 세계 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기록해 두었다.²⁷⁾

또한 『지봉유설』에는 예수회 선교사인 마테오리치(Matteo Ricci, 1552~1610)와 함께 천주교 교리서인 『천주실의』가 최초로 소개되어 있다. 17세기 초 서양의 종교와 문물은 중국에 온 마테오리치에 의해 본격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조선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수광은 1590년과 1597년, 1611년에 각각 중국에 다녀왔는데, 이 시기는 마테오리치의 본격적인 동양 선교 시기와 일치하였다. 이수광은 『천주실의』 외에도 1602년에 마테오리치가 만든 「곤여만국전도」가 이듬해 조선에 전해졌다는 사실을 『지봉유설』에 밝혀두었다. 둥근 구형의 지구에 5대륙을 그린 「곤여만국전도」는 동아시아의 세계관을 바꿔 놓은 세계지도이다.²⁸⁾

그는 명나라 수도 연경에서 동남아에서 온 사신들과 더불어 서양 선교사들과도 만났다.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외국 문물을 객관적으로 이해했고 포용했다. 중국 속의 조선이 아닌 세계 속의 조선, 그리고 그 속에서

27) 한영우,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 경세원, 2007. p.15.

28) 위의 책, p.15.

자신이 태어나 살고 있는 조선을 자각한 것이다.²⁹⁾

이처럼 『지봉유설』은 당대의 모든 지식과 정보가 총합된 문화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초반의 저술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다양한 세계의 정보는 저자 자신의 세 차례에 걸친 명나라 사행 경험으로 획득한 것이었다. 명에서의 사신 활동을 통해 이수광은 자신이 만난 동남아 지역의 사신들이나 당시 명에서 활약하던 서양인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이들의 문물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였으며, 이들의 역사와 문화를 자신이 살고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와 비교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는 고유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주체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세계 문화를 수용하는 데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조선 문화백과사전의 효시를 이루는 저술로서 『지봉유설』은 당시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살았던 시대의 과제를 인식하고 국부의 증진 및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학문적 모색을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이수광의 학풍에서 특징적으로 지적되는 학문적 다양성은 성리학 외의 다양한 학문을 거부감이나 선입견 없이 두루 탐구하는 박학풍과 외국에 대한 그의 개방적인 인식을 대변하였다. 그는 국가 발전이나 백성의 삶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술하였으며, 후대 북학파를 비롯한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지봉유설』 이후 저술된 이익의 『성호사설』, 이덕무의 『청장관전』,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의 저술에서 엿볼 수 있는 백과사전적 학풍은 바로 『지봉유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수광 이후 실학이 지향한 실용적, 개방적 학풍도 『지봉유설』이 제공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³⁰⁾

실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1930년대 국학자들은 이수광을 실학의 선구자로 인식했다. 이수광은 “학문을 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실천에 힘써야지 입으로만 떠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그가 실천과 유용성에 학문의 가치를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실학사상은 당시 전통적인 유학자들이 경전이나 읽고 시나 지으면서, 허송세월을 하는데 비판의 화살을 겨누었다. 그러면서 그는 학문이란 마치 활 쏘는 것과 같아서 목적을

29) 위의 책, p.15.

30) <https://ko.wikipedia.org/wiki/%EC%A7%80%EB%B4%89%EC%9C%A0%EC%84%A4>

뚜렷이 세우고 그 방향으로 가야 쓸모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는 조선 봉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폐단을 들추어냈으며, 외국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고 해외 통상을 발전시켜 봉건 국가의 진흥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실학적 입장을 반영하는 그의 진보적 사상과 견해는 후에 실학사상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3) 김육(金堉, 1580~1658)

김육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발발했던 조선 초유의 국난 시기를 살았던 인물로 그의 현실 개혁은 조선이 처해있던 위기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다. 왜란과 호란은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했고, 정부는 국가 재정을 비롯한 전후 복구 문제가 급박한 실정이었다. 전란 후 재정복구책이 실시되는 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였던 인물은 김육이었다. 당시의 위정자들은 파탄이 난 국가 재정만을 생각했지만, 그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이 첫째 과제이라고 생각했다. 10여 년간 농사꾼으로 살았던 그는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할 최고의 책임자였다.

김육은 『소학』을 읽다가는 “낮은 벼슬아치라도 진실로 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어야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정자의 글을 읽고 백성 구제의 큰 뜻을 품기도 했다.

김육은 13세에 임진왜란과 그 후 갑작스런 부모의 죽음을 경험하였다. 1604년 한성에서 열린 사마 초시와 회시에 급제하고 성균관시에서 수석을 차지하였다. 소과를 통과한 후에 1611년 별시 초시와 증광별시 등에 합격하였지만, 조정에 나갈 뜻을 접고 1613년 가평의 잠곡 청덕동 화개산 아래에서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생활을 시작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하자, 김육은 곧바로 6품직의 벼슬을 받아 의금부도사가 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세자시강원으로 있었던 그는 세자를 따라 피난을 갔고 오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자신의 소신을 밝힌 시무책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중앙에서 화려한 벼슬도 했지만, 목민관으로서의 치적도 탁월했다.

1635년 안변도호부사 시절에는 안변 관아의 무기고를 정비했고, 관북 지역 유생들의 학풍을 진작하고 병사들을 조련했다. 1636년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김육은 그해 6월 동지사로 명나라에 갔다. 이 시기 중국은 명이 쇠퇴하고 요동지역의 후금이 강성해진 시기였다. 그는 요동을 통해 북경으로 가는 육로가 막히자 해로를 이용하여 12월이 되어서야 북경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북경에서 병자호란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명나라에 지원병을 요청할 생각으로 동분서주했지만, 이미 명은 지원병을 보낼 형편이 못되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고, 산해관을 나와 영원, 장산도, 석다산을 경유하여 이듬해 5월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귀국 후 김육은 조선 내부의 개혁에 온 정력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병자호란 와중에 귀국한 그는 1638년 7월 정태화의 후임으로 충청도관찰사가 되자 대동법(大同法)과 균역법의 시행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어서 『구황촬요(救荒撮要)』와 『벽온방(辟瘟方)』을 간행하고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수차(水車)를 만들어서 관개(灌溉)에 쓰게 하는 등 부국(富國)을 위해 힘썼다. 임기를 마친 뒤에는 서울에 올라와 홍문관 부제학, 호조참의, 한성부우윤 등 두루 고위직을 거쳤고 청렴한 성품으로 인조의 총애를 받았다.

10년 뒤인 1646년에는 사은사로, 1650년에는 대신 자격으로 북경을 왕래했다. 김육은 17세기 중반 동아시아 역사의 가장 중요한 고비에 중국에 있었다. 그는 중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느꼈고, 선진적인 중국 문물이나 제도를 조선에 도입하고자 했다. 이러한 경험들이 그가 다른 관념적인 성리학자들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회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광해군 시대 10 년간의 은거 생활과 인조와 효종의 중국 사행 체험은 김육의 경제적 학풍에 큰 영향을 끼쳤다. 1613년부터 1623년 인조반정 직전까지 10년 동안 경기도 가평의 잠곡에서 주경야독하던 생활을 통해 백성들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였고, 네 차례에 걸친 중국 사행을 통해 중국 문물을 접할 수 있었던 경험이 대동법과 용전론(用錢論)에 바탕을 둔 경제학

을 탄생시켰다.

대동법은 조선 후기 시행되었던 가장 합리적인 세법(稅法)이었다. 대동법은 토지 1결당 백미 12두만을 납부하게 하는 세법으로 그간 공물·진상·관수(官需)·쇄마(刷馬) 등 각종 명목으로 잡다하게 거둬들여 균등하지 못했던 조세를 형평하게 만든 것이다. 대동법은 이미 이원익과 한백겸의 건의로 1608년(광해군 원년) 경기도에 실시한 적이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638년(인조 16년) 김육이 충청감사로 제수되면서 대동법 시행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그는 대동법의 실시가 백성을 구제하는 방편이면서 국가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대동법이 국가 재정을 부족하게 만드는 세법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 실제 운영에는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효종의 등극과 함께 그는 우의정에 제수되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는 효종에게 충청도와 전라도에도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건의하였고 대동법이야말로 곤궁에 빠진 백성을 구제할 구민책이라 주장하였다. 결국 김집(金集, 1574~1656) 등 산림 출신들과 불화를 낳기도 했지만 결국 효종 2년 호서지방에서도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그는 호서대동법에 만족치 않고 호남으로 확대실시를 꾀하였고, 호서대동법의 성공적인 시행에 힘을 얻어 1658년(효종 9년)에 호남지역에도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김육은 대동법 외에도 상평통보의 주조, 마차 및 수차의 제조와 보급, 새로운 역법(曆法)인 시헌력(時憲曆)의 사용 등 혁신적인 제도개혁을 주장하였고, 이 가운데서도 특히 대동법의 전국적인 시행을 필생의 사업으로 심혈을 기울였다.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전라도 대동법안을 유언으로 상소할 만큼 강한 의지와 집념을 보였다. 『효종실록』은 그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평소에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는데 정승이 되자 새로 시행한 것이 많았다. 양호(兩湖)의 대동법은 그가 건의한 것이다. 다만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처음 대동법을 의논할 때 김집(金集)과 의견이 맞지 않자 김육이 불만을 품고 상소로 여러 차례에 걸쳐 김집을 공격하니

사람들이 단점으로 여겼다. 그가 죽자 상이 탄식하기를 ‘어떻게 하면 국사를 담당하여 김육과 같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31)”

이처럼 김육은 대동법 등 경세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대동’이라는 말은 유교 경전 『예기』의 ‘대동 세계’에서 따온 것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하게 산다는 유교적 이상 사회를 뜻한다. 그만큼 대동법으로 조선 사회가 안정되기를 바란 것이다. 그러나 이 대동법에 대한 반발은 토지를 다수 차지하던 집권층 양반부터 기존 공납제로 이득을 보던 말단 관료까지 매우 거세게 일어났다. 이 제도는 숙종 시기에 전국적으로 실시될 때까지 10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집권층과 달리 비주류 세력으로 민생 안정에 관심이 많았던 김육은 효종 때에 대동법을 지지하며 전국적 확대를 주장하였다. 70세 늦은 나이에도 상소를 올려 효종을 설득했고 심지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대동법이 잘 유지되고 확산되기를 바랐다. 이러한 그의 소신과 주장은 동료 신하들의 비웃음까지 받았으나, 그는 오로지 백성을 위해 대동법을 변호하여 마침내 충청, 전라도의 대동법 시행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리고 18세기 숙종 시기에 황해도까지 실시해 대동법이 마무리되었다. 이를 통해 다수의 농민 부담이 줄어들었고 반대로 상품 화폐경제가 발달해 공인 등 상인이 성장하고 유통 경제도 발전하며 지방 장시도 활성화되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며 대동법의 운영상 문제가 나타나고 공납제도 여전히 잔존하면서 다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대동법을 통해 조선 후기 사회는 양란의 상흔을 씻고 다양한 계층과 문화가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2. 중농학과(重農學派)의 등장과 특징

31) 『효종실록』 효종 9년(1658년) 9월 5일자, “平生以經濟自任 及爲相 多所施設 兩湖大同之法 其所建白也 但自信太過 初議大同之法 與金集不合 培遂懷不平 累陳疏攻集 人以此短之 及卒 上歎曰 安得擔當國事 堅確不撓如金培者乎 年七十九 次子佑明 以當宁國舅 封清風府院君”

1) 주요 주장과 특징

실학학자들은 성리학의 관념화나 예학의 의식화에 대해 반성하면서 민생 문제에 주목하였으며, 특히 농촌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조선사회는 그 학문적 기반이 원시유학인 육경(六經)체제였는데, 이는 바로 요순 삼대의 문물제도였으며, 삼대의 이상인 민본주의를 지향하였고, 민의 토대인 토지 제도에 관심을 집중하였다. 당시 농촌경제의 안정 여부는 사회의 안위와 국가의 존폐에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들 실학자들은 농촌경제의 안정을 추구하였으며, 농민의 입장에서 토지제도, 조세제도, 군사제도, 교육제도 등의 폐단을 시정하려 노력하였다.

실학자들은 토지소유의 편중으로 인해 농민생활이 안정되지 못한다고 보았으며, 토지제도의 개혁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농민 중심으로 농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 실학자들 사이에서도 토지제도의 개혁 방안에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유형원은 균전론을, 이익은 한전론을, 정약용은 여전론을 내세워 토지를 재분배함으로써 자영농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이들은 토지제도 및 행정기구, 기타 제도상의 개혁에 치중하였으며, 유형원과 이익과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을 중심으로 개혁론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농업 발달이 백성구제의 길임을 인식하였고, 경작하는 농민에게 토지를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는 토지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영농 육성과 신분제도 폐지 및 정치제도 개혁 등 여러 분야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17세기에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한 실학적 학풍은 18세기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지역적으로 또는 학문 분야별로 발전하였다. 그 첫째는 토지제도 및 국가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조선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했던 학풍으로 성호 이익을 중심으로 한 남인(南人) 출신의 학자들이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서울과 가까운 농촌에서 생활한 덕분에 도시 양반들과 달리 농민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농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들이 바로 중농학파의 선두주자들이었다.

성호 이익을 중주로 하여 실학의 성호학파는 조선 후기 농업 생산력 발전과 이에 따른 토지소유 문제를 농민의 처지에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이로 인해 이들의 주요 관심사는 토지제도와 조세제도, 신분제도, 관리의 선발과 임용,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계 등에 대한 개혁사상과 이론의 제시였다. 성호 이익의 실학사상은 정상기(鄭尙驥, 1678~1752), 이중환(李重煥, 1690~1752), 윤동규(尹東奎, 1695~1773), 신후담(愼後聃, 1701~1761), 이병휴(李秉休, 1711~1776), 안정복(安鼎福, 1712~1791), 이맹휴(李孟休, 1713~1751), 권철신(權哲身, 1736~1801), 우하영(禹夏永, 1741~1812), 이가환(李家煥, 1742~1801), 정약전(丁若銓, 1758~1816), 그리고 정약용 등에게 이어졌다.

2) 대표적인 증농학자

(1) 유형원(柳馨遠, 1622~1673)

반계 유형원은 조선 후기 실학 증농학파의 대표적 학자였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임진왜란에 이어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란이 발발한 시기였고, 조선 건국 이래 누적되어 왔던 여러 가지 모순이 극대화되어 가는 시점이였다. 더욱이 삼정(三政)³²⁾의 문란은 농민들의 삶을 파괴하여 농민들을 노비나 도적으로 전락시키고 있었던 시기였다. 유형원은 이러한 조선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폐단을 바로잡고자 노력한 개혁가라 말할 수 있다. 조선 후기 국가개혁안의 교과서라 평가받는 『반계수록(磻溪隧錄)』에 수록된 그의 개혁사상은 이미 영조 시대에 인정을 받아 국정 개혁의 지표가 되기도 했다. 조선 후기 유학자 매천 황현(黃玹, 1855~1910)은 반계 유형원을 가리켜 ‘천하의 재상감’이라 칭송하였다.

32) 삼정(三政)은 조선 후기 국가재정의 근간을 이루었던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을 통칭하는 말. 토지세와 균역의 부과 및 양곡 대여와 환수를 이른다.

경화사족(京華士族) 출신의 유형원은 부친이 ‘유몽인의 역옥’³³⁾ 사건에 연루되어 역적의 누명을 쓰게 되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훗날 과거나 정치에서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가정사와 함께 14살에 겪은 병자호란은 유형원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유형원은 조부모와 어머니와 함께 원주의 피난생활을 통해 나라가 약하면 치욕을 당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훗날 국방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에 대한 복수심으로 하루에 300리를 달리는 기마연습을 하였고, 주변 사람들과 활과 조총 연습을 하였으며, 『중흥위략(中興偉略)』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된 것도 병자호란을 겪은 그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형원은 어린 시절부터 사물에 대한 탐구가 남달랐는데, 다산 정약용은 그가 이미 여덟 살에 『서경(書經)』과 『역경(易經)』을 읽는 천재였다고 말했다. 이십대에는 과거 공부를 하는 대신 고모부인 김세렴이 함경감사로 임명되자 그를 따라 함경도, 평안도 등지를 여행하며 백성들의 고통 받는 실상을 피부로 느끼고 현실과 실제적인 학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유형원은 정쟁을 피해 전북 부안으로 내려와 새로운 세상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했다. 정쟁으로 혼란스러운 서울 생활을 접고 바다와 가까우면서 산천이 아름다운 부안군 우반동으로 낙향한 그는 우반동 산자락에 ‘반계서당’을 짓고 제자 양성과 만권에 달하는 장서와 함께 학문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성리학을 비롯하여 정치·경제·역사·지리·병법·문학 등을 모두 섭렵하였다. 그는 35세에 『여지지(輿地志)』라는 지리서를 저술했고, 이듬해에는 호남지역을 살피면서 지역의 풍토와 물산 등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40세에는 영남 지역을 답사하며 시간을 보냈다.

유형원이 생각했던 개혁안의 핵심은 토지 문제였다. 소수의 양반들이 전국의 토지를 차지해가는 현실을 보면서 그는 균등한 토지의 소유야말로 국가와 백성이 안정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 판단했다. 때문에 나라를 부

33) 유몽인(柳夢寅, 1559~1623)은 인조반정 후 은둔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의 복위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고발을 받아 처형되었고, 이 사건에 부친인 유희도 무고하게 연루된 것이었다.

강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토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지는 골고루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면 나라는 저절로 부강하게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균전론(均田論)³⁴과 경자유전(耕者有田)은 토지개혁의 핵심 원칙이었다. 아울러 그는 경작 농지를 확보하고 농병일치의 균제, 그리고 균등한 세제와 과거제도의 폐지 등을 주장하며 이상 국가의 건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유형원은 35세에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를 시작으로 『이기총론(理氣總論)』 등 다수의 책을 저술하였으며, 31세에서 49세에 이르는 세월에 걸쳐 저술한 『반계수록』은 그의 필생의 대작이었다. 그의 국가개혁안이 총망라된 『반계수록』은 그가 일생동안 재야의 사림으로 학문에 전념하면서 내놓은 필생의 역작이었으나,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못하였다. 1670년에 완성된 『반계수록』 26권은 그의 사상과 국가 건설안이 담긴 대작이었으나, 그의 생전 시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1678년 배상유(裴尙瑜, 1610~1686)가 숙종에게 추천했지만,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새롭게 조명을 받은 것은 실학자들이 활약했던 18세기였다. 『반계수록』은 덕촌 양득중(梁得中, 1665~1742)을 비롯하여 성호 이익과 그의 제자 순암 안정복(安鼎福, 1712~1791)에 의해 비로소 세간에 알려지고 칭송받게 되었다. 양득중은 영조에게 『반계수록』의 간행을 추천하는 상소를 올렸다. 개혁군주였던 정조는 유형원의 개혁안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했다. 『반계수록』은 정약용 등 후기 실학자들은 물론, 소론계의 성리학자 윤증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으며, 개혁군주인 영조와 정조에 의해 국정 개혁의 지표가 되었다.³⁵

34) 균전론은 이전위본(以田爲本)의 원칙에 따라 농민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모든 균역과 부세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부과되, 다만 사대부에게는 특권을 인정하여 2-4경(입학만 하면) 내지 6-12경(관직자의 경우 資品에 따라)의 토지를 분급하는 것이다. 이는 궁방, 관아, 토호, 양반들의 토지집적으로 야기된 토지제도의 문란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토지의 국유화와 균전적 재분배를 목표로 지주-전호제의 잔존을 인정하는 등 신분제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성을 드러냈다.

35) 『조선왕조실록』 正祖 38卷, 17年 “加贈贈執義 柳馨遠 吏曹參判成均館祭酒 教曰: “故處士贈執義兼進善 柳馨遠, 其所撰『磻溪隨錄補遺』曰: ‘水原都護府 以廣州下道之一用等面 移治於坪野 臨川因勢 邑城可築’ 申之以邑治規模 坪野大勝 眞是大藩鎮氣象 地內外可容萬戶 又言: ‘築城力役 當藉鄉軍停番之需’ 蓋其人有用之學 著之爲經濟文字 奇哉! 其論水原形便也 移治之謨 築城之略 身在百年之前 燭照今日之事 與合面 停番等節目細務 亦皆鑿鑿如符契 見其書 用其言 尙謂之曠感 其書不見而如見 其言未聞而已用 在予可謂朝暮遇”

다산 정약용은 정조의 명으로 수원성을 축성하면서 유형원의 축성 이론을 적용하기도 했다. 결국 유형원의 실학사상은 성호 이익을 거쳐 순암 안정복, 다산 정약용 등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세치용파(經世致用派)의 개혁방안으로 이어졌다. 그가 실학의 효시로 평가되는 것도 이러한 학문적 계보와 무관하지 않다. 실제 농촌 생활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당시 조선사회의 모순을 개혁하고자 한 그의 학문적 영역은 정치·경제·역사·지리·국방·언어에 이르기까지 방대했다.³⁶⁾ 영조시기에 『반계수록』이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승 윤증으로부터 유형원의 책을 빌려 읽은 제자 양득중이 영조에게 간행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린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형원을 흠모한 안정복은 『반계수록』을 읽은 뒤 “참으로 천리(天理)를 운용하여 만세를 위해 태평을 얻어주는 책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안정복은 1776년(영조 52)에 「반계선생연보」를 편찬하였다. 『반계수록』에 포함된 개혁방안은 19세기에도 이어져 대원군을 포함한 경세가들의 정책에 많이 반영되었다.

오랜 인습 속에 쌓여 온 조선 후기 지배체제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경세론을 펼친 유형원의 국가개혁론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보려는 실천적인 변법론이라는 역사적 평가와 함께 1980년 이우성 교수에 의해 『반계잡고(籓溪雜考)』라는 새로운 자료가 공개되면서 조선 후기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풍이 성리학파 사상적으로 연관되어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³⁷⁾

이처럼 실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시킨 유형원은 성리학에 대해서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반계수록』을 저술하여 국가제도 전반에 걸쳐 개혁안을 제시하였는데, 그의 개혁론은 이이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이가 경장기(更張期)에 당면한 문제를 중심으로 시폐(時弊)의 개혁에 치중하였다면, 유형원은 국가체제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학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

36) 신병주,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책과 함께, 2007, pp.318-323.

37) 위의 책, pp.320-323.

하고 있었다. 그는 중농학파의 선구자로 각종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관리, 선비, 농민 등에게 토지의 차등적인 재분배를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영농을 바탕으로 농병 일치의 군사 조직과 사농일치의 교육 제도 확립도 주장하였다.

(2) 이익(李瀾, 1681~1763)

유형원의 학풍을 발전시켜 경세치용의 학파를 형성시킨 중심적 인물이 성호 이익이었다. 남인 계열의 이익은 일생 동안 벼슬을 하지 않고 오직 학문 연구에 생애를 바친 학자 겸 저술가였다. 특히 그는 중농사상에 의거한 토지개혁, 즉 한전론을 주장하여 개인의 토지 점유를 제한하고, 관료와 토호들에 의한 토지 겸병의 금지를 역설하였다. 신분제도에 관해서도 양반과 농민 사이의 신분적 장벽을 타파할 것과 노비신분을 점차 해방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실학을 학파로 성립시킨 이익은 근기학파(近畿學派) 또는 성호학파의 시조로서, 성리학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를 통해서 들어온 서구의 자연과학 및 가톨릭 사상 등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천문·지리·역사·제도·풍속·군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개혁을 다룬 『성호사설(星湖僿說)』을 저술하였다.

한편 이익의 서학에 대한 종교적 관심과 태도에 따라 그의 학파 내에서 공서파(攻西派; 星湖右派)와 신서파(信西派; 星湖左派)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신후담(愼後聃)·안정복 등 공서파는 서양의 과학사상은 대체로 수용하면서도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이에 반하여 권철신(權哲身)·이가환(李家煥)·이벽(李穡) 등 신서파는 서양과학뿐 아니라 가톨릭 교리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북학파(北學派)라고도 불렸던 이용후생학파는, 성호학파가 주로 권력에서 소외된 남인(南人) 계층으로 농촌의 분위기에서 성장한 데 반해, 당시 지배계층인 노론(老論) 계열에 속하였으며 서울 주위의 도시적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고 말할 수 있

다. 이들은 연행(燕行)을 통해 청조의 선진문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북학 활용론을 주창하였다. 또한 이들은 당시 도학파가 숭명배청(崇明排淸)과 춘추대의(春秋大義)에 입각하여 북벌론(北伐論)을 주장하자 백성들에게 아무런 실질적 이득도 없는 공론이라며 이를 비판하였다. 이들은 상공업의 발달과 산업기술의 혁신을 중시하였으며, 이를 천시했던 양반층의 생리와 관념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이익이 주장한 균전론과 한전론³⁸⁾은 지주의 전호제적인 농업생산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는 있지만 시급한 해결을 요구했던 농민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고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새로운 차원으로 진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그가 차등을 두어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자영농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는 경제적으로 균등한 분배와 사회적으로 평등을 강조하였으며, 농업을 중시하면서도 상공업의 발달과 산업기술의 혁신을 중시하였고, 전통적인 성리학의 불합리한 모순을 타파하여 실용주의를 추구하였다.

(3) 정약용(丁若鏞, 1762~836)

다산 정약용은 이익의 계통을 이어 받은 남인 계열의 학자로서 한때 승지까지 지냈으나, 1801년의 천주교 탄압에 휩쓸려 인생 후반을 정배살이로 보내면서 오로지 학문의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였다. 다산은 성호의 한전론을 더욱 발전시켜 여전제를 창안하였다. 이는 30호(대개 1개 부락) 내외를 1여로 설정하고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케 하여 수확량을 조세, 기타 공동비용을 공제한 다음 노동일수에 따라 분배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는 경제적으로 균등한 분배를 실현하여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다산은 50여권의 방대한 저서를 남겼지만, 그 중에서도 중앙의 정치 조

38) 국가가 1호당 기준 소경전을 1경으로 작정하여 그것을 영업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전 이내의 매매는 금지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유매매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당시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대토지 소유의 현실을 인정한 위에서 점진적으로 토지소유의 균등화를 이룩하는 방안이었다.

직과 제도의 개혁안과 지방행정의 개혁에 관한 주장, 그리고 형정에 대한 견해 등을 기술한 저서들이 유명하다.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에 걸친 반계, 성호, 다산 그리고 서유구 등의 새로운 농업 개혁론의 주축은 종전의 지주제와 전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토지 소유와 농업경영을 제기한 것이었으며, 기본적으로 중농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실학사상은 19세기 초반 정약용에 의해서 집대성되었다. 정약용은 유형원과 이익의 학풍을 계승하였으며, 북학과 인물들과 직간접으로 교류하면서 북학을 섭취하였다. 이와 함께 청조의 고증학의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육경사서(六經四書)의 연구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실학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익의 후계자들이 가톨릭 신봉문제로 몇 차례에 걸쳐 제거를 당했고 박지원 일계(一系)의 학파도 문체반정(文體反正)이라는 죄명 아래 탄압을 받게 됨으로써, 제 3기에 접어들어 성격상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즉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의 주장이 퇴보하고 대신 금석·전고 등의 실증을 통해 경사(經史)의 진의를 밝히는 실사구시론이 등장하였다.

실사구시학과는 학문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엄격한 객관적 태도에 기초하여 사실을 밝히는데 노력하였으며, 자기의 이념이나 신념에 따라 경전을 주관적으로 해석한 이전의 실학자들과는 달리 근대적·과학적 연구 태도를 발전시키는데 집중하였다.

정약용이 주장한 여전제는 지주의 전호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의 사회경제체제를 철저히 부정하는 농민위주의 토지개혁론이었다.³⁹⁾ 생산물은 여민이 그 동안 투입한 노동량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되었다. 이는 봉건지주층을 부정하고 농민층의 경제적 평등을 추구한 것이었다.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농업 생산의 사회화를 통하여 이룩하려고 한 점에서 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지주의 전호제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농민들에게 차경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점진적인 개혁안이었다.

39) 여전제의 기본원리는 전국에 자연 촌락을 기초로 하여 30호를 1단위로 하는 여(閭)를 설치하고, 3여=1리, 5리=1방, 5방=1읍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체계를 구축한 뒤, 각 여 내의 모든 토지를 국유화하여 여민(閭民)의 공동소유로 만들어 공동 경작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정약용은 실학 연구를 집대성하였으며, 경제적 평등과 균등한 분배를 강조하면서 관리들은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그의 주장은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제유표(經世遺表)』,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등 r의 저서에 잘 나타나 있다.

3. 중상학과(重商學派)의 등장과 특징

1) 주요 주장과 특징

중상학파는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하였으며, 청의 발달된 문물의 수용을 주장하여 북학파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이들은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수입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상공업의 유통과 생산기구 등의 기술 혁신을 통해 조선사회를 변혁시키고자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들은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와 조정(楚亭) 박제가(朴齊家, 1750~1805)를 중심으로 한 서울 출신의 실학자들이었다. 이들은 지역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적 분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선의 뒤떨어진 경제사정을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개발을 통해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조선은 경제적으로 매우 빈곤하였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이 많았다. 선비들은 경제 생산과 동떨어진 학문에만 몰두했고 일반 백성들의 삶에 유용하고 생활을 풍족하게 하는 이른바 이용후생적 학문은 등한시 하였다. “한 동네에서 하루 두 끼를 먹는 집도 두 세 집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하여 절약할 여력이 없으니,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업의 진흥과 기술개발, 외국과의 통상 무역이 필요하다.”는 박제가의 주장은 조선의 빈곤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 경제관이었다.

당시 서울 출신의 실학자들은 조선사회가 안고 있는 허위의식에 대해 누구보다도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적인 허위의식은 신분차별과

상업에 대한 무시였다.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등 서자 출신의 실학자들은 사농공상(士農工商)을 중심으로 한 조선사회의 신분적 차별에 대해 비판적이었고, 사행단에 속해 청나라를 다녀온 뒤로는 중국과 서양으로부터 선진 문화를 수입하여 조선의 문화를 부흥시키고자 하였다. 중상학파의 대표자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을 들 수 있다.

병자호란 뒤 조선사회는 북벌(北伐)과 함께 청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통적인 화이관(華夷觀)에 젖어 있었던 조선 유학자들은 청을 중화(中華)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와 중국 연행을 다녀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홍대용이 있었다. 북학파는 서구 문물의 영향으로 크게 발달한 청나라의 문화를 본받자고 주장하였다. 병자호란 후 청나라의 과학기술이 조선에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근대화를 위한 실용주의였다. 주요 논리는 과학기술과 교육제도의 발전, 청국과의 교역 확대, 선진 도구의 이용, 서민 생활의 위생적·보건적 개선을 통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을 생활의 기본적 원칙으로 삼는 것이었다. 이들이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실용주의 논리를 살파한 것이 바로 실학 또는 북학론이었다. 이들은 청의 선진문물을 수용하여 상공업의 유통 및 생산 도구, 그리고 기술 혁신을 지표로 18세기 중반부터 북벌론을 대신하여 청의 실체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그 문화를 수용하자는 인식의 대전환을 주창하였다. 이는 조선 후기의 내재적 사상이었던 기존의 성리학적 인식을 극복하고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하자는 주장이었다.

2) 대표적인 학자

(1) 유수원(柳壽垣, 1694~1755)

유수원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서울에서 벼슬하던 일가 친족의 집에

서 자랐다. 1714년(숙종 40) 21세 때 진사가 되고, 25세 때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해 약관의 나이로 벼슬길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벼슬길은 매우 불운했다. 그는 벼슬길에 들어선 지 5년째 되던 1723년(경종 3) 2월에 정언(正言)으로서 조정의 혁신을 요청하는 글을 경종에게 올렸다가, 원로대신을 함부로 비난했다는 조정 중신들의 성토를 받아 파직되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집안이 집권당인 소론(少論)이었기 때문에 그 해 7월에 낭천현감(狼川縣監)으로 다시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유수원은 1724년에 영조가 즉위하고 노론(老論)이 득세하기 시작하자 오랜 세월을 걸쳐 심한 정치적 규제를 받게 되었다. 이른바 임인안옥(壬寅按獄 : 1722년에 노론의 네 대신을 처형한 정치 재판)의 주모자로 종숙부 봉휘(鳳輝)가 노론에 의해 처벌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30대 시절 10여년 간을 줄곧 작은 고을의 수령으로 옮겨 다녔고, 심한 병을 얻어 귀머거리가 되는 신체적 불행까지 겪었다. 스스로 ‘농암’ 또는 ‘농객(農客)’이라는 호를 쓰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는 불우한 처지를 달래고자 연구에 몰두하여 『우서(迂書)』을 저술하였다. 이는 조선이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고 개선해야 할 것인지를 기술한 저술이었다.

『위국경륜』(爲國經綸)의 저술은 곧 관계 인사들의 관심을 모아 영조에게까지 소개되었고, 이로 인해 유수원은 1737년(영조 13)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노론의 규제가 풀리지 않아 장령(掌令)을 거쳐 사복시정으로 승진하기는 했지만, 끝내 벼슬을 버리고 서소문(西小門) 밖으로 은퇴하였다.

유수원은 1741년 우의정 조현명(趙顯命)의 추천으로 경연(經筵)에 들면서 부호군(副護軍)에 다시 임명되었다. 그는 「관제서승도설 官制序陞圖說」을 지어 바치면서 영조와 글과 붓으로 토론하는 진기한 경연을 벌였고, 그 결과 그 해 3월에 홍문관 관원에 대한 회천법(回薦法)을 폐지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그는 영조의 특명으로 이덕수(李德壽)와 함께 『속오례의』 편찬에 종사하다가 1744년에 다시 벼슬을 버리고 은퇴하였다. 이로부터 10년간 초야에서 지내던 그는 1755년 5월에 반역을 모의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 해 2월에 전라도 나주에서 있었던 괘서(掛書) 사건과 이 사건의 주모자들을 처형한 뒤 특별히 시행한 과거시험에서 변서(變書)가 나타난 사건 때문에 소론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졌다. 그는 몇 차례의 심문 끝에 대역부도(大逆不道)의 죄로 사형되었고, 그의 가족은 모두 노비로 수용되었다. 오늘날 그의 행장(行狀)·연보 같은 전기 자료가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이었다. 그는 당쟁에 희생되어 불우하게 일생을 보냈지만, 학문과 경륜만은 높이 평가되었다. 학문은 당대의 석학 이덕수에 버금갈 정도였고, 경륜은 『우서』를 읽고 난 영조가 “우리나라의 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옛 학자의 말을 따르고 모으면서 기교만 구하는데, 이 사람은 모두 자기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의 생각을 기술했으니 참으로 귀중하다.”고 찬탄할 정도로 뛰어났다.

유수원은 대역부도의 죄로 세상을 떠났고, 노론의 집권이 한말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의 글과 사상은 널리 전파되지 못했으며, 이름도 크게 알려지지 못했다. 그의 문명(文名)과 학문·사상이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우서』가 유수원의 저술임이 밝혀지면서 학문·사상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전개된 것이다. 오늘날 그는 실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용후생학파의 선구적 인물로 자리를 잡았고, 상공업 중심의 부국안민론(富國安民論)을 주창한 대표적 인물로 간주되었다.

유수원은 당시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민산(民産)의 부족으로 보았으며, 일부 사대부와 훈척, 상인, 역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민들은 가난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우서』 서론에서 국허민빈(國虛民貧)의 원인을 ‘사민불분(四民不分)’, 즉 사·농·공·상으로 대표되는 백성 모두가 각자의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데서 찾았다. 양반 문벌 중심의 신분질서가 고착화되는 한 백성들은 자신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민일치(四民一致)’, 즉 신분제 질서를 파기하여 백성들의 평등을 이루는 것을 일차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유수원은 신분제 질서의 파기를 위한 구체적인 개혁 방안들을 정치·경제·사상·신분 등 여러 방면에 걸친 개혁에서 찾았다. 그는 상공업 중심의 이용후생 사상을 제시하였다. 그의 개혁안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상

공업의 진흥을 통해 농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것이었다. 그는 화폐, 공장(工匠), 군제(軍制), 어염(魚鹽) 등 다양한 내용들을 주제로 다루었다. 그는 무위도식하면서 문벌에 끼려고 애쓰는 양반들을 전업시켜 농·공·상업에 종사하게 하고, 사·농·공·상을 평등한 직업으로 만들어 전문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농업에 있어서는 무리한 토지개혁 보다는 상업적 경영과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상업에 있어서는 상인 서로간의 합자를 통한 경영규모의 확대와 상인이 생산자를 구성하여 생산과 판매를 주관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부유한 상인이 학교와 교량을 건설한다든지 방위시설을 구축하여 국방의 일익을 담당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세(商稅)와 전매 사업의 확대, 무허가 상인의 축출, 공장의 개혁 등도 그가 제시한 주요 정책이었다.⁴⁰⁾

유수원은 『우서』를 통해 이용후생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그가 제시하고 있는 이용후생의 길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생업에 충실하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민일치의 사회체제와 균등한 수취체제 아래서 백성들 모두가 능률적이고 집중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물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유통하고, 수요와 공급에 충실할 때 부국안민은 저절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믿었다.

유수원에 의해 제시되었던 체계적인 국부 증진 사상은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등의 북학과 학자들에 의해 계승되면서 18세기 영조와 정조시기 이후 조선 후기를 풍미하는 시대적 사상으로 부각되었다. 그를 북학사상의 선구자로 칭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조선 후기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으로 국가의 재정 부족을 지적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공업에 중심을 둔 이용후생 사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박지원이나 박제가와 달리 중국의 사행 경험이 없이 자생적으로 당시 조선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상공업 중심의 이용후생 사상을 피력한 점은 높이

40) 한영우, 『꿈과 반역의 실학자 유수원』, 지식산업사, 2007; 한영국 『우서 해제』, 『우서』, 번역본, 민족문화추진회. 신병주, 네이버[캐스트] - [기고/연재 글 모음](#).

평가받았다. 그의 주장은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상공업을 장려하여 국가를 부강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신분 제도와 토지 제도 등 사회 전반을 개혁해 나라 살림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⁴¹⁾ 이를 위해 유수원은 균전제를 주장하였고, 상공업 진흥을 위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 실현, 상인 간의 합자를 통한 경영 규모의 확대를 추구하고, 상인이 생산자를 고용하여 생산과 판매를 주관할 것도 제안하였다

(2) 홍대용(洪大容, 1731~1783)

홍대용은 홍지(弘之), 담헌(湛軒)이라는 당호(堂號)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당대의 유학자 김원행(金元行)에게 배웠고, 북학파의 실학자인 박지원과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홍대용은 1765년 초 북경(北京) 방문을 계기로 서양 과학의 영향을 깊이 받아 『담헌서(湛軒書)』를 저술하였다. 『담헌서』는 일부 시·서를 제외하면 거의가 북경에서 돌아온 뒤 10여 년 사이에 쓴 것이었다. 그의 중국 방문은 연행사(燕行使)의 서장관으로 임명된 작은아버지 역(櫛)의 수행군관으로 참여하면서 이루어졌다. 1765년(영조 41) 초 그는 35세의 나이로 중국 땅을 밟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다. 그는 산해관에 당도하여 강씨 정녀묘(姜氏 貞女廟)⁴²⁾에 들렀으며, 기둥에 새겨진 송나라 애국 시인 문천상(文天祥, 1236~1282)의 글을 보고 당시의 심정을 『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에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하늘이 사람을 내매 쓸 곳이 다 있도다.

나와 같은 궁색한 인생은 무슨 일을 이루었던가?

...(중략)...

4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종실록(景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국조방목(國朝榜目)』을 참고하기 바란다.

42) 강씨 정녀묘의 망부석은 만리장성 공사장에 끌려 죽은 인부의 아낙으로 망부성이 된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정절을 적은 비명이다.

간밤에 꿈을 꾸니 요동 들판을 날아 건너
 산해관 잠긴 문을 한 손으로 밀치도다.
 망해정 제일층 취후에 높이 앉아
 묘갈(墓碣)을 발로 박차고 발해를 마신 뒤에
 진시황의 미친 뜻을 칼 짚고 웃었더니
 오늘날 초초한 행색이 누구의 탓이라 하리오.”⁴³⁾

홍대용은 중국 여행을 통해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큰 경험을 하였다. 중국을 다녀 온 뒤 쓴 『을병연행록』은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와 함께 조선시대 3대 중국견문록으로 꼽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었으며, 중국견문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홍대용은 60여 일 동안 북경에 머물면서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하였다. 하나는 우연히 사귀게 된 항저우(杭州) 출신의 중국학자들과 개인적인 교분을 갖게 된 일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북경에 머물고 있던 서양 선교사들을 찾아가 서양 문물을 구경하고 필담을 나눈 것이었다. 이 때 북경에서 사귀어 얻은 엄성(嚴誠), 반정균(潘庭筠), 육비(陸飛) 등과는 귀국 후에도 편지를 통한 교류를 지속하였으며, 그 기록은 문집 「항전척독(杭傳尺牘)」에 남아 있다. 그의 사상적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북경 방문은 『연기(燕記)』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의 『연기』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작품이며, 그 뒤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영향을 주었다.

홍대용이 저술한 『유포문답(劉鮑問答)』은 당시 독일계 선교사로 중국의 함천감정(欽天監正)인 유송령(劉松齡, Augustvon Hallerstein)과 부정(副正)인 포우관(鮑友管, Anton Gogeis)을 만나 필담을 통해 천주교와 천문학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서양 문물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과학사상을 담은 『의산문답(醫山問答)』은 북경 방문길에 들른 의무려산(醫巫閭山)에 숨어 사는 실옹(實翁)과 조선의 학자 허자(虛子) 사이에

43) 홍대용 저, 정훈식 역, 『을병연행록 2』(18세기 장편 국문 연행록의 현대어 완역본), 도서출판 경진, 2012, p.261.

나는 대화를 대화체로 쓴 것이었다. 그는 지전설(地轉說)과 우주무한론(宇宙無限論)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자연관을 근거로 화이(華夷)의 구분을 부정하여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였고, 인간도 대자연의 일부로서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 그의 과학사상과 이에 바탕을 둔 사회사상 등은 상당한 독창성을 보이고 있었지만, 서양 과학과 도교적인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홍대용은 청나라를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의산문답』, 『임하경륜』, 『연기』 등을 저술하였다. 그는 대표적 저술인 『의산문답』에서 기술의 혁신, 신분제도의 철폐, 성리학의 극복 등이 부국강병의 요체라고 주장하였다.

(3) 박지원(朴趾源, 1737~1805)

박지원은 1737년 대대로 서울에서 살던 명문가의 후예로 태어났다. 그는 30세부터 실학자 홍대용과 사귀었고, 서양의 신학문을 접하였다. 홍대용 등으로부터 시작된 북학 논의는 박지원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박지원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당시 허위의식에 빠진 세태를 비판하였다. 그는 당시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 실천하려 했던 북학의 선두주자였다. 그는 1777년(정조 1) 권신 홍국영(洪國榮)에 의해 벽파(僻派)로 몰려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황해도 금천(金川)의 연암협(燕巖峽)으로 이사한 후 독서에 전념하였다. 1780년(정조 4) 박지원은 홍국영의 정치적 몰락이후 서울로 돌아왔다. 같은 해 5월 그는 삼중형 박명원(朴明源)이 진하사 겸 사은사(進賀使兼謝恩使)가 되어 청나라에 갈 때 동행했다. 그는 랴오둥[遼東]·러허[熱河]·베이징[北京] 등지를 지나는 동안 이용후생에 도움이 되는 청나라의 실제적인 생활과 기술을 보고 귀국하여 기행문 『열하일기(熱河日記)』를 저술하였다. 그는 『열하일기』를 통해 청나라의 문화를 소개하고 당시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비판과 개혁을 논하였다. 당시 박지원은 홍대용 및 박제가 등과 함께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이

른바 북학파의 대표적 학자로 활동하며 이용후생의 실학을 강조하였고, 특히 자유로운 문체를 구사하여 여러 편의 한문소설(漢文小說)을 발표하였으며, 당시 양반계층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근대사회를 예견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창조함으로써 조선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4) 박제가(朴齊家, 1750~1805)

박제가는 영조 26년 11월 5일 우부승지(右副承旨) 박평(朴坪)의 서자(庶子)로 서울에서 태어났다. 19세 때 이덕무(李德懋)의 소개로 박지원(朴趾源)의 문하에 들어가 실학을 연구하였으며, 이덕무 · 유득공 · 이서구 등 실학자들과 친교를 맺었고, 이들 세 사람이 합작하여 영조 52년(1776)에 펴낸 시집 『건연집(巾衍集)』은 청나라에까지 소개되어 극찬을 받았다.

박제가는 1778년(정조2년) 사은사 채제공(蔡濟恭)을 수행하여 청나라에 가서 이조원(李調元)·반정균(潘庭筠) 등으로부터 새 학문을 배우고 돌아와 실사구시의 사상을 토대로 『북학의(北學議)』 내외편을 저술하였다. 1779년(30세 때) 3월 정조에 의해 규장각(奎章閣) 검서관(檢書官)으로 발탁되어 처음 관직을 얻게 되었는데, 이 때 그는 청나라의 고증학학파의 문헌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출판하였으며, 이때부터 정조의 신임과 총애를 받게 되었다.

그 후 박제가는 순조 원년까지 여러 직책을 맡았으며 청나라에 사은사의 수행원으로 네 차례 다녀왔다. 그는 1801년 신유사옥(辛酉邪獄)때 사돈 윤가기(尹可基)의 옥사에 연좌되어 함경도 종성부(種城府)로 유배되었다가 1805년 3월 석방되었지만, 같은 해 4월 25일 고향에서 별세하였다. 저서에는 『북학의』 · 『명농초고(明農草藁)』 · 『정유시고(貞蓼詩稿)』 · 『유정집(蓼亭集)』 · 『병오소회(丙午所懷)』 등이 있다.

박제가의 개혁사상을 담은 저술은 『북학의』와 『병오소회』이다. 『북학의』는 그가 제1차 연행에서 돌아와 저술한 책으로서 청조의 문물을 관찰한 후 이용후생에 필요한 선진기술과 도구를 소개한 책이었으며, 국내의

상업과 외국무역을 장려하는 것이 부국강병의 첩경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북학과라는 용어는 이 저술을 통해서 처음 사용되었다.

『병오소회』는 정조 10년(1786년) 1월 22일 정조가 국정에 관한 의견을 직접 듣고자 조참(朝參)을 마치고 향재(鄉宰)·시종관(侍從官) 등에게 왕 앞에서 국정에 관한 의견이나 소회를 문서로 제시하는 자리에서 박제가 제시한 개혁적 의견을 모아놓은 것이다. 정조는 1779년 서얼 출신의 검서관을 둘 때 그를 발탁하였고, 그의 혁신적 주장에 관심을 갖고 있던 정조는 여러 차례 사은사의 수행원으로 그를 연행으로 파견하였으며, 그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그의 건의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조도 그의 과격한 문체반정(文體反正)에 대하여 자송문(自訟文)을 올리라고 할 정도로 그의 문체는 과격했으며, 그와 친했던 박지원과 이덕무도 이를 항상 걱정하고 충고할 정도였다. 정조가 급서하자 남인시파(南人時派)가 몰락하면서 그는 유배되었다.

박제가는 박지원과 홍대용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박지원, 이덕무, 유득공, 이희경(李喜經) 등과 친하게 지냈으며, 그와 함께 검서각(檢書閣)에서 일했던 13세 연하인 정약용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김정희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당시의 주자학적 존명배척 학문 분위기 속에서도 과감하게 청나라의 문물을 도입하였고, 그들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업을 중시하고 외국과의 통상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일본과 1876년에 체결한 강화조약 보다 98년이나 앞서 개국을 주장하였으며, 놀고먹는 양반들에게 상업에 종사하게 하고 검약만이 미덕이 아니라 적절한 소비가 재화유통의 활성화를 가져와 국가를 부강하게 할 수 있다는 등 당시의 어떤 개혁 사상가들도 생각하기 힘든 주장을 하였다. 이 외에도 그는 국방문제나 농업문제 등에서도 여러 가지 개혁안을 내세워 정약용의 실학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박제가는 17세기 초부터 방납에 따른 관리의 부패를 방지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동법(大同法)⁴⁴⁾을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17세기 말경

44) 대동법은 지방의 특산물인 공물을 미곡으로 대신해서 납부하는 제도인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대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폐의 사용이 늘어나 화폐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18세기에는 상업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그는 이용후생, 즉 백성을 이롭게 하고 생활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상업 장려, 유통의 필요성, 해외무역, 국가개방 등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박제가는 재화의 유통을 통한 생활의 윤택함과 농업의 황폐화로 인한 상업의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그는 검약만이 미덕이라고 여겨졌던 시대에 소비를 권장하여 생산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절약과 검약만을 강조하는 다른 경제사상가들과는 달리 탁월한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통의 필요성과 사대부의 상업 종사론도 강조하였다.⁴⁵⁾

박제가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유가사상의 억상정책(抑商政策)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상업만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상업의 장려는 물론 해외의 많은 나라와 개국 통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해외통상과 사대부계급의 상업종사에 관한 주장은 상업천시의 사회풍조와 양반사회의 벽을 뛰어 넘으려는 시도였으며, 그의 합리적이면서도 급진적 개혁성향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는 조선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해상무역으로 발전시키면 국력은 자연스럽게 강성해 질 것이고 백성의 생업도 안정될 것으로 간주하였다. 경제사상가답게 국방의 문제를 단지 전술 전략적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국가 경제력의 향상, 민생의 안정, 기술의 전반적 개발을 토대로 국방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는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시찰하고 돌아와 조선의 상공업과 농업, 사회 기구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론을 주장했으며, 이는 후대의 북학파로 이어졌다.

(5) 이덕무(李德懋, 1741~1793)

미곡 대신 포목이나 돈(대동전(大同錢))으로 대납할 수도 있게 했다.
 45) 이진표, 『한국사상사』, 학문사, 2000, pp.34-42.

이덕무는 정종(定宗, 조선의 제2대왕)의 서자인 무림군(茂林君)의 10세손으로 호는 아정(雅亭)·형암(炯庵)·청장관(靑莊館) 또는 동방일사(東方一士)였다. 특히 즐겨 사용한 청장(靑莊)⁴⁶⁾은 그의 성격을 상징한 것이었다. 그는 박학다식하였고, 고급의 기문이서(奇文異書)에도 달통했으며, 문장에 개성이 뚜렷해 문명을 일세에 떨쳤으나, 서자였기 때문에 크게 등용되지 못했다.

이덕무는 어릴 때 병약하고 가난해서 전통적인 정규 교육은 거의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가학(家學)으로 6세에 이미 문리(文理)를 얻었고, 약관에 박제가·유득공·이서구와 함께 『한객건연집(韓客巾衍集)』이라는 사가시집(四家詩集)을 저술하였다. 청나라에 소개된 『한객건연집』의 저자들은 백담파 또는 이용후생파로 불리는 실학자였으며, 지기(知己)의 정을 쌓은 벗이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박제가와 유득공과 서자라는 비슷한 처지에서 신분적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덕무는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유득공 등 북학과 실학자들과 깊이 교류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경제면에서 급진적인 개혁 이론보다는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고증학적 방법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고염무(顧炎武)나 주이존(朱彝尊) 등 명말청초(明末清初)의 고증학 대가들의 저서에 심취했다. 1778년(정조 2년)에는 사은겸진주사(謝恩兼陳奏使) 심엄조(沈念祖)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직접 연경에 들어가 기균(紀均), 이조원(李調元), 이정원(李鼎元), 육비(陸飛), 엄성(嚴誠), 반정균(潘庭筠) 등 청나라 석학들과 교류하였다. 그리고 그는 중국의 산천·도리(道里)·궁실(宮室)·누대(樓臺)·초목·충어(蟲魚)·조수(鳥獸) 등 다양한 문물을 자세히 기록하였으며, 고증학에 관한 많은 책들을 가져왔다. 이것은 그의 북학론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박물학에 정통한 이덕무는 사회경제적 개혁을 주장하기 보다는 고증학적인 학문 토대를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이는 훗날 정약용이나 김정희 등에게 학문적 영향을 주었다. 그의 저술총서이자 조선후기 백과전서라

46) 청장은 일명 신천옹(信天翁)으로 불린 해오라기로 맑고 깨끗한 물가에 붙박이처럼 서 있다가 다가오는 먹이만을 먹고 사는 청렴한 새를 의미한다.

할 수 있는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사실(史實)에 대한 고증부터 역사와 지리, 초목과 곤충, 물고기에 이르기까지 방대하고 다양한 고증과 박학의 대가로 인정받았다.

이덕무의 박학다식은 이용후생과 사이에서도 유명했다. 그의 저서에는 『영처고(嬰處稿)』, 『청장관고(靑莊館稿)』,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 『사소절(士小節)』, 『청비록(淸脾錄)』, 『기년아람(紀年兒覽)』, 『청정국지(蜻蛉國志)』, 『양엽기(盎葉記)』, 『한죽당섭필(寒竹堂涉筆)』, 『예기억(禮記臆)』, 『송사보전(宋史補傳)』, 『뇌뢰낙락서(磊磊落落書)』 등이 있었다.

조선 후기 18세기는 실학자들의 중국 방문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시기였다. 홍대용과 연암 무리의 문인들인 박지원,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가 모두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중국 여행에서 돌아온 뒤 여행록을 남겼는데, 이덕무는 『입연기(入燕記)』라는 여행록을 남겼다. 『입연기』는 1778년 3월 17일 서울을 출발하여, 윤 6월 14일 의주로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여행록이었다.

이덕무는 중국을 다녀온 연암과 실학자들과 달리 청 왕조의 지배체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한 인물이었다. 박제가와 절친한 사이였지만 이덕무는 그의 친청적(親淸的)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을 다녀왔지만, 조선 선비들이 청을 오랑캐로 폄하하는 것을 비판한 박지원이나 박제가와 다른 중국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덕무는 청나라의 선진 문물에 경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중국과 조선의 차이점을 인정하였으며, 양국을 평등하고 동등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홍대용과 박지원, 그리고 박제가와 다른 자국 중심의 상대주의적 세계관을 가졌던 그는 청나라와 조선을 자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인식하였다. 사실 청나라에 대한 이덕무의 생각은 전통적인 보수성을 띠면서도 자국 중심적이고 평등한 것으로 점차 변화해 갔다고 말할 수 있다. 그의 생각은 18세기 대명의로리(大明義理)와 존주양이(尊周攘夷)의 생각이 팽배했던 시기에 조선 선비들이 가졌던 청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대변해 주었다.

제3장 실학사상이 차문화의 정신적 측면에 끼친 영향

실학은 실용정신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주자학파가 등한시했던 이용후생 문제에 관심을 보였으며, 현실사회와 유리되지 않는 실질적 학문을 중시하였다. 주자학의 전통적인 권위에서 탈피하여 자유로운 학문탐구를 존중하였고, 주자학파의 학문적 폐쇄성을 비판하였으며, 현실사회의 모순에 대한 과감한 비판과 새로운 개혁론을 제기하였다. 즉 실학은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에서 벗어나 현실 문제를 객관적 실증을 통해 고찰하였으며, 경서고증뿐만 아니라 역사·지리·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을 다루었고, 학문연구 방법에서는 근대적·과학적 연구 방식을 도입하였다. 실학은 종래의 주자학 일변도에서 벗어나 양명학·고증학뿐만 아니라 불교·유교·노장사상(老莊思想), 그리고 서양학문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학문적 관심을 유도하였으며, 선진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였다.

시대적 변화와 실용적 생활을 추구했던 실학사상은 조선의 차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차 정신의 확립 배경은 불교와 유교이다. 실학사상이 불교와 유교와 도교를 모두 섭렵했다는 사실은 실학사상이 차 정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차 관련 전문서적과 글들이 주로 실학이 등장한 조선 후기에 많이 등장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조선 후기인 18세기에는 『부풍향차보(扶風鄉茶譜)』, 『기다(記茶)』, 『동다송』 등 우리나라의 차에 관한 다양한 서적들이 저술되었다. 이 시기 실학사상의 발전은 차문화 발전을 이끌었으며, 차에 관한 자연과학 측면과 인문학적 측면의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실학자들은 조선 후기 중요한 국가 자원이었던 차 자원을 어떻게 경제적 자원으로 실용화시켜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부국강병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실학사상을 대변하는 학자들의 다양한 저술 속에 차에 대한 내용들이 다수 등장한다는 사실은 당시의 차문화에 대한 실학자들의 인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대

목이다. 이는 당시 실학자들이 중농학적 측면과 중상학적 측면에서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차의 생산과 무역 등 차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고 소통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의 도구로 차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학자들이 주도했던 조선 후기 사회적 변화와 개혁은 차문화의 정신과 사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제1절 현실적 자아의식의 확립

고려의 귀족사회가 조선의 양반 관료사회로 탈바꿈하면서 차문화도 많은 변화를 겪었다. 중국 명나라와 교류했던 조선의 차문화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산차(散茶)를 활용하였다. 조선의 조정은 고려의 다풍(茶風)을 이어받아 사헌부에 다시(茶時)라는 제도를 설치 운영하였다. 가정의례에서도 차를 사용하였고, **묘제**나 시제에도 차를 이용하여 차례를 행하였다. 고려 말의 두문동 차정신은 조선 **전기** 계유정난(癸酉靖難)을 거치고 단종의 죽음을 맞으면서 불의의 권력이나 권력의 타락과 부정부패에 대한 **저항**정신과 함께 발전하였다. 이러한 차의 저항정신은 조선 조정에 대한 비판과 속세 이탈로 이어졌으며, 매월당 김시습과 김종직의 시대에 이르러 풍류차, 청류차(清流茶), 청담차(清談茶)의 정신으로 승화되었다. 점필재 김종직에 이르러 송나라의 주자학은 조선에 토착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차문화사에서도 목격되었다. 김종직의 제자였던 한재(寒齋) 이목(李穆·1471~1498)은 『다부(茶賦)』에서 차가 정신수양의 음료임을 ‘내 마음의 차[吾心之茶]’라는 구절로 명료하게 밝혔다.

“내 **마음**속에 이미 차가 있거늘 어찌 다른 곳에서 또 이를 구하려 하겠는가?” 47)

47) 이목, 「다부」, “是亦吾心之茶又何必求乎彼耶”

이처럼 『다부』에는 **육우**의 『다경』보다도 더 심오한 내적 정신 수양의 사상이 담겨 있었다. 이는 주자학이 조선에서 더 철학적(형이상학적) 형태로 발전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원시유교에 이(理)와 기(氣)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철학적으로 심화한 주자학은 조선 중기에 들어오면서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이는 차문화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풍류차·청담차·선비차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15세기 전후는 한국에서 철학이 꽃피웠던 시기로서 유학자들에게 차는 각성의 음료요, 수양의 음료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성리학은 대내적으로 예치를 강조하였고, 대외적으로는 화이(華夷)의 명분에 기초한 북벌론(北伐論)을 내세우면서 사상적 경직성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리학은 초기의 참신함을 잃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에만 치우쳤으며 백성들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학문으로 전락하였다. 이처럼 명분과 형식만을 강조하던 성리학은 당시 사회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상적 한계를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상촌(象村) 신흠(申欽, 1566~1628)과 지봉 이수광였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국제 문화인이었으며 차인이었다.

신흠의 『야언(野言)』에 실린 「인의충절(仁義忠節)」이란 시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오동나무는 천년이 지나도 항상 곡조를 간직하고
 매화는 일생동안 축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달은 천 번을 이지러져도 그 본질은 남아있고
 버드나무는 백 번을 꺾어도 새 가지가 올라온다.”⁴⁸⁾

그는 조선 중기 두 전란을 거치면서도 삶 속에서 선비의 지조를 지키는 노력을 노래하였다. 이 시는 퇴계 이황선생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은 시로 알려져 있다. 그는 벼슬에 나가서는 서인 이이와 정철을 옹호하여 동인의

48) 신흠, 『상촌고』 「인의충절」, “桐千年老恒藏曲 梅一生寒不賣香 月到千虧餘本質 柳經百別又新枝”

배척을 받았으며, 1613년 계축옥사가 일어나자 선조로부터 영창대군(永昌大君)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칠신(遺敎七臣)인 까닭에 이에 연루되어 파직되었다. 그는 정치적 어려움을 차로 극복하였다. 그는 「지상삼수(池上三首)」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차로 위로받은 심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한줄기 오솔길 숲속으로 나 있고 낭떠러지 위에는 작은 집 하나
 난초를 길러볼까 밭을 일구고 달을 담아보려 못을 판다네.
 대밭 둘레엔 비파소리 들리는데 방안 등불 아래 바둑 대하네.
 산가의 청아한 일 많기도 해서 차 달이고 때로는 시를 쓴다네.” 49)

이처럼 그는 장중하고 간결한 성품과 뛰어난 문장가로 선조의 신망을 받았다. 항상 문한직(文翰職)을 겸대하고 대명 외교문서의 제작, 시문의 정리, 각종 의례문서의 제작에 참여하는 등 문운의 진흥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흠은 송강 정철, 노계 박인로,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조선 4대 문장가로 꼽혔다. 차에 관한 서정적 글인 『야언(野言)』은 그 백미이었다.

“차가 익어 향기 짙을 때 손이 오면 기쁘고, 꽃이 떨어지고 새가 우는데 사람이 없으면 그윽해진다. 좋은 **샘물**은 맛이 없고, 좋은 물은 **냄새**가 없다. 좋은 밤 편안한 등불을 밝히고 차를 달인다. 모든 사물이 조용해지면 개울물 소리만 들리네. 이부자리 깔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읽는 것은 첫째, 즐거움이다. 비바람 몰아치는 날, 문을 닫고 집 안을 청소하고, 책을 펼쳐놓고 흥에 겨우면 시를 읊어보는데 오가는 사람 없어 주위가 그윽하면 둘째, 즐거움이다. 해 저무는 공산에 가는 눈발 뿌리고, 앙상한 가지 바람에 흔들리고, 추위에 우는 새소리 들려오고, 방안 화롯가에 술 익고 차 향기 풍기면 세 번째 즐거움이다.” 50)

‘야언’이라는 말 속에는 **전원**생활을 좋아하는 신흠의 마음이 담겨있었

49) 위의 책, “一逕穿蒙密 懸厓有少茨 藝蘭仍畝 貯月欲成池 竹塢還聽瑟 香燈却對棋 山家清事足 煮茗又題詩”

50) 위의 책, 「야언」 “茶熟香清 有客到門可喜 鳥啼花落 無人亦自悠然 眞源無味 眞水無香

다. 야언은 그의 인생관이요, 차의 철학이었다. 자연스럽고 순박한 마음의 표현으로 차 향 속에서 독서하고, 아무런 간섭 없이 바람소리, 새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것 또한 걸림이 없는 불기(不羈)의 정신이요, 자연인을 대변하였다. 그는 평생 초사(楚詞)를 대표하는 굴원(屈原)의 『이소(離騷)』를 좋아하였으며, ‘세상 밖의 사람’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평했다.

조선 중기 문화백과사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지봉유설』의 저자인 이수광은 차와 함께 실학을 연 인물이었다. 그는 임진왜란을 겪고 정치적 혼란 속에서 비우당에 은거하며 차와 독서와 집필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명나라 연경을 여행하며 세계를 향한 시야를 넓혔다. 그는 외국 문물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수용했고, 조선의 현실을 자각하였다. 그의 심정은 다음 시에 잘 나타나있다.

“꿈에서 깨어나니 하늘엔 외기러기 아픈 몸에 찬 기운 세월을 느끼네.
가을바람엔 언제나 오동잎 날리고 옥 이슬은 소리 없이 계화(桂花)를 적시네.

사람들과 운수에 가려 아득한 가을 달빛 아래 집집마다 다듬이 소리
이 가을에 내 마음 한없이 스산하여 한가롭게 창 앞에서 차를 달이네.”⁵¹⁾

“종일 단헨 문에 찾는 이 없고, 그윽하게 사는 것이 시골 중과 같다네.
술잔 기울이며 시 읊으면 온갖 수심이 없어지고
아플 때 차 마시면 잠이 달아난다네.
봄비소리 기왓골에서 들리고 새벽바람은 힘없이 꽃을 떨어뜨리네.
한가로운 틈타서 좋은 벗 찾고 그 나머지 쓸쓸함은 아직도 남아있네.”⁵²⁾

51) 이수광, 『지봉유설』, 「秋夜有懷」 “夢破天涯一雁斜 病餘涼氣感年華 金風有信飛董葉 玉露無聲濕桂花 人隔水雲秋萬里 月懸砧杵夜千家 此間意味偏蕭索 漫向窓前自煮茶” .
52) 위의 책, 「淸和卽事」 “鎖日關門少客過 幽居渾似野僧家 吟邊命酒奔愁陣 病裏呼茶却睡魔 春雨有聲鳴屋瓦 曉風無力破山花 偷閑擬逐尋芳侶 其奈餘寒尚未和”

위에 언급한 두 시는 고통스런 현실에 처해 있는 이수광 자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 그는 정치적으로 힘이 없는 자신의 처지를 차로 달래고 다스렸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조선 후기의 차문화는 사회가 혼란과 빈곤에 빠지면서 전통과 단절되며 백성의 삶이 피폐해지자 백성들의 삶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 청나라로부터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1637)을 겪으면서 17세기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17세기 이후 사회적 변화를 갈망했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현실사회를 바로잡고 현실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학문연구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는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조선 사회를 지배했던 성리학의 화이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주체적으로 우리의 민족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움직임을 의미하였다. 실학자들은 과학적 사고와 지리학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중국을 세계의 중심을 보지 않았다. 세계지리 지식이 확대되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존화적 화이관에서 벗어나 문화를 기준으로 한 화이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주체적 인식을 기초로 실학자들은 발해사와 요동 지역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며, 역사와 문화, 언어, 지리 등을 연구하였다. 이처럼 실학자들은 사상적으로 전통적인 주자학의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낡은 이념을 비판하였으며, 보다 현실적이고 인간 생활 위주의 개발성과 실용성을 강조하는 근대적 사상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당시 실학자들이 고민을 해결하고 변화를 추구하는데 차문화는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는 실학자들의 차문화 및 차 관련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였다. 이들은 차문화에서 전통적인 중국식 차문화보다는 조선의 독자적 차문화 형성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지닌 고유성과 독립성에 대한 자부심을 의미하였으며, 이런 흐름은 차문화에서도 목격되기 시작했다.

실학자 이덕리의 『동다기』를 인용한 초의선사의 『동다송』은 우리 차의 우수성을 자세하게 묘사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도 원래 그 근본이 같아

빛깔이나 향, 기운과 맛의 효능은 한 가지일세.

육안차는 맛, 몽정차는 약효가 있다는데

우리 차는 그 두 가지를 다 겸했다고 옛 사람들이 높이 평했네.” 53)

“『동다기』에 어떤 이는 우리 차의 효능을 의심하여 중국차만 못하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빛깔이나 향, 그 맛이 조금도 차이가 없다. 『다서』에 ‘육안차는 맛이 좋고, 몽산차는 약효가 좋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차는 두 가지를 다 겸비하였다. 만약 이찬황이나 육자우가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내 말이 옳다고 할 것이다.” 54)

이처럼 실학자와 교류하였던 초의선사는 어느 다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우리 차의 우수성과 특징을 적극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차문화에서도 화이론적 세계관에서 주체적인 민족의식의 확립으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당시 우리 차에 대해 기록한 백과거사 신헌구(白坡居士 申獻求, 1823~1902)의 『추당잡고(秋堂雜稿)』 권 1 「해다설(海茶說)」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내가 사물의 생리를 살펴보니, 멀리 있으면 버려지고 때를 만나지 못하면 감추어지게 된다. 먼데 있는 것은 버려지고, 때를 만나지 못하면 감춰진다. 그래서 북송이나 오얏을 배출한 동문(同門)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종남산(終南山) 가는 길목에 있지 않으면 자재(資材)가 팔리지 않는다. 슬프도다! 해양(海陽)의 옥천자(玉川茶)는 향기와 맛이 아름답고, 질어서 설화(雪花)와 운유(雲腴) 같은 차도 더 나을 것이 없다. 그런데 먼 시골의 풍속이 어리석어 차 보기를 눈에 난 피처럼 본다. 서울 안의 사대부들이 토산(土產)을 보면 무시하고 알봄이 건양(建陽)의 붉은 산과 푸른 물이 단로(檀爐)와 전향(篆香)같은 물건에 걸맞지 않다. 저것이

53) 초의 의순, 『동다송』, “東國所産元相同 色香氣味論一功 陸安之味蒙山藥 古人高判兼兩宗”

54) 위의 책, “東茶記云 或疑東茶之效不及越産 以余觀之 色香氣味少無差異 茶書云 陸安茶以味以勝 蒙山茶以藥勝 東茶蓋兼之矣 若有李贊皇陸子羽 其人必以余言爲然也”

실로 황량하고 궁벽한 곳에서 성장하여, 나무꾼에게 벌목됨을 다행히 면하더라도 끝내 섞은 풀이나 마른 잎과 뒤섞이게 될 것이니, 어떻게 백수탕(百壽湯)을 시음할 수 있겠는가?

근래 대둔산방(大菴山房)에서 이 차를 비로소 마실 수 있었는데, 바로 초의 스님이 만드신 것이다. 옛날 부대사(傅大士)는 몽정(蒙頂)에 암자를 열고서 성양화(聖楊花)와 길상예(吉祥藥)를 나누어 심었으며, 각림사(覺林寺) 스님 지승(志崇)은 삼품(三品)의 향을 구별하여 경뢰소(驚雷笑)는 자신이 마시고, 흰초대(萱草帶)는 부처님께 받치고, 자용향(紫茸香)은 손님에게 접대하여 마침내 천하에 이름이 났다. 초의가 바로 이런 부류이니 신령한 마음과 지혜로운 눈으로 풀과 나물 속에서 캐내어 뛰어난 향기와 맛을 얻었으니, 물건에도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 것인가? 몽정과 각림의 차는 당대의 명사들에게 많이 유입되어 그 품평이 드러났다. 그러나 초의의 차는 오직 스님들에게만 명성을 얻었고 세상에서는 일컬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사대부들의 홀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니, 누가 기꺼이 문헌을 모아서 육우의 『다경』을 계승하려 하겠는가? 아! 내가 이 설(說)을 지은 것은 꼭 초의 차 때문만은 아니다. 남도의 인사들이 정화(精華)를 품고 있으면서도 불우함을 한탄하는 경우가 많음을 안타깝게 여겨서이다.”⁵⁵⁾

이 글을 쓴 백과거사는 초의선사의 『일지암시고』 발문을 썼고, 『동다송』 끝에 제시(題詩)를 남겼던 인물이다. 「해다설(海茶說)」은 해남 대둔사에서 초의스님이 만든 초의차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는 당시 사대부들이 우리 차보다는 중국차를 선호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다는 글을 남겼다. 이 과정에서 초의 스님은 해거도인 홍현주(海居道人 洪顯周, 1793~1865)의

55) 신현구, 『추당잡고』 「해다설」. 余觀物之生, 遐則遺, 不遇則晦. 不在桃李之門, 人不知, 不入終南之徑, 材不市. 悲夫! 海陽之玉川茶, 氣味芳烈, 雪花雲映, 未之或勝. 而遐俗恂愁, 視之若穉稗. 洛中士大夫見土產, 則卑夷之, 非從建陽之丹山碧水, 不齒爐篆. 彼固生長荒僻, 倖免樵丁之鎌, 則終混爲腐草槁楮, 安能試百壽湯乎? 近始得啜於大菴山房, 曾是上人草衣所品製也. 昔傅大士結菴蒙頂, 分種聖楊花吉祥蕊, 覺林僧志崇辨三品香, 以驚雷笑自奉, 萱草帶供佛, 紫茸香待客, 遂名於天下. 草衣卽其流. 靈心慧眼, 采擇於草葉中, 得其芳味之雋永, 亦物之有遭歟? 然蒙頂覺林, 多入於當世之名士, 題品以之著. 草衣之茶, 獨擅空門, 而世未之稱. 此由於士大夫遺視太高, 誰肯蒐羅以續陸羽經乎? 嗟夫! 余之爲此說, 不獨爲草衣茶, 竊恨南土人士, 含英蘊華, 多有不遇之歎也. 재인용: 유홍준 외, 『한국의 차문화 천년 2』, 돌베개, 2009, pp.221-222.

부탁으로 『동다송』을 썼고, 백파거사 신헌구는 맨 뒷장에 칠언절구로 발문을 덧붙였다. 그가 남긴 『동다송』의 제시(題詩)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의스님의 새 차를 달이니 푸른 향기 피어오르고,
 곡우 전 물총새 허같이 가는 첫물 차 잎 일세.
 단산의 운감이니 월감⁵⁶⁾을 들먹이지 마오.
 잔에 가득한 뇌소차 삶을 누리네.
 신승지 백파거사 적음”⁵⁷⁾

이 시는 초의스님이 정성들여 만든 햇 뇌소차(雷笑茶)를 달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어 초의스님이 만든 뇌소차를 중국의 최고 명차인 건양이나 단산의 월간과 운감차와 비교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다. 백파거사 신헌구는 1862년에 정시(庭試) 병과(丙科)에 급제 한 후 1864년 사헌부 지평을 거쳐 1869년 승정원 동부승지를 지냈다. 그는 벼슬을 하다 1875년 대원군의 견제로 잠시 해남으로 내려와 대둔사의 승려들과 교류하였다. 그는 5년 동안 해남에서 생활하며 『추당잡고』 2권 등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신헌구는 해남에 내려왔을 때 초의가 이미 세상을 뜬지 9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를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다. 그는 1875년 10월 대둔사를 방문했을 때 초의의 고족인 월여상인(月如上人)의 요청으로 『일지암시고』 발문을 썼으며, 1877년 『동다송』 제시를 지었다. 뿐만 아니라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이재 권돈인(彝齋 權敦仁)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당시 우리 차에 대한 우월성을 엿 볼 수 있다.

“이 차의 품격은 과연 승설차(勝雪茶)의 남은 향기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쌍비관(雙碑館)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보았거니와,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후로는 40년 동안에 이런 것을 다시 보지 못하였습니다.

56) 호북성 단양에서 나는 운감차와 복건성 건양에서 나는 월간차를 지칭한다.

57) 초의, 『동다송』, “艸衣新試綠香煙 禽舌初織穀雨前 莫數丹山雲澗月 滿鍾雷笑可延年 申承旨 白坡居士 題”

영남 사람들이 이것을 지리산 산승에게서 얻었는데, 산승 또한 재미때가 절간 탐에 모여드는 것처럼 다투어 채집하니, 실로 많이 얻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명년 봄에 다시 보내달라고 조르면 산승들이 모두 깊이 숨겨 두고 관(官)을 두려워하여 쉽게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 사람이 산승들과 좋게 지내는 사이이므로 그래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글씨를 매우 좋아하니, 상황을 보아가며 서로 교환하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서두(書頭)의 소인(小印)을 보면 이것이 철규(鐵虬)의 솜씨인 듯한데, 기교가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찍이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비록 복우허(濮又栩)·주당(周棠)의 무리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보다는 뛰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또 한 경지가 더 나아가는 것이니, 이 얼마나 기이한 일입니까.”⁵⁸⁾

김정희는 일생을 통해 가장 친한 벗이었던 권돈인(1783~1856)에게서 받은 지리산 차를 통해 우리 차의 우수성을 강한 자부심으로 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조선 후기 실학과 함께 차와 관련된 글에서 자주 등장하였는데, 이는 우리 차에 대한 관심과 차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제2절 실사구시 정신

조선은 불교를 교(敎)·선(禪) 양종으로 통합하였다. 사찰의 수효를 대폭 줄이는 동시에 사원의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여 불교의 사원경제를 약화시켰으며, 도첩제(度牒制)를 실시하여 승려의 수를 제한하였다. 그러나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축원하는 종교행사는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불교경전을

58) 金正喜, 『阮堂全集』 「彝齋 權敦仁」 “茶品果是勝雪之餘馥騰香. 曾於雙碑館中, 見如此者, 東來四十年, 再未見之. 嶺南人得之於智異山僧, 山僧亦如蟻聚金塔, 實難多得. 又要明春再乞, 僧皆深秘, 畏官不易出. 然其人與僧好, 尚可圖之. 其人甚愛拙書, 有轉轉兌換之道耳. … …”

새로이 간행하고 **인해**(諺解)에 힘썼다. 또한 국왕 중에도 태조와 세종, 그리고 세조는 개인적으로 불교를 신봉하였다. 그러나 점차 그 세력은 약화되었으며, 민간 부녀자 계층에 의해 겨우 명맥이 유지되었다. 그 후 명종 때 **문정왕후**(文定王后)가 보우(普雨) 스님을 후원하며 불교 보호에 힘썼다. **임진왜란** 때 휴정(休靜)과 유정(惟政) 스님 등이 교세를 확장하고 **의병**운동에 참여하여 호국불교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임진왜란을 계기로 승려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불교에 대한 변화가 목격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에 참여했던 청허휴정(淸虛休靜, 1520~1604)은 전국의 승려들에게 전쟁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고, 스스로 1500명의 승군(僧軍)을 조직하여 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웠다. 그는 다선일미를 실천하며 많은 시를 남겼다.

“낮에는 한 잔의 차 마시고, 밤이면 한 자리 잠자네.

푸른 산 흰 구름이 함께 있어서 생멸이 없음을 같이 얘기한다네.”⁵⁹⁾

“함께 달 비친 시냇물 길어 차 달이니 푸른 연기가 흩어지네.

날마다 어떤 일을 얘기하는가, 염불과 참선이라네.”⁶⁰⁾

위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차는 그의 일상이었다. 그에게 차는 자연이요, 생멸이요, 세상사에서의 만남이요, 선 그 자체였다. 그는 차를 통해 평상심을 찾았으며, 다선일미를 실행하였고, 방촌일월(方寸日月)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그의 제자 유정도 스승으로부터 차를 배웠다.

사명유정(1544~1610)은 800명의 승군을 조직하여 처영(處英, ??)과 수하의 승군은 권율(權慄, 1537~1599)과 함께 행주대첩에 참가하였다. 선조 26년 7월 20일 기록을 보면, “각 고을에서 군병을 뽑을 때 색리(色吏)가 농간을 부려 대부분 사실로 하지 않는 것이 이미 고질적인 폐해가 되었다.

59) 청허휴정, 『淸虛堂集』 「天玉禪子」 “晝來一碗茶 夜來一場睡 青山與白雲 共說無生死”

60) 위의 책, 「頭流山內隱寂庵」 “共淸=汲一澗月 煮茶分靑烟 日日論何事 念佛及參禪”

그러나 승군은 전진(戰陣)에 도움이 없지 않아 공을 세운 자가 연달았다. 그러니 지금 수급(首級)을 베어 바친 자에게 선과(禪科)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휴정에게 통유(通諭)하여 그로 하여금 승군을 모으게 하소서.”⁶¹⁾라는 내용을 통해 승군의 규율이 바로 서있고, 이미 어느 정도 훈련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조 27년 2월 20일 기사에는 “승장(僧將) 유정은 바야흐로 의령(宜寧)에 주둔해 있으면서 이미 그 근처에 대략이나마 보리를 파종하여 군량에 대비하였으며, 또 경상 우도 총섭승(總攝僧) 신열(信悅)은 각 사찰의 위전(位田)에 보리 종자를 파종하였고, 가야산(伽倻山) 해인사(海印寺)에서 궁전(弓箭)을 만든다 합니다. 또 들건대 신열이 이끄는 승군은 모두 장정(壯丁)으로 경종(耕種)한 여가에 화포(火砲)를 교습(敎習)한다 합니다. 각처의 제장들은 이에 생각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 승군들만은 이러하니 매우 가상합니다.”⁶²⁾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승군이 스스로 식량 보급을 위한 둔전을 경작하였으며, 활과 화살도 만들었고, 군사 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⁶³⁾ 그는 종전 후 왕의 특명으로 일본에 가서 화친하고, 잠깐간 우리 백성들을 3,500여 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그가 일본에 있을 때 지은 시에는 차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죽림원에 차 연기 푸르고, 꽃 핀 삼월이 맑기도 하네.

강호엔 따뜻한 기운이 서리고 버드나무 푸른 실로 희롱하네.”⁶⁴⁾

61) 『조선왕조실록』 선조 26년 7월 20일, “備邊司啓曰: “各官軍兵抄發時 色吏用術 多不以實 已爲綱弊 但此僧軍 不爲無補於戰陣之用 立功相望 今將以斬級 給禪科之意 通諭於休靜 使之搜括聚會 而休靜所送僧雙彦言曰: ‘若以禪 教宗判事二人差出 急時統領 則勢可易爲 而尙珠 雙印時在香山 可令任使’ 云 此兩僧 自司差帖成給 急急率領下送何如?”

62) 위의 책, 선조 27년 2월 20일, “邊備司啓曰: “前日 各陣所得鳥銃 皆送於元帥處 太半爲應索 天兵之資 今後戰陣所得鳥銃 無得濫費 一一(牧) [收] 拾 各陣軍士 逐日學習 漸次成才 一以教 十 十以教百 其中特異者 記名啓聞 或除禁軍 或爲免賤 以廣傳習之路爲當 且聞降倭常言 欲爲我國盡心 而猶恐後日被誅云 此倭以歸順之功 特授司猛告身 以堅其意 而使之力於訓誨 則必有其效 矣 且僧將惟政 方住在宜寧 已於旁近處 略爲種麥 以備軍糧 又今慶尙右道總攝僧信悅 於各寺位田 亦播麥種 且於伽倻山海印寺 造作弓箭云 又聞 信悅所率僧軍 皆爲丁壯 欲於耕種之暇 敎習 火砲 各處諸將 無意及此 而此僧輩獨能之 甚爲可嘉”

63) 『한국불교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지음, **조계종출판사**, 2011, pp.283-289.

64) 사명유정, 「題上野守竹林院壁上」, “竹園茶煙翠 晴花三月時 江湖淨暖氣 楊柳弄青絲”

그는 일본 상야수 죽림원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고국 생각에 잠겼을 것이다. 하지만 유학자들은 전란 속에서 승려의 신분으로 동분서주하는 그의 모습을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불교는 임진왜란 기간 동안 죽은 이들의 영혼을 달래고 왕생을 비는 천도재나 수륙재를 곳곳에서 행하였고, 현세의 안녕을 기원하고, 신원 미상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도 담당하였다. 이런 불교의 종교적 기능은 불교가 존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⁶⁵⁾ 임진왜란을 통해 일정한 영역을 확보한 불교는 조선 조정의 유학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임진왜란과 같은 국난을 통해 불교가 종교로서의 가치를 회복하며 실학자들과도 자연스러운 교유가 이루어졌다.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겪은 조선 사회는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주로 학문적인 분야에서 사회개혁과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이후 승려들의 활약은 불교 위상과 함께 실학자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사회적으로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승려들은 과도한 공납을 해결하면서도 불문의 수행을 지키기 위해 수도하는 승려와 사원을 운영하는 승려인 이판승(理判僧)과 사판승(事判僧)의 구분되었다. 이판승은 수도에 전념하는 승려이고, 사판승은 사원운동을 책임지는 승려로 이런 이원적 운영은 불문을 지켜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청에 의해 발생된 것이었다.⁶⁶⁾ 특히 이판승들은 대부분 깊은 산 속의 암자에서 수행하면서 불교의 정신적인 명맥들을 이어갔다. 이러한 부분은 차문화에서도 목격되었다.

차가 불교의 선(禪) 문화와 습합된 것은 선종의 수행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다선일미(茶禪一味) 사상으로 발전하면서였다. 특히 『동다송』을 저술했던 초의스님의 선사상은 다선일미 사상으로 집약되었다. 그의 다선일미 사상은 차를 마시되 법희선열(法喜禪悅)을 맛본다는 것이었다. 즉, 차(茶) 안에 부처님의 진리[法]와 명상[禪]의 기쁨이 다 녹아있다는 것이었다. 그

65) 앞의 책, 『한국불교사』, p.203.

66) 위의 책, p.318.

는 “차의 진예(塵穢, 더러운 티끌 먼지)없는 정기(精氣)를 마시거늘 어찌
 큰 도를 이룰 날이 멀다고만 하겠는가(榛穢除盡精氣入, 大道得成何遠哉!)”
 라고 하였다. 초의 스님에게는 차(茶)와 선(禪)이 둘이 아니고, 시(詩)와 그
 림이 둘이 아니며, 시(詩)와 선(禪)이 둘이 아니었다. 이러한 그의 선사상은
 『동다송』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옥화 한잔 기울이니 겨드랑에 바람 일어
 몸 가벼워 하마 벌써 맑은 곳에 올랐네.
 밝은 달은 촛불 되어 또 나의 벗이 되고
 흰 구름은 자리 펴고 병풍을 치는구나.” 67)

그는 『동다송』을 지어 우리의 차를 예찬하고 다도의 멋을 전하였으며,
 범패와 원예 및 서예뿐만 아니라, 장 담그는 법, 화초 기르는 법, 단방약
 등에도 능하였다. 이는 실사구시를 표방한 대실학자인 정약용의 영향과 김
 정희, 김명희(金命喜, 1788~1857), 신위(申緯, 1767~1845) 등과의 교류에서
 얻은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 후기 등장한 실학사상은 차를
 통해 불교와도 소통할 수 있었다. 산천도인 김명희와 초의도 차를 통해 교
 유를 하였다. 김명희에게 보낸 「산천도인의 사차시에 삼가 화운하여(奉和
 山泉道人謝茶之作)」이라는 답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예로부터 성현들은 모두 차를 사랑하였으니 차는 군자와 같아 성품에
 샷됨 없네.
 사람들이 풀잎 차를 거의 다 맛보았기 멀리 설령 들어가 노아차를 따네.
 차를 법제하여 품평을 받고 옥병에 가득 담아 열 가지 비단으로 썼네.
 물은 황하 최상의 근원에서 찾아 왔으니
 여덟 가지 덕을 갖추어 아름답기 한결 더하네.

67) 초의, 『동다송』, “一傾玉花風生腋 身輕已涉上清境 明月爲燭兼爲友 白雲鋪席因作屏”

깊은 물 길어다가 가볍고 부드러운 맛을 한 번 시험해 보니
 참되고 정수함이 조화되어 몸과 마음이 열리네.
 나쁜 기운 사라지고 정기(精氣)가 들어오니 큰 도를 얻어 이루니 어이 멀
 다 하리오.
 영산(靈山)으로 가져와서 부처님께 올리고
 차 달임 더욱 따져 보살의 음악을 살피었네.
 알가의 참된 본체로 오묘한 근원 다하였고 오묘한 근원은 집착 없는 바라
 밀일세.
 아아! 나는 삼천년 뒤에 태어났으니 불경을 읽는 소리 아득히 선천(先天)
 과 막혔구나.
 오묘한 근원 묻고자 해도 물을 곳이 없어 부처님 열반 전에 나지 못함 한
 탄하노라.
 줄곧 차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으니 속 좁은 내가 우습다.
 비단을 풀고 옥병을 따서 먼저 친구들에게 보시하여 보내노라.” 68)

이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차의 성품은 군자와 같아서 사된 기운이 없기에
 예로부터 모든 종파나 학파와는 상관없이 성현들은 모두 차를 사랑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승려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불가사상뿐만 아니라
 차문화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3절 실용주의 정신

도가사상은 노장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철학사상으로 인간의 현실적

68) 초의, 『초의시교』 「奉和山泉道人謝茶之作」 “古來賢聖俱愛茶 茶如君子性無邪 人間艸茶差
 嘗盡 遠入雪嶺採露芽 法製從他受題品 玉壘盛衰十樣錦 水尋黃河取上源 具含八德美更甚 深汲輕
 軟一試來 眞精適和體神開 麤穢除盡精氣入 大道得成何遠哉 持歸靈山獻諸佛 煎點更細考梵律 闕
 伽眞體窮妙源 妙源無着波羅蜜 嗟我生後三千年 潮音渺渺隔先天 妙源欲問無所得 長恨不生泥洹
 前 從來未能洗茶愛 持歸東土笑自隘 錦纏玉壘解斜封 先向知己修檀稅 ”

타락과 무지의 근거를 찾아 그것을 척결하고, 자연의 실상을 깨달은 참 지혜를 통하여 무위(無爲)의 삶을 추구하는 사상적 경향을 말한다. 이는 보통 무위자연사상이라고 불린다.

도가사상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조선 건국의 주도적 인물인 정도전(鄭道傳)의 「심기리편(心氣理篇)」에 대한 권근(權近)의 해설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성리학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단(異端)의 사유를 구명하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김시습, 남효온, 정희량 등 많은 조선의 선비들은 차생활을 접하면서 노장사상에 심취해 도학(道學)과 선사상을 융합시켜 새로운 차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갔다. 김종직의 문하에는 무오사화 이후 특히 도가적(道家的) 풍모를 지닌 제자들이 많았다. 도가는 주자학적 ‘도학’과는 다르나, 송(宋)대에 신유학의 선구자들은 노장과 불교사상에 깊이 심취하였다. 도학은 불교와 노장을 바탕으로 새롭게 원시유교를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도학이 자연으로 물러나면 도가와 통한다. 이처럼 조선 선비들의 차생활 저변에는 노장사상이 혼재되어 있었다. 이들은 양생(養生)에서 군자지도(君子之道)로 차생활을 실용화시켰는데, 이덕무의 「관헌에서 차를 마시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청옥 서안에 그대와 마주 앉아 차 마시노라니 담화도 길어지네.
 여뀌 밭에 벌레소리 요란하고 매미 울음은 그늘에서 시원하네.
 가을 서재엔 한가한 날이 무료하고 비 갠 주렴엔 새 벌이 따스하네.
 문득 선경에 노니는 듯 몸은 어느덧 물아를 잊노라.” 69)

이후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은 유가적 사유체계 내에서의 ‘기’가 지니는 고식성을 탈피하여 새로운 각도로 이를 조명하였다. 그는 ‘이’와 무관하게 독립적·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기’의 본질과 근원을 다루었다. 그는 도가

69) 이덕무, 『청정관전서』 권9 「觀軒茗飲」 “倚君青玉案 茗飲話俱長 蓼刺繁蟲鬧 蟬專一樹涼 秋齋聊暇日 晴箔暖新陽 忽若遊方外 形骸澹自忘”

의 ‘기’ 개념을 깊이 이해하고, 유가적 이·기(理·氣) 개념을 철저히 검토한 바탕 위에서 자신의 독창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서경덕의 차와 관련된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 운암에 살기로 한 것은 다만 성품이 못나고 성글기 때문이라네.
 숲속에 앉아 새들과 벗하고 개울가 거닐며 고기들과 같이 즐긴다네.
 한가할 땐 꽃 언덕 길 쓸고, 때로는 호미 들고 약밭 매러 간다네.
 이 외에 아무 일 없으니 차 마시고 고서 읽고 있다네.”⁷⁰⁾

위 시는 서경덕의 은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시이다. 그는 무위(無爲)를 실천하는 삶으로 세속의 가치관이나 신념으로 세상과 관계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연 속에서 자발적인 삶을 살았다. 그리고 그는 이런 삶을 차와 함께 하였다. 이러한 삶은 도가적 삶이라 말할 수 있다. 노자(老子)를 새롭게 재평가하였던 이이(李珣, 1536~1584)는 노장사상과 차와 관련된 시를 「기정석천(寄呈石川)」에 담았다.

“선생께서 용퇴하여 아늑한 거처에 누웠으니 한가롭게 살면서 즐거움이 많겠지요. 차술에 불이 식으니 솔바람 소리 잦아들고 가마 행차 평온하니 굴나무 숲이 그윽하네. 구름은 둔약에서 선경 찾는 걸음 따라오고 달은 어천에서 객을 방문하는 배를 보내네. 자연에서 회포를 읊은 시가 있거든 멀리 저한테 한 편 보내 주실 수 있는지요?”⁷¹⁾

이이는 석천 임억령(石川 林億齡, 1496~1568)을 도덕적 측면뿐만 아니라

70) 서경덕, 『花潭集』 권1, 「山居」 “雲巖我卜居 端爲性慵疏 林坐朋幽鳥 溪行伴戲魚 閒揮花塢帚 時荷藥畦鋤 自外渾無事 茶餘閱古書”

71) 이이, 『栗谷全書』 권1, 「寄呈石川」 “先生勇退臥菟裘 算得閒居樂事優 茶鼎火殘松蔕靜 竹輿行穩橋林幽 雲隨芑嶽尋眞履 月送魚川訪客舟 丘水遺懷多少作 一篇能寄遠人不”

차와 결부해서 선화(仙化)시키고 있다. 조선 후기에 민간에 음성적으로 만연하던 도가사상을 깊이 우려한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은 장자(莊子)의 사상이 철저한 오류임을 밝히려 『장자변해(莊子辨解)』를 지었다.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은 병자호란의 국치와 당쟁의 격화로 말미암아 국력은 약화되고 민생이 도탄에 허덕이던 시기를 살았다. 그는 이러한 국내외의 현실을 직시하며 사회 개혁을 통한 민생의 구제를 목표로 하는 사상적 자주 의식을 토대로 학문과 경륜을 펼쳤다. 학문에 대한 그의 입장은 당시 통치이념인 주자학을 비판하고 중국 중심적 학문 태도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노장 사상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모색하려는 입장을 취하며, 도가 사상을 민중 중심적이라고 보았다. 이런 그의 학문은 자유분방하고 매우 독창적이었으며 실용적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명분론보다도 의식주와 직결되는 실질적인 실용 학문이 필요하다는 실학사상을 드러냈다. 그는 현실적으로 유교와 상반되는 개념일 수 있는 노자의 사상을 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덕경』을 읽고 논하였다. 그는 유교적인 사회에 유교와는 상극인 도덕경의 지식을 접목시킴으로써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⁷²⁾ 도가의 기철학은 동양의 전통 과학과 천문학이 형성·발전하는 과정에서 사상적 원류로 기능하여 왔으며, 조선후기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도가철학을 인식의 틀로 활용하여 서양과학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실용주의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17세기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으로 실학이 대두되면서 자연과학의 분야에 있어서도 자연에 대한 관찰과 연구에서 그 존재와 운동을 물리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시의 상황으로 근대적 과학기기를 통한 검증은 거치지 않았지만 천체와 자연현상에 대하여 많은 예측과 가설이 등장했다. 이익의 『성호사설』은 우리나라 우주론의 분야에서 획기적 전환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정치적 통치이념으로서 유교의 영향에 의해 전통적으로 공인된 천체에 대한 이론

72) 송향룡, 「서계 박세당의 노,장연구와 도가철학사상」,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16권 0호, 1982, pp.45-56.

인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의 비과학성은 이익의 지원설로 종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⁷³⁾ 그 영향은 서명응(徐命膺, 1716~1787)의 선천역학⁷⁴⁾, 홍대용의 ‘지전설(地轉說)’ · ‘우주무한설(宇宙無限說)’로 제기되었다. 서명응의 차 관련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마을 유달리 고요하고 일마다 그윽하여 뜻에 딱 맞네.
 백조는 울타리 사이에서 잠들고 누런 닭은 지분 위에서 우네.
 술독 대신 빗방울 소리 들리고 다관에선 물결소리 난다네.
 이 집에선 오랫동안 겪었지만 물가에선 이런 내용 알지 못하지.”⁷⁵⁾

서명응은 세속의 잡다한 마음을 모두 잊고 소심으로 돌아가면 곧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백조나 닭들도 그런 마음을 알고 피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체험하였다. 그리고 자연에 대한 그의 인식 전환은 현실 질서의 변화와 실용적 삶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학자들은 서양의 자연과학 사상의 영향을 받아 주자학의 도식적인 청담공론에서 벗어나 실천과 실용정신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였으며, 실제생활에 유용한 실용학문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생각들은 실학자들로 하여금 서양학문뿐만 아니라 동양학문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여, 도식적인 학문보다 비교적 자유롭고 현실적인 불교나 유교, 그리고 도교에 관련된 학문에도 관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학자들은 차문화와 필연적으로 접촉하게 되었으며, 차문화는 실학자들의 실천적 학문연구와 실용적 삶의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73) 『星湖僊說類選』卷1, 「天行健」 “天其運乎 地其處乎 亦疑及此也 謂天果運乎 地果處乎 安知非天處而地運乎 地運於內 則三光方旋回 如乘舟而舟回 知見岸回 而不覺其身旋也” 同上, 「日月道」 “凡天地間陰陽調化 皆原於日 太微之帝座公卿之類 如王居之外有外朝也”

74) 서근식, 「보만재(保晩齋) 서명응(徐命膺)의 선천역학 연구」,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19권 0호, 2006, pp.293-324.

75) 서명응, 『보만재총서(保晩齋叢書)』 「잡시」, “江村殊靜寂 事事愜幽情 白鳥籬間睡 黃鷄屋上鳴 酒槽聞雨滴 茶罐試波聲 宅此經年久 沙洲不識程”

제4장 실학사상이 차문화의 사회·산업적 측면에 끼친 영향

제1절 차음용의 확산

실학자들은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였으나, 현실에서는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 제도의 기준은 백성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느냐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조선 후기 사회적 변화와 개혁을 위해 정신적·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나름의 해결책을 제시하려 했다.

실학은 17세기 초 조선에서 형성되어 전개된 진보적 사회사조 및 학문 연구방법이었다. 당시 양반출신의 진보적 지식계층들은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사회개혁을 주장하였다. 전통적인 성리학자들은 임금을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보고 임금의 교화에 주력했던 것에 반해, 실학자들은 사회제도의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백성에게 주권(主權)이 있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의 근대적 정치의식이 발달하였다. 실학자들은 양반의 특권을 비판하며 봉건적인 신분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실학사상이 보급되자 특수직에 있던 중인이나 서얼 출신들도 능력에 따라 문단이니 학문을 연마하여 깊은 경지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 이규경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의 흐름은 양반계층과 중인 및 평민 계층 간의 교류를 가능케 하였다. 정약용과 그의 아들들과 김정희와 김명희 등 당시 실학자들과 승려였던 아암(兒菴) 혜장(惠藏, 1772~1811)과 초의와 역관이었던 이상적(李尙迪, 1803~1865) 등의 교류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 온 후 혜장과 교류를 맺었다. 『연과잉고(蓮坡剩

稿』의 발견으로 정약용과 혜장의 시를 통해 두 사람 사이의 교유는 생생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혜장의 시 「탁옹이 돌아간 뒤 시를 몹시 부지런히 요구하므로 또 한 편을 보낸다(籀翁歸後, 索詩甚勤, 又寄一篇)」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육안으로 그대를 못 알아봄 탄식하니
태산북두 높은 명성 다만 귀로 들었었네.
불지(佛地)에는 이제 와 용상회(龍象會)가 없느니
궁궐 연못 예전엔 봉황의 무리셨네.
외로운 자취 멀리 이곳 금릉 바다 이르시매
꿈속에선 언제나 한수(漢水) 구름 돌아가리.
방외의 우정이 다시금 난만하니
시 속의 경계의 말 참으로 은근하다.” 76)

탁옹은 정약용의 별호인데, 처음 정약용이 혜장을 찾아갔을 때 혜장은 한 나절 그와 얘기를 나누고도 그가 정약용인 줄을 몰랐다. 하지만 돌아가는 정약용을 뒤쫓아 가 붙들고 하루 밤을 함께 묵은 뒤로 두 사람은 의기가 투합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를 주고받으며 왕래하였다. 혜장은 명성이 높았던 정약용이 멀리 강진 바닷가로 귀양 와서 외로이 지내는 슬픔과 외로움을 위로했다. 이처럼 정약용이 혜장과 마음을 나눈 뒤, 차를 통해 둘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져 갔다. 1805년 4월 그는 혜장에게 차를 보내 달라고 했다. 그가 쓴 최초의 절명시 「혜장상인에게 차를 청하며 부치다(寄贈惠藏上人乞茗)」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듣자니 석림봉 바로 아래서 예전부터 좋은 차가 난다고 하네.
지금은 보리 익을 계절인지라 기(旗)도 피고 창(槍) 또한 돌아났겠네.
궁한 살림 장재(長齋)함이 습관이 되어 누리고 비린 것은 비위가 상해.

76) 혜장, 『蓮坡剩稿』, “深嗟肉眼不知君 山斗高名耳但聞 佛地今無龍象會 宮池舊是鳳凰羣 孤蹤遠抵金陵海 一夢長歸漢水雲 方外交情還爛漫 詩中戒語正殷勤”

돼지고기 닭죽 같은 좋은 음식은 호사로워 함께 먹기 정말 어렵지.
 더부룩한 체증이 아주 괴로워 이따금씩 술 취하면 못 깨어나네.
 스님의 숲 속 차 도움을 받아 육우(陸羽)의 차 술을 좀 채웠으면.
 보시하여 진실로 병만 나으면 뗏목으로 건져준과 무에 다르리.
 모름지기 찌고 말림 법대로 해야 우렸을 때 빛같이 해맑으리라.” 77)

정약용은 당시 귀양살이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는 백련사 석림봉에 좋은 차가 난다는 말을 듣고 혜장에게 차를 구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혜장에서 차를 청하면서 불에 익혀 햇볕에 말리는 절차를 반드시 방법에 따라 해야 나중에 차를 우렸을 때 빛같이 해맑다고 말하며, 차를 만드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었다. 이에 대한 혜장의 답장은 다음과 같다.

“아껴 돌아보심이 과분한데, 편지로 또 안부를 물으시고 필묵까지 내리시니, 보배로와 아껴 감상할 만 합니다. 지극한 감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전처럼 게으르고 제멋대로인지라 두터운 뜻에 부응할 것이 없습니다. 늦물 차는 벌써 쇠였을까 염려됩니다. 다만 덖어 말리기가 잘 되면 삼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 78)

위 글은 정약용이 1805년 4월에 혜장에게 보낸 「혜장상인에게 차를 청하며 부치다(寄贈惠藏上人乞茗)」와 편지를 받고 답장으로 쓴 편지이다. 혜장은 답장에서 이미 4월도 지나 5월이 가까워 차잎이 쇠어 차를 따기에 제철이 아님을 말하고, 그렇지만 정성껏 덖어서 별에 잘 말려 괜찮은 차가 만들어지면 전해주겠다고 말했다.

김정희와 이상적의 아름다운 인연도 엿볼 수 있다. 역관 이상적은 김정

77) 정약용, 『다산시문집』 「寄贈惠藏上人乞茗」 “傳聞石廩底 由來產佳茗 時當曬麥天 旗展亦槍挺 窮居習長齋 羶臊志已冷 花猪與粥雞 豪侈邈難竝 祇因痲癖苦 時中酒未醒 庶藉已公林 少充羽鼎 檀施苟去疾 奚殊津筏拯 焙曬須如法 浸漬色方澄”

78) 위의 책, 『연파잉고』 “左顧既踰所望 惠牘又蒙存向 兼賜筆墨 珍瑰可玩 不勝感謝之至 藏懶散如昨 無以副厚意也 晚茗恐已老蒼 但其焙曬如佳 謹茲奉獻也 不備”

회의 제자로 열두 번 중국을 오가는 동안 중국에서 다양한 명차(名茶)를 맛보았으며, 차에 대한 높은 안목을 바탕으로 차생활을 즐겼다. 그의 『은송당집(恩誦堂集)』은 국내에서 신분의 차별의식 때문에 발간되지 못했으며, 청의 오찬(吳贊)이 주선하여 연경에서 발간되었다. 『은송당집』에는 중국을 드나들며 차생활을 노래한 시가 많이 실려 있었다. 그 가운데 「임한정(臨漢亭)」이란 작품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강정(江亭)에서 이틀 묵자 병도 나으려는데 술꾼과 시인들이 날마다 기다린다.

어살과 계의 통발로 소식을 탐문하니 물가 정자 구름 회랑 그림인양 펼쳐졌네.

향초 앞에 기운 별은 말린 그물 나누고 대추 꽃의 보슬비는 놀이판을 비추누나.

돌 샘물 새로 길어 맑게 차를 다리려니 육우의 『다경』 중에 낙노(酪奴)라 한 것일세.” 79)

이상적은 중국 임한정(臨漢亭)에서 이틀간 머물면서 어살과 계의 통발을 설치해서 싱싱한 안주감을 잡아 올리고, 그림처럼 아름다운 정자에서 봄 풍경을 즐겼다. 좋은 안주에 술을 먹고 마시며 바둑 장기로 놀다가 돌 샘물을 길어 차를 다렸다. 이상적은 좋은 안주와 술과 차를 대하니 문득 육우가 『다경』에서 낙노(酪奴)라고 폄평했던 글이 떠올라 이처럼 시를 읊었다. 이처럼 그는 중국을 오가며 차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각성의 계기와 자신에 대한 성찰과 관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는 「읍다(挹茶)」라는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작은 찻잔에 찻물을 뜨니 수많은 거품들이 얼마나 끓는지.

둥근 빛이 구슬처럼 흩어지는데 구슬 하나마다 하나의 부처로다.

79) 이상적, 『은송당집』 「임한정」 “信宿江亭病欲蘇 酒人吟子日相須 漁梁蟹斲探消息 水榭雲廊關畫圖 菰葉斜陽分曬網 棗花微雨映呼盧 石泉新汲供清淪 陸羽經中品酪奴 ”

금방 생겼다가 순간 사라지니 천억 불신이 황홀하게 명멸하네.
 이렇게 세계가 열리고 이렇게 형상이 분별되네.
 깨달아 일제히 머리를 끄덕이고 참선하여 동시에 불자 세우니,
 누가 대사이며 누가 중생인가 몰아가 일체 사라졌노라.
 망망한 항하의 모래 알 같은 세월에 넓은 중생구제는 사공을 부름이 아닐
 세.
 거품이란 순간의 환상인 것을 공과 색은 조각달에 잠겼네.
 삼생은 촛불의 불빛인 것을, 앉아서 선정에 드매 얼마나 꽃꽂한가.
 만상은 일체가 참이 아니니 무얼 기뻐하며 무얼 성내랴.
 육우의 등불아래 경전을 마시며 노동의 바리때에 시를 담노라.” 80)

위 시는 차를 끓이는 모습과 한 잔의 차가 주는 묘미를 인생과 불법의
 묘미와 대비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차를 통해 인생을 보면
 인생은 거품 같고, 구슬 하나하나씩은 각각의 우주요 부처요 깨달음의 결정
 체라고 간주했다. 그는 이 시를 통해 차를 마시니 선정에 들어 몰아의 경
 지에 들어섰으며, 차 삼매경의 경지에서 홀연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상적인 차에 대해 깊이 이해했으며, 차를 끓일 때 화후(火候)의 조절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 또한 「백산차가, 사박경로(白山茶歌, 謝朴景路)」라
 는 시를 살펴보면, 그가 우리 차문화에 귀중한 자료도 남겼음을 알 수 있
 다.

“내 중국으로 아홉 번 사신을 갔기에 천하의 유명한 차는 모두 맛을 보
 았지
 멀두 거리에 차 박사들 넘쳐나니 차 파는 상점이 장(漿) 가게보다 많지
 집에 돌아와 누워 용육을 말하며 손수 『다경』을 잡고 입맛만 다실 뿐.
 호남의 승려가 새로 만든 죽로차가 나왔기에 당시 사람들이 왕왕 별미로

80) 위의 책, 「읍다(挹茶)」 “小盃挹茶水 千漚何蕩發 圓光散如珠 一珠一尊佛 浮生彈指頃 千億身
 恍惚 如是開手眼 如是分毛髮 悟處齊點頭 參時同豎拂 誰師而誰衆 無我亦無物 茫茫恒河沙 普渡
 非喚筏 泡花幻一嘘 空色湛片月 三生金粟影 坐忘何兀兀 萬緣了非眞 焉喜焉足喝 經傳陸羽燈 詩
 呪玉川鉢”

여겼지.

우리나라의 차들을 귀하게 여겨야 옳겠지만 끝내 향미가 입맛에 걸끄러운
 걸.

불함차 한 망태기 그대 은혜 고마우니, 추운 날씨 폐병엔 산삼이 버금가
 네.

다만 중령의 샘물 얻기 어려운 데다 멀리 무이산 찾았을 구할 길 없어 한
 스럽네.

그대 보지 못했나, 강남의 어차가 공물에 들지 못하고 잎과 가지가 매몰
 되어 충사(蟲沙)가 된 것을, 또 보자 못했나, 박작에서 해마다 온갖 재화
 가 무역되는데 올 가을에는 수선화가 하나도 없던 것을, 다담을 나누던
 벗들 비처럼 흩어졌으니 봉화의 연기는 벌써 천진의 기슭에 들어갔겠지.
 무슨 다행으로 나의 생은 다복을 누리는지, 차 달이고 시구 찾으며 세월
 보내노라.” 81)

위 시는 1853년 박경로가 보내준 백산차(白山茶)를 받고서 답례로 지어
 보낸 시이다. 그는 아홉 차례나 중국에 다녀온 사람으로 중국의 명차를 거
 의 알고 있었다. 그는 귀국해서 집에 누워 있으니 그곳에서 마셨던 용단차
 의 향기가 혀끝에서 느껴지고, 공연히 육우(陸羽)의 『다경(茶經)』을 뒤적
 이며 안타까운 탄식만 했노라고 말했다. 초의 스님이 만든 차는 초의차라
 칭했는데, 추사나 자하, 금령 박영보 등이 그 차의 맛을 보고 열광하여 그
 에게 전다박사(煎茶博士)라는 칭호를 선사하였고, 「남차병서(南茶并序)」
 등의 작품을 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초의차의 향미가
 뚝은맛만 남길 뿐 중국의 고급 차와는 견줄 바가 못 된다고 말했다. 그럼
 에도 사람들이 열광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차여서 귀하게 여겼기 때

81) 위의 책, 「백산차가, 사박경로(白山茶歌, 謝朴景路)」 “我曾九泊燕河槎 嘗盡天下有名茶 十二
 街頭茶博士 賣茶多於賣漿家 歸臥敝廬談龍肉 手把茶經空咨嗟 湖僧竹露出新製 時人往往如嗜痂
 祗應所貴吾鄉物 終始香味澁齒牙 不咸一網感君惠 天寒肺病當三椽 誰知此士乃有此 譬如人才出
 荒遐 但恨難得中冷水 無勞遠購武夷芽 君不見 江南御茶不入貢 旗槍埋沒隨蟲沙 又不見 泊杓年
 年通百貨 今秋無箇水仙花 茶話故人散如雨 烽烟已入天津涯 何幸吾生享多福 煎茶覓句送年華”

문이라고 말했다.

박경로가 준 불함산(不咸山) 즉 백두산에서 난 백산차(白山茶)가 추운 겨울 기침을 가라앉히는 데 인삼탕만큼 효과가 있어 이 땅에서 이처럼 좋은 차가 나는 줄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했다. 천하제일천(天下第一泉)으로 이름 높은 중령수(中冷水)를 얻기는 힘들겠지만, 굳이 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강남의 무이차(武夷茶)를 살 필요가 없으리만치 백산차의 맛과 향이 뛰어남을 칭찬했다. 그리고 백산차를 끓여 마시면서 자신의 근황과 차생활로 더없는 복을 누릴 수 있었음에 감사하였다. 이상적의 시를 통해 백산차의 존재와 우리의 음료문화 등을 알 수 있으며, 차가 박작(泊洑, 압록강과 옛 발해 지역의 경계에 있는 곳)에서 판매되었던 중요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신분을 뛰어넘어 차를 즐겼으며, 차음용을 일반 대중에게 확산시켰고, 차음용을 통해 학문적 교류를 확대하였으며, 차음용을 통해 인적 관계를 맺고 소통문화를 확대하였다. 차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게 인간적 교류와 소통, 그리고 조화로운 인간 생활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제2절 개방적 소통문화의 형성

조선 후기에는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농민계층의 성장과 경제발전으로 신분질서가 무너지면서 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는 문화의 저변이 확대되는 토대가 되었다. 조선 후기의 문화는 급속한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서민문화의 새로운 형성이 두드러졌다.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는 사회 전반적으로 산업이 융성하고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유학자들의 학문과 문학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 시기였다. 조선 후기 문화에서 대표적인 현상은 진경문화였다. 서민문화면에서는 평민 대중의 문화가 왕성하게 일어났고, 한글이 널리 보급되면서 평민들의 소통이

자유로워졌다.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예술분야에서도 목격되었다. 조선 후기는 조선 전기 때 양반들이 천시하던 한글문학과 가면극, 가사문학이 크게 발달하였다.

예술의 발전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는 김홍도의 「씨름도」와 신윤복의 「미인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산이나 동물들을 소재로 그린 중국의 화풍이 아니라 우리나라 서민들의 풍속 장면들을 그림으로 살려냈다. 신윤복의 「미인도」는 과감한 색채가 특징이다. 미술 장르는 주로 풍속화가 주도하였으며, 음악 장르는 탈춤과 판소리가 주도하였다. 그밖에 조선시대의 유명한 서예가로는 추사 김정희와 원교 이광사를 들 수 있다. 추사 김정희는 조선시대 3대 서예가로 간주되었다.

양반문화인 진경문화는 숙종, 영조, 정조의 3대에 걸쳐 진행된, 이른바 조선의 문예부흥, 르네상스 시기의 문화 현상이었다. '진경'이란 진짜 경치를 그린다는 뜻으로, 이전의 그림이 가보지도 못한 중국의 산천을 그렸다면, 이 시기에는 우리의 산천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대표적인 화가가 정선이었고, 이는 그림 뿐 아니라 문학, 서예 등 문화 전반에 걸쳐 확산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경치를 그리고, 우리의 산천을 시로 읊고, 중국과는 다른 우리의 서예법을 창안해 쓰는 문화적 자립현상을 '진경문화'라 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여성의 학문과 문학 활동에 대해서도 좀 더 개방적이었으며,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여성 작가들이 등장하였다.⁸²⁾

여성 문학과 차문화의 관련성에 대해 많은 시·서·화가 전해지고 있다. 서영수합(徐令壽閣, 1753~1823)은 대표적 사례이다. 영수합은 홍인모(洪仁謨, 1755~1812)와 혼인하고 당대의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석주(奭周)·길주(吉周)·현주(顯周) 등 3형제와 규수시인(閨秀詩人) 원주(原周)를 슬하에 두었다. 그녀의 친정과 시가는 당대의 명망 높은 가문이었으며, 전통적 유교 윤리 관념을 몸소 체득한 전형적인 사대부 가문이었다. 그녀가 시를 짓게 된 동기는 시 짓기를 좋아했던 남편의 시우(詩友)가 되기 위한 것이었다.

82) 조연숙, 『한국고전여성시사』, 국학자료원, 2011, p.166.

남편이 사망한 후 그녀는 절필하였고, 다시는 시를 짓지 않았다. 영수합의 문집인 『영수합고(令壽閣稿)』는 남편인 홍인모의 문집인 『족수당집(足睡堂集)』 뒤편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녀의 시 「고요한 밤에 차를 끓이며(靜夜烹茶)」라는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몇 년이나 작은 화로에 불을 지폈으니 작으나마 신묘한 공덕이 응당 있노라.

차 마신 뒤 거문고를 다시 어루는데 밝은 달 보고서 누구를 부를 까나.

봄날 찻상 푸른 찻잔에 옥 이슬 따르고 낡은 벽에 그을음 얼룩져 그림이 되었네.

잔을 채울 제 꼭 술뿐이겠느냐. 답청 가는 내일은 또 차호를 가져가리.” 83)

영수합의 집안은 학문적 분위기로 가득 차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큰 아들 홍석주(洪奭周, 1774~1842)의 「차도독산해경운(次陶讀山海經韻)」라는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상 앞에 형제자매 모여 있고, 방안에는 시서가 벌려 있네.

누이동생은 능히 칠언시 배우고, 동생은 다섯 수레 책 다 읽었네.” 84)

이처럼 서영수합의 가정은 자녀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책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해 서로 토론하며, 틈나는 대로 시를 지어 서로 주고받은 분위기였다.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는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딸인 홍원

83) 홍인모, 『족수당집(足睡堂集)』 중, 서영수합 「靜夜烹茶」 “幾年丈火小茶爐 一點神功定有無 啜罷清琴還自撫 看來好月 竟誰呼 春盤碗碧添瓊露 古壁煙籠作粉圖 滿酌何須待旨酒 踏青明日再携壺”

84) 홍석주(洪奭周) 「次陶讀山海經韻」 “床前會弟妹 室中羅詩書 妹能學七言 弟能窮五車”

주(洪原周, 1791~1842)는 학문적으로 자유로웠던 집안 분위기 속에서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문학을 익혔다.

“벼루를 막 열자마자 밤이 시를 재촉하는데
 북두칠성 하늘에 걸리고 달은 더디 돋누나.
 높은 누대 위에 등을 걸고 한가롭게 앉아
 눈을 보며 차를 달이는 그 즐거움 즐기네.”⁸⁵⁾

초의에게 『동다송』을 저술하게 했던 해거재(海居齋) 홍현주(洪顯周, 1793~1865)는 서영수합의 셋째 아들로 정조의 딸인 숙선옹주(淑善翁主, 1793~1836)와 혼인하여 영명위(永明尉)에 봉해졌다. 홍현주는 평생을 두고 차를 즐겼던 차인이었다. 그가 남긴 차시는 무려 110여수에 달했다. 1830년에 지은 「동림장에서 자며 이천민에게 보여주다(宿東林庄, 示李天民)」라는 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사모에 모시 적삼 새 옷 지어 입고서
 물외에서 태고 백성 서로 따라 노닐었지.
 술잔과 산가지로 내 늘 빗짐 부끄럽고
 시권(詩卷)만은 가난찮은 그대를 사랑하네.
 산 등불을 달로 대신한 이 좋은 밤 보내면서
 냇물 차에 향 사르며 또 한 봄을 작별한다.
 우리 일행 모두들 돌아가고 난 뒤에는
 적막히 사람 없이 꽃만 피고 지겠구나.”⁸⁶⁾

85) 홍원주, 『유한집』 「敬次」 “初開寶硯夜催詩 星斗橫天月出遲 掛燈閒坐高臺上 看雪烹茶樂自知”

86) 홍현주, 「동림장에서 자며 이천민에게 보여주다(宿東林庄, 示李天民)」 “烏紗白紵試衣新 物外相隨太古民 愧我觥籌常欠債 憐君詩卷未全貧 山燈代月堪良夜 澗茗供香又別春 懸識吾行歸去後 花開花落寂無人”

이처럼 해거는 술보다는 차를 더 즐겼다. 산 속에서 환한 달빛을 등불 삼아 둘러앉은 흐뭇한 밤에 냇물을 길어와 차를 끓이고 찻자리가 무르익으면 향을 사르며 또 가는 봄을 전송하며 자연의 이치인 회자정리를 생각했다. 그는 이 시기에 정학연(丁學淵), 이만용(李晩用), 윤정진(尹正鎭) 등과 어울려 자주 차를 마시며 시회(詩會)를 열었다. 1830년 봄에 네 사람이 함께 지은 연구시(聯句詩)에도 해거가 “땅거미 질 무렵 지팡이 짚고, 살구꽃 앞으로 이르러보니(短筇携暝色, 因到杏花前)”로 말문을 열자, 정학연이 “휴가라 해맑은 일과가 많아, 제2천의 샘물로 차를 끓이네.(休沐多淸課, 烹茶第二泉)”로 마무리 지은 시가 있다. 또 그는 「동림우견기수주화(東林又見寄遂走和)」의 1, 2구에서도 “손님 와서 차 마시고 향을 막 피우니, 작은 누각 산과 같고 밤빛은 텅 비었네.(客來茶半與香初, 小閣如山夜色虛)”라고 노래하였는데, 이는 그가 젊은 시절부터 차를 가까이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는 초의에게 차에 대한 글을 부탁하였으며, 그 결과 1837년 우리나라 차에 대한 68행의 7언 고시체(古詩體) 송시(頌詩)인 『동다송』이 탄생하였다. 『동다송』은 차의 덕을 칭송하고 찬미하였다. 여기에는 동국에서 생산되는 차의 미덕이 성장개화, 꽃과 싹, **고사**, **제다**, 제품, 동차 실향, 동차 송찬, 동차 선의 내용 등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가 세상을 떠난 1865년에 차(茶) 자를 운자로 하여 지은 「가차화애 17일(家茶花涯十七日)」라는 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오늘 아침 개인 경치 보기 좋으니 집집마다 푸른 나무 시원하구나.
객 불들어 향그런 쌀밥을 짓고 아이 불러 유차(乳茶)를 끓이는도다.
섬들의 대나무는 꺾질 막 벗고 난간의 작약은 늦게 꽃 폈네.
어여쁜 식귀는 어디에 있나 한가한 구름은 하늘 저 끝에.” 87)

위 시에는 그가 만년까지 지속했던 담백한 차생활과 자연을 관조하는 따스한 시선이 그려져 있다. 그는 아내 숙선옹주를 잃고 외아들 우철(佑喆)

87) 홍현주, 「가차화애 17일(家茶花涯十七日)」 “今朝晴景好 綠樹萬人家 留客炊香稻 呼兒煮乳茶 砌簷初解籜 欄藥晚開花 佳句在何處 閒雲天一涯”

마저 일찍 죽자 쓸쓸한 노년을 차와 함께 지냈다. 그의 아내 숙선옹주는 왕실 여성으로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하며 많은 문집을 남겼다. 그녀의 시 「즉사(卽事)」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매옥에서 늦도록 차 마시고 나오니 난간 위 오동나무에 깃든 새 우네.
 누구 불러대는 옥피리인가, 소나무 숲의 푸른 샘물소리 나네.” 88)

이 시는 시어머니 서영수합의 처소에서 밤늦도록 차를 마시며 담소하고 밤이 깊어 나오니 놀란 새가 울고, 어디선가 샘물 흐르는 소리가 옥피리 소리처럼 난다며 아름다운 고부 사이를 읊고 있다. 서영수합을 중심으로 그녀의 가족들은 차를 즐기며 표일탈속(飄逸脫俗)한 시풍의 시들을 남겼다. 가족들이 달밤에 모여 차를 마시며 돌아가면서 시(詩)를 연작한 모습을 통해 이들이 차를 무척 사랑했음을 알 수 있다.

“즉수당 : 개인 후 달 밝으니

영수합 : 성긴 발에 구름 그림자 어리고 멀리서 온 사람 흥에 겨워

석주 : 맑은 달빛 좋기도 하네. 허공이 밝아지니 하늘도 넓고

길주 : 이슬 내려 꽃을 적시네. 누각은 허공에 솟았고

원주 : 뽕죽한 산봉우리엔 달이 걸렸네. 구름 걷힌 하늘엔 고요가 서렸는데

현주 : 나무 사이엔 별이 돋았구나. 걸어 논 등잔에 밤은 깊어지고

즉수당 : 바람소리 피리처럼 뚜렷이 들리는데 서로 만나 기뻐서 웃고

영수합 : 둘라 앉아 술 마시며 즐거워 하네.

석주 : 이루지 못하면 벌주를 마셔야 하네. 계단 둘레엔 아름다운 나무 들렸고

88) 숙선옹주, 『선언실권』 「즉사」 “梅屋晚飲茶 梧檻宿鳥鳴 誰家聞玉笛 松間碧泉生”

길주 :갓추어진 반찬들은 옛 맛 그대로네. 차가 익으니 시심이 일고

원주 : 거문고소리 타는 손처럼 맑구나. 가족들의 이 즐거움은

현주 :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젖어드는데 하늘 쳐다보니 은하는 기울었는데

족수당 : 이 기쁨 영원하길 달 보고 빈다네.”⁸⁹⁾

위 시에서는 온 가족이 밝은 달밤에 둘러 앉아 차를 마시니 모든 근심걱정이 사라지고 자연 속에서 가족 한 명 한 명의 소중함을 읊었던 당시 사대부가의 차문화를 엿볼 수 있다. 실학사상으로 인해 개방과 소통의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사대부 가정 내에서도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온 가족이 모인 밤 차회, 시 짓다 못 지으면 별주를 마시던 옛일, 어머니의 음식 맛 등을 떠올리며 차를 마시는 모습, 시상을 떠올리고 거문고를 타는 소리 등 가족문화가 담겨있다. 이들 가족들의 소통문화를 통해 조선 후기 실학사상이 가족 차문화에 끼친 사회문화적 측면을 엿볼 수 있다.

제3절 차 생산의 확대

실학과는 북벌론의 기반이었던 존명사대주의를 비판하였고,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배척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유교적 경제론을 바탕으로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한 개혁을 추구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의 전란을 거치며 조선사회는 농촌 경제의 파탄과 인구 감소, 재정 위기 등의 문제를 겪어야 했다. 17세기 이후에는

89) 足睡堂: 霽餘新月照, 令壽閣: 流影上疎簾 遠客偏多興, 爽周: 清光雨不嫌 虛明天資潤, 吉周: 滴瀝露華沾 樓閣憑空迥, 原周: 峰巒入鏡尖 雲歸雲外靜, 顯周: 星出樹間添 催夜深燈翳, 足睡堂: 吟風短角嚴, 相看歡笑足, 令壽閣: 圓坐醉醒兼 揮筆聘詞苑, 爽周: 傾壺報漏籤 繞階羅寶樹, 吉周: 供膳和晶盤 茶熟詩腸潤, 原周: 琴青玉手纖 怡怡真可樂, 顯周: 去去不辭淹 起視銀河轉, 足睡堂: 佳懷問老蟾”

대동법의 실시를 계기로 상품·화폐경제가 확산되면서 계층의 분화와 사회경제적 변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실학은 당시 조선 사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실학자들은 토지 개혁과 신분제 개혁 등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하였으며, 그들의 연구 분야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백과전서 식으로 매우 폭넓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성리학의 경세론은 도덕·윤리와 같은 사회 규범을 중시하고 임금의 교화를 중심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실학자들은 인간의 현실 생활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사회 제도의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조선 시대의 차문화는 왕실과 사대부층과 사원에서 다례와 음다풍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 차와 관련된 기록은 멋이나 수양의 음료로부터 우리 차의 우수성을 차의 효능적 측면에서 주장하는 글들이 저술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차의 효능이 우리 몸에서 잘 표출될 수 있는 다양한 제다법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직접 실천하는 모습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실용적인 학문의 등장으로 가능했다. 실용학문에 해당하는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새로운 제다법들이 소개되어 있었다. 또한 1755년 「부풍향차보」와 「동다기」, 다산의 시문에 나타난 삼중삼쇄, 구증구포 등과 초의의 『동다송』 등 여러 실학자들의 차와 관련된 시와 산문들을 통해서도 이런 현상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수원을 필두로 이익은 성호 학파를 형성하여 농민의 입장에서 개혁 방법 제시하여, 사농일치의 원칙에서 신분적인 차별을 없애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 능력본위로 관리를 등용할 것을 주장하였던 일련의 일들과는 무관하지 않았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실학자들은 병농일치(兵農一致)와 국가의 재정을 좀먹는 불필요한 관직의 제거 등을 주장하였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양반제도, 노비 제도, 과거 제도, 사치와 미신 숭배 등의 시정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공업의 발전이나 화폐의 유통에 의한 농촌경제의 침식을 방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차문화에서도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차의 산업적 측면의 발전을 가져왔다.

1755년 이운해(李運海, 1710~?)의 「부풍향차보」의 기록은 『동의보감』에 집약된 차 관련 부분과 동일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고창 선운사 인근의 찻잎을 채취해서 7종의 향약(香藥)을 넣어 만든 약용차의 제다법을 소개하였다. 「부풍향차보」 〈차명(茶名)〉에 소개된 약초[감국·계피·백향단·황련·향유·귤피·산사육]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로서 민간인들의 상비 약용차였다. 또한 그는 약용차를 만드는 법과 복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차 6냥과 위 재료 각 1전(錢)에 물 2잔을 따라 반쯤 달인다. 차와 섞어 불에 쪄어 말린 후 포대에 넣고 건조한 곳에 둔다. 깨끗한 물 2종(鍾)을 다관 안에서 먼저 끓인다. 물이 몇 차례 끓은 뒤 찻그릇[缶]에 따른다. 차 1전(錢)을 넣고, 반드시 진하게 우려내어 아주 뜨겁게 마신다.” 90)

그는 약용차[향차] 제조법과 음다법을 기술하였다. 이어서 그는 〈다구(茶具)〉 편에서 각종 다구의 이름과 생김새와 물의 분량이나 차의 양을 별도로 표시해 기록하였다.

“다로는 다관(茶罐)을 얹힐 수 있어야 한다.

다관(茶罐)은 2부(缶)가 들어간다.

다부(茶缶)는 2종(鍾)이 들어간다.

다종(茶鍾)은 2잔(盞)이 들어간다.

다잔(茶盞)은 1홉이 들어간다.

다반(茶盤)은 다부와 다종, 찻잔을 놓을 수 있다.” 91)

90) 이운해, 「부풍향차보」 〈제법〉 “茶六兩, 右料每却一錢, 水二盞, 煎半. 拌茶焙乾, 入布袋, 置燥處. 淨水二鍾, 罐內先烹, 數沸注缶, 入茶一錢, 盖定濃亟熱服”

91) 위의 책, 〈제법〉 “爐可安罐, 罐入二缶, 缶入二鍾, 鍾入二盞, 盞入一合, 盤容置缶鍾盞”.

이처럼 『동의보감』이나 「부풍향차보」에서 차는 약용으로 활용되었으며, 건강한 신체 유지 등 실용적 측면을 강조한 내용은 실학사상의 이용후생 정신을 실증적으로 반영하였고, 민본주의를 담고 있었다.

이익과 안정복은 실학 정신과 함께 기존의 차에 관한 시와 산문 형식의 글을 남겼다. 이익의 『성호사설』 제6권 「만물문(萬物門)」에는 ‘다식(茶食)’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이는 균형 잡힌 차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 이용후생의 정신을 나타낸 것이었다. 오늘날 다식은 차를 마실 때 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먹는 것으로 본래 송홑가루, 검은깨, 쌀가루 등의 식물 전분질을 꿀에 개어 다식판에서 찍어낸 과자이다. 그는 건강을 위해 차와 함께 먹는 다식의 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국가의 사전(祀典)에는 다식(茶食)이 있다. 쌀가루를 꿀과 반죽하여 나무틀에 넣고 다져 둥그런 떡을 만든 것이다. 사람들 가운데 다식의 이름과 의미를 아는 이가 없다. 다식이란 송나라의 대룡단(大龍團)과 소룡단(小龍團)이 잘못 전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는 처음에는 물에 끓여서 먹었다.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 쓰는 점다(點茶)는 차를 갈아서 찻잔 속에 넣고 끓는 물을 부은 다음 솔을 가지고 젓는 방식인데, 지금 일본 사람들의 차가 모두 이러하다. 정공언(丁公言:丁謂를 말함)과 채군모(蔡君謨:蔡襄을 말함)가 독특한 방법으로 다병(茶餅)을 고안해 조정에 바치자 드디어 세상의 풍습이 되었다. 소동파(蘇東坡)의 시에 ‘무이산 계곡에 좁쌀처럼 생긴 싹/정위와 채양이 몇 상자씩 따갔더니’라고 한 구절이 그것이다. 지금 차례에 다식을 쓰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점다의 의미인데, 이름만 남고 실물은 바뀌었다. 집에 따라서는 흑 밤을 갈아 대신 사용하는 집도 있는데 물고기, 새, 꽃, 나뭇잎의 모양을 만든다. 이는 용단(龍團)이 와전된 것이다. 모난 그릇이 모나지 않게 만들어지는 일에 무슨 물건인들 그렇지 않겠는가?”⁹²⁾

92) 이익, 『성호사설』 제6권, 「만물문(萬物門)」

이익의 『성호사설』에 기록된 다식의 유래는 단차(團茶)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찻잎 대신 곡물에 꿀을 섞어 반죽하여 다식판에 찍어 제수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차와 함께 다식의 사용은 우리의 건강을 위한 풍습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풍속은 조선 후기에도 차와 함께 다식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그 유래에 대해 모르는 이들이 많아 학문적으로 정리하여 실사구시의 정신을 보여주었다.

『동다기』는 이덕리가 지은 것으로 초의의 『동다송』의 주석에 한 대목이 인용되면서 정약용의 저작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그러나 2006년 정민선생에 의해 『강심(江心)』이란 표제의 필사본에 수록된 「기다(記茶)」가 바로 초의가 인용한 『동다기』의 원본임을 확인했다.⁹³⁾ 『동다기』에서는 조선인들의 열악한 음다 문화와 차에 대한 무지 등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사회의 경화세족 사이에서는 중국풍의 차문화가 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기다」에 우리 차에 대해 기술하면서 차의 효용과 우리 차의 우수성도 함께 기록하였다.

“차의 효능을 두고 어떤 이는 우리 차가 중국 남쪽 지방의 차만 못하다고 의심한다. 내가 보건데 빛깔과 향, 기운과 맛이 조금도 차이가 없다. 『다서』에 이르기를. “육안차(陸安茶)는 맛이 좋고, 몽산차(蒙山茶)는 약용으로 좋다.”고 했다. 우리나라 차는 대개 이 두 가지를 겸하였다. 이찬황(李贊皇)과 육자우(陸子羽)가 있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내 말이 옳다고 여길 것이다.”⁹⁴⁾

이처럼 그는 우리 차의 빛깔과 향, 기운과 맛 등 모든 면에서 중국차에 조금도 못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차는 맛과 약용을 겸하고 있어, 중국차보다 우리 차의 우수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 차의

93) 정민,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2011, p.41.

94) 이덕리, 『동다기』 “茶之效, 或疑東茶不及越產. 以余觀之, 色香氣味, 少無差異. 茶書云: “陸安茶以味勝, 蒙山茶以藥用勝.” 東茶蓋兼之矣. 若有李贊皇陸子羽, 其人則必以余言爲然.”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차의 약효와 효능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때 마침 늙은 하인이 감기를 앓는 자가 있었다. 주인이 몇 잔을 마실 것을 명하며 말했다. “이것으로 감기를 치료할 수가 있다.” 벌써 40여 년 전의 일이다. 그 뒤 배로 차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또 설사를 치료하는 약제로 여겼다. 지금 내가 탄 것으로는 겨울철 여름철 감기에 두루 시험해 보았을 뿐 아니라, 식체(食滯)나 주육독(酒肉毒), 흉복통(胸腹痛)에 모두 효험이 있었다. 설사병 걸린 자가 소변이 곱끄러워 지리려 하는 것에 효과가 있으니 차가 수도(水道)를 조화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학질 걸린 자가 두통도 없이 잠시 후 병이 뚝 떨어지니, 차가 머리와 눈을 맑게 해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염병을 앓는 자도 이제 막 하루 이틀 앓은 경우라면 뜨겁게 몇 잔만 마시면 병이 마침내 멈춘다. 염병을 앓은 날짜가 오래되었는데도 땀을 내지 못한 자는 마시면 그 즉시 땀이 난다. 이는 고급의 사람이 논하지 않았던 바인데, 내가 몸소 시험해 본 것이다.” 95)

이덕리는 차의 효능을 감기와 설사병과 식체나 주육독, 흉복통, 학질, 염병 등에 두루 효과가 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체험한 차는 머리와 눈을 맑게 하고 땀을 내지 못했을 때는 뜨거운 차를 마시면 바로 땀이 난다고 적었다. 그는 다서(茶書)를 읽어 이론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직접 차를 만들어 각종 증상에 실험을 해보았다.⁹⁶⁾ 이는 그가 민족 자주정신과 실천 정신 등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차의 효능을 밝히기 위해 직접 차를 경작했음을 의미한다.

95) 위의 책, “適有老僮患感者, 主人命飲數盃曰: “是可以療感氣.” 距今四十餘年. 其後舶茶之來, 人又爲泄痢之當劑. 今余所採者, 非但遍試寒暑感氣, 食滯酒肉毒胸腹痛皆效. 泄痢者尿澁欲成淋者之有效, 則以其和水道故也. 痲癩者之無頭疹, 有時截愈. 則以其清頭目故也. 寂後病癘者, 初痛一二日, 熱啜數椀, 而病遂已. 病癘日久, 不得發汗者, 飲輒得汗. 則古今人之所未論. 而余所親驗者也.”

96) 정민, 『새로 쓰는 조선의 차문화』, 김영사, 2011, pp.78-80.

정약용은 조선 후기 열악한 조건들 속에서 우리나라 차의 경작 가능성을 살펴보고 차 재배와 제다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였다. 그의 「각다고」에 기록하고 있는 차의 제다법은 당나라 육우의 『다경』과 송나라 채양의 『다록』 등 중국 당송대의 제다법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제다법을 기록한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부터 차를 좋아하였다. 그는 16세에 연천 현감에서 화순 현감으로 이동한 아버지를 따라와 화순에 2년여 간 머물며 화순 곳곳을 돌아다니고 화순 동북에서 나는 작설차를 맛보았다. 그의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에는 차와 관련해서 20세 때 지은 「미천가(尾泉歌)」와 21세에 지은 「봄날의 체천에서(春日榑泉難詩)」 등이 있다. 특히 「봄날의 체천에서」이란 시는 화순 동북사람들이 보내 준 작설차를 체천의 물로 달여 마신 후 지은 시이다. 그는 1801년 강진으로 유배 온 후 백련사의 아암 혜장을 만나면서부터 차와 더욱 깊은 인연을 갖게 된다. 그는 1805년 우연히 만덕산 백련사로 놀러 갔다가 야생차를 발견하고, 아암 혜장 등 백련사 승려들에게 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혜장 상인에게 보내 차를 빌다(寄贈惠藏上人乞茗)」의 부분에서는 그의 차 만드는 법을 엿볼 수 있다.

“불에 뒤어 말리기를 법대로 해주오.

그래야만 빛깔이 곱게 우려날테니.”⁹⁷⁾

그는 불에 뒤고 말리기(焙酒)의 방법으로 차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색성이 차를 보내와 사의를 표하다(謝曠性寄茶)」란 시를 통해서도 그의 차 제다법을 엿볼 수 있다.

“혜장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색성이 가장 뛰어나다 일컬었으니

97) 정약용, 『다산시문집』 「혜장 상인에게 보내 차를 빌다, “焙晒須如法 浸漬色方滢”

화엄의 교리를 터득한데다가
 아울러 두보의 시까지 배웠지
 좋은 차도 꽤나 잘 뒤어서
 살뜰하게 유배객을 위로해주네”⁹⁸⁾

여기에서 선배(善焙)라는 말은 뒤는 방식을 의미하였다. 이처럼 정약용은 백련사의 승려들과 차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차를 함께 나누어 마셨음을 알 수 있다. 혜장과의 해후는 그의 제자 수룡 색성(袖龍蹟性, 1777~?) 등에게 다산의 제다법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후에 차를 만들어 정약용에게 보냈다.

이처럼 정약용은 실학자로서 제다에 대한 관심과 함께 차의 원전인 『다경』을 섭렵하고 통달하였다. 그는 다산초당에 정착한 지 6년이 되던 1814년 문산 이재의(文山 李載毅, 1772~1839)와 주고받은 「이산창수첩(二山唱酬帖)」을 통해 차 만드는 모습을 소개하였다.

“비 그친 뒤 새 차가 깃발을 펼치기 시작하니
 차 말리는 배롱과 차 맷돌을 조금씩 정돈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차세금(茶稅)이 없었으니
 앞마을 개가 짖어도 염려하지 않는다.”⁹⁹⁾

위 시에서 차 말리는 배롱[茶篝]과 차 맷돌[茶碾]을 통해 정약용은 직접 차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거잡영」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차 맷돌을 빙글빙글 직접 돌아보네(茶碾旋旋手自磨)”라는 구절을 통해 정

98) 위의 책, 「색성이 차를 보내와 사의를 표하다」 “藏公衆弟子 蹟也最稱奇 已了華嚴教 兼治杜甫詩 草魁頗善焙 珍重慰孤羈”

99) 정약용, 「이산창수첩(二山唱酬帖)」 “雨後新茶始展旗 茶篝茶碾漸修治 東方自古無茶稅 不怕前村犬吠時”

약용이 직접 차를 갈았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정약용은 『다경』의 복잡한 방식보다는 약 만드는 방식의 구증구포를 취했다. 그는 강진에서 육우 『다경』에 바탕을 둔 병차와 채양의 『다록』에 바탕을 둔 단차를 만들면서 삼증삼쇄와 구증구포라는 독특한 제다방법을 채택하여 다양한 방식의 차를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차가 환경에 의해 맛이 달라진다는 것을 현지인들로 전해 듣고 죽로차를 창안하는 등 새로운 차문화의 지평을 열었다. 이후 다산의 제다법은 보림사와 대둔사의 승려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¹⁰⁰⁾

정약용은 보림사 대밭에 차가 많이 자라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차인 줄도 모르고 잡풀 보듯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보고 절의 승려들에게 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매우 어린 잎(芽針)’인 일창일기(一槍一旗)의 여린 잎만을 골라 따서 구리 시루로 찌고 대소쿠리로 말려 구증구포를 거친 뒤에 방아를 찧어 이를 다시 반죽해서 떡차로 만들었다. 그는 차와 관련해서 약리 작용을 잘 알고 있었다. 구증구포를 통해 차의 강성과 냉성을 부드러움과 온성으로 변화시켜 향과 맛을 우수하게 만들었다. 이는 그의 긴 유배생활을 통해 약용으로 차를 음용하며 건강을 지켰던 습관에서 나온 것이었다.

정약용의 제다법은 초의에게 전수되었다. 보림사의 구증구포 죽로차가 떡차였다는 사실은 1938년 전남 나주군 다도면 불회사와 장흥 보림사 등을 직접 답사하여 조사했던 일본인 모로오까 다모쓰(諸岡存, 1879~1946)와 이에이리 가즈오(家入一雄 1900~1982)에 의해 조사되었다.¹⁰¹⁾ 이처럼 정약용은 실학을 집대성 시키고 차 재배와 법제, 식음 방법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차 문화를 부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830년에 이덕휘(李德輝, 1759~1828)에게 보낸 걸명시(乞茗詩)에서 삼증삼쇄를 언급한 자료가 발굴됨에 초의의 제다법은 『동다송』에 언급한 바와

100) 이유원, 『임하필기』 「호남사중」, “康津寶林寺竹田茶 丁冽水若鏞得之 敎寺僧以九蒸九曝之法 其品不下普洱茶 而穀雨前所採尤貴 謂之以雨前茶可也”

101) 諸岡 存·家入一雄 共著, 金明培 譯, 『朝鮮의 茶와 禪』, 圖書出版 保林社, 1991, pp.203-264.

같이 “술이 뜨거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찻잎을 넣고 급히 뒤어내는데 이때에 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알맞게 뒤어내어 대자리에 넣고 여러 번 가볍게 둥글리듯이 비비고 떨어서 다시 술에 넣고 불을 점점 줄이면서 뒤는” 방법이였다. 초의의 제자 범해의 「초의차」에도 “깨끗한 술에서 정성을 다해 뒤어내 밀실에서 잘 말리네.(空鑪精炒出 密室好乾來)”라 하였다. 이처럼 실학자 가운데 중농학자들은 차와 관련해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재배, 제다 등에 관심을 갖고 차 농사를 확산시켜 나가 국가 부흥에 앞장서 나갔다. 때로는 직접 차를 재배하고 만들기도 하였으며, 복잡한 방식보다는 단순한 방식을 통해 차의 맛과 향을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제4절 차 산업의 발전

이덕리가 『동다기』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차 무역에 대한 것이다. 그는 ‘기다’와 함께 국가 경제와 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상토지(桑土志)』¹⁰²⁾를 저술하여 차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국제 무역을 통해 국부 창출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차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구체적 시행의 세부 절차와 방법을 제시했다. 그의 ‘기다’는 차 생산의 산업화와 무역을 제안한 것이었다. 그는 숙종 때 조선 최고의 무인이었던 장한상(張漢相·1656~1724)의 외손이었으며, 어영대장과 훈련대장을 거쳐 영조 때 병조판서에 올랐던 무신 이삼(李森, 1677~1735)의 처조카였다. 그는 무인 계통 명문가의 후손이었다. 그의 저술은 정약용이 『경세유표(經世遺表)』와 『대동수경(大東水經)』에 인용할 정도의 책이었다. 『상토지』는 국가 경제와 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실학 계통의 서적이었다. 이 책도 『동다기』와 마찬가지로 다산의 저술로 오인되기도 한 책

102) 『상토지(桑土志)』의 상토(桑土)는 『시경』 「빈풍(邇風)」의 「치효(鴟鴞)」에서 “장마비가 오기 전에 저 뽕나무 뿌리를 가져다가 등지를 얹었거늘(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牖戶)”이라 한 데서 나온다. 상토(桑土)는 뽕나무 뿌리다. 새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뽕나무 뿌리를 물어다가 등지의 새는 곳을 막는다. 그래서 환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유비무환의 의미로 쓴 것이다.

이었다. 「기다」를 살펴보면, 그가 차의 해외무역을 통해 부국강병책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황량한 들판의 구석진 땅에 절로 피고 지는 평범한 초목에서 얻어 이것으로 국가를 돕고 민생을 넉넉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어찌 그 일이 재물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하여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는 차가 국부 창출의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북방인은 육식만 하므로 차를 마시지 않으면 배열병(背熱病)에 걸린다고 말했으며, 이런 이유로 비싼 값을 주고 차를 마시지 않을 수 없음을 설파하며 그 수요의 일부를 우리 차로 감당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끝으로 차에 무지한 조선의 실정과 발상 전환을 통한 차 무역을 제안하였다. 그의 『상토지』 내용에는 변경에 둔전을 설치하고, 성의 제도를 정비하며, 외적의 침입을 예방하는 각종 대비책을 제시한 국방 관련 내용도 기술되어 있다. 그는 『상토지』와 더불어 『동다기』에서도 차무역론을 제안했다.

“차는 천하가 똑같이 즐기는 것이다. 우리나라만 유독 잘 몰라 비록 죄다 취하여도 이익을 독점한다는 혐의가 없다. 국가로부터 채취를 시작하기에 꼭 알맞다. 영남과 호남에는 곳곳에 차가 있다. 만약 한 말의 쌀을 한 근의 차로 대납하고, 10근의 차로 군포를 대납하게 허락한다면, 수십만 근을 힘들이지 않고 모을 수가 있다. 배로 서북관의 개시(開市)에 운반해서 월차(越茶)의 인쇄해 붙인 가격에 따라 한 냥의 차에서 2전 은을 받으면, 10만근의 차로 2만전의 은을 얻을 수 있고, 돈으로는 60만 전이 된다. 이 돈이면 한 두 해가 못되어 45개 둔전(屯田)을 설치할 수 있다. 따로 「다설(茶說)」이 있는데, 아래에 첨부해 보인다.”¹⁰³⁾

103) 이덕리, 『상토지』 “茶者天下之所同嗜. 我東之所獨味, 雖盡物取之, 無權利之嫌. 政宜自國家始採. 而嶺南湖南, 處處有茶. 若許一斗米代納一斤茶, 或以十斤茶代納軍布, 則數十萬斤不勞可集. 舟輸西北開市處, 依越茶印貼之價, 一兩茶取二錢銀, 則十萬斤茶可得二萬斤銀, 而爲錢六十萬. 不

그는 쌀과 군포를 차로 대납케 한다면 수십만 근의 차를 쉽게 얻어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금으로 둔전을 설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 구체적 시행 세칙을 따로 「다설(茶說)」을 지어 제시한다고 했는데, 이 「다설」이 바로 『동다기』였다.

이덕리는 야생 차밭의 차를 제품으로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면 엄청난 국익을 창출할 수 있어 그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동다기』를 저술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영호남에 차산지가 있는데도 차를 마실 줄 모르니, 차를 중국의 은이나 말 또는 비단과 교역한다면 국용(國用)이 넉넉해지고, 민력(民力)이 퍼져서 나라 살림이 넉넉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내용으로 국가가 관장하여 차 채취를 위한 사전 조사와 차 채취에 따른 인력 동원 계획과 작업 진행 과정,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금전 보상 문제에 관한 내용, 차를 만들어 포장, 예상 수익 등을 제시하였다. 그는 차무역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와 차시(茶市)의 구체적 운영방법, 그리고 수익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기왕 차시(茶市)을 연다면 모름지기 따로 감시어사(監市御史)와 경역관(京譯官), 압해관(押解官) 등을 따로 뽑아야 한다. 수행인에 이르러서는 모두 일 맡는 자에게 차등을 정하되, 이전처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용만(龍灣) 사람이 시장에 오는 것만 허락한다. 대개 난하(灤河)의 풍속이 포악하고 개 같아서 저들에게 실정이 알려지면 믿을 수 없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차시가 파한 뒤에는 상급(賞給)을 더욱 낮게 주어서 마치 자기 일을 보듯 하게 한 뒤라야 바야흐로 오래 행하여도 폐단이 없다. 향기로운 먹이 아래 반드시 죽는 고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¹⁰⁴⁾

過一兩年，而可置四十五屯之田矣。別有茶說，附見于下。”

104) 위의 책, “既開茶市，則須別擇監市御史京譯官押解官之屬，至於隨行人，皆以幹事者，差定，不可如前，只許灣人赴市。蓋灤俗獷腸狗態，輸情于彼人。有不可信者故也。且茶市罷後，優加賞給，使視作已事然後，方可久行無弊。香餌之下，必有死魚云者，政謂是也。”

이덕리는 차시를 개정하면 국가에서는 시장 감독과 그에 따른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관료를 보내고, 각자 맡은 일에 대한 성과금을 차등 지급하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가 가장 역점을 둔 부분으로 차무역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의 사용 용도였다.

“검소하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세금 외에 수백만 냥이 생기게 된다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는가? 다만 재용(財用)이 넉넉해지면 여기저기서 빼앗아가서 막힘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만약 상하가 마음을 합쳐서 본전과 잡비, 종이 값과 뱃삿 등과 수고한 사람에게 주는 상여금 외에는 한 푼도 다른 데 가져다 쓸 수 없게 하여, 비록 쓰는 바가 서로 관련은 없다 해도 단지 서변(西邊)에 성읍(城邑)을 수축하게 한다. 연못과 길가 양편의 5리 안에 사는 백성들의 토지세 절반을 감면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성관(城館)을 쌓고 도랑을 파는데 힘을 쏟게 하여, 천리의 길을 누에치는 방처럼 다르게 하고, 길가의 붓도랑을 촘촘한 그물 같게 만든다. 금년에 못다 한 것은 내년엔 이어 시행한다. 또 서변의 재주 있고 힘 있는 인재를 모집하여 이를 선발해서 성에 주둔케 하여 날마다 활쏘기를 익히게 하고, 둔성(屯城) 하나마다 수백 명을 두어 대포를 쏘게 한다. 잘 적중시키는 자는 특별히 상금을 내리고, 처자와 함께 생활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한다면 이는 평상시에도 수만 명의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는 셈이 되니, 어찌 난폭한 외적을 막고 이웃 나라에 위엄을 보이기에 충분하지 않겠는가?”¹⁰⁵⁾

이덕리는 차로 인해 자원이 확보되면 국방을 위해 중국과 국경이 되는 서쪽 변경에 성읍(城邑)을 고쳐 짓고, 건물을 세우고 도랑을 파서 변경에서

105) 위의 책, “以我國之素儉, 若暴得數百萬於當稅之外, 則何事不可做. 但財用既優, 則撓奪多滯. 若上下齊心, 而於本錢雜費, 紙價船價之屬, 償勞之外, 不許遷動一毫. 雖所需無得相關, 只用於西邊. 修築城邑, 池及路傍左右五里, 減田租之半, 俾專力築城館開溝洫, 使千里之路, 如繭管之窄, 使路傍之溝, 如地網之密. 今年未盡者, 明年繼行. 又募西邊材力之士, 取以於屯城之日習射聽, 一屯城, 置數百人, 射砲. 中極者, 優數償賚, 使可以畜妻子, 則是常時有數萬莫強之兵, 豈不足以禦暴客而威隣國哉”.

서울까지 그물망처럼 도로망과 수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변경 군사들을 지원해서 군사훈련을 시키고, 우수한 병사들은 아예 가족까지 이주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비상 체제가 아닌 상시 가동체제를 갖춘 수만의 막강한 군대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국가의 위엄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그는 차를 단순한 기호품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국부 창출의 재원과 국방 강화의 수단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했다.

정약용은 중국의 보이차 열풍을 이겨내고 차마무역으로 국익을 더하고자 주장하였다. 그는 『경세유표』 권 11, 지관(地官) 수제(修制) 부공제(賦貢制) 5에 「각다고(榷茶考)」¹⁰⁶⁾를 저술하여 차무역론을 주장하였다. 「각다고」의 내용은 역대 중국에서 시행한 술, 소금, 철 등 각종 전매제도를 검토한 일련의 글 가운데 하나였다.

“살피건대, 남쪽 여러 고을에서 나는 차는 매우 좋다. 내가 본 바로는 해남과 강진, 영암과 장흥 등 바닷가 여러 고을에는 차가 나지 않는 곳이 없다. 나는 말한다. 무릇 차가 나는 산은 지방관으로 하여금 다른 것을 심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나무하지 못하게 한다. 이윽고 무성해지기를 기다려 해마다 차 몇 근씩을 임형시(林衡寺)로 옮겨, 만하성(滿河省)에 보내 좋은 말을 사와 목장에 나눠주게 한다면 또한 나라에서 쓰기에 충분할 것이다.”¹⁰⁷⁾

정약용은 차마 무역을 통한 국방 강화를 제안하였다. 국가에서 관장하는 각종 세수(稅收)와 관련된 내용을 논하면서 중국 역대 왕조에서 각다, 즉 차 전매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며, 그 규모와 이익, 그리고 폐해

106) 「각다고」에서 각다(榷茶)의 각(榷)은 도거리한다는 뜻이니 국가에서 차를 전매(專賣)하여 그 이익을 전유함을 말한다.

107) 정약용, 『경세유표』 권 2, 「동관공조(冬官工曹)」 중 임형시(林衡寺) “案南方諸縣, 產茶極美. 臣以所見海南康津靈巖長興, 凡沿海諸邑, 莫不產茶. 臣謂凡產茶之山, 令地方官封植, 禁民樵牧, 待其茂盛, 歲以茶幾斤輸于林衡, 送于滿河省, 以市良馬, 頒于牧場, 亦足以贍國用也.”

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는 왕조 별로 시기와 법령 시행 내용을 밝힌 본문을 소개하였고, 본문 아래 보충 설명을 통해 역대 문헌을 인용하였다. 본문은 모두 10조목이었다. 당대(唐代) 3조목, 송대(宋代) 4조목, 원대(元代) 1조목, 명대(明代) 2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¹⁰⁸⁾ 당대에서 명대에 이르는 각다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관련 문헌의 인용을 통해 앞 뒤 맥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그의 「각다고」는 중국 역대의 차 전매 정책을 통해 중국의 차문화를 살핀 최초의 저술로서 역대 중국에서 차가 국가재원의 마련에 기여한 노력과 구체적 차산지의 이름, 제도 시행상의 세부 내용 및 백성들에게 끼친 질고까지 시대별로 제시하였으며, 차문화의 실상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산차(散茶)와 편차(片茶), 그리고 말차(末茶)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차의 제법과 특성, 음다법 등을 제시하여 차문화의 변천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그는 차의 전매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을 깊이 우려하였으며, 차 무역의 당위성에 대해서 비교적 조심스럽게 접근하였다.

108) 정민, 앞의 책, p.107.

제5장 결론

18세기 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임진왜란과 인조반정,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 정치적·사회적·경제적 황폐화로 인해 사회 질서의 혼란과 신분 제도의 무질서, 그리고 경제적 침체가 목격되었다. 조선 후기의 사회적 모순과 경제적 침체는 변화를 갈망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기존의 학문적 틀에서 벗어나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구상하는 학문연구에 몰두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개혁 사상이 등장하였는데, 그 사상적 논리와 기본은 종래의 성리학 일변도 학풍에서 벗어나 유학의 본령을 되살리는 사상체계를 구축하고, 선진유학(先秦儒學)을 중심축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 결과 학자들의 연구 분야는 광범위하게 확대되었으며, 여기에는 현실 개혁과 변혁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학문, 천문학·수학·의학 등 자연과학, 역사·지리·언어·문학·풍습 등 인문과학, 그리고 새로운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이 포함되었다. 이 당시 학문 경향의 전반적 특징은 백과전서적 박학(博學)이 주류를 형성하였다는 점이다.

1608년에서 1708년까지 100년의 노력 끝에 실행하게 된 대동법(大同法), 1750년에 이루어진 균역법(均役法), 1774년 공사노비의 신공(身貢) 폐지, 도망한 공노비에 대한 추쇄(推刷) 폐지 등은 백성들의 처지를 크게 개선하는 조치들이었다. 17세기부터 조선후기 사회에 발생한 실학 정신은 열린 정신이었으며, 구속에서 벗어나는 자유정신이었고, 다양성을 지닌 창조적 정신이었다. 실학사상은 합리적 사고로서 실용적 가치를 존중하였으며, 포용성을 지니고 있었고, 평등사상과 민족의 자각을 일깨웠다. 실학사상은 주자학의 현실을 무시한 청담공론을 반대하였고, 학문을 사회적 생산과 생활에 실제로 응용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을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실학자들은 모두 주자학의 '공소·공론'을 반대하였고, 생산과 생활에 실용적인 학문 연구를 강조하였다.

실학자들의 실용적 학문 추구는 차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중농학적 측면에서,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은 차문화는 다양한 제다방법을 시도

하였으며, 제다법을 우리 차에 적용하여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상학적 측면에서, 실학사상은 무역의 확대를 촉진시켰으며, 이는 차 무역의 활성화를 통한 차 농가 및 생산자들의 이익 창출과 국가의 경제적 발전, 그리고 국방력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특이점은 실학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차생활을 즐겼으며, 차의 효용성과 실용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실학자들은 차문화와 관련된 많은 서적들을 저술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의 효용성과 유용성을 강조하였고, 다양한 계층의 차 애호가들을 양산하였으며, 결국 차문화의 중흥기를 촉발시켰다.

이운해의 「부풍향차보」에서 살펴보았듯이, 차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약재들을 배합한 배합차의 출현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는 조선 시대 차문화의 주요 특징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차는 다른 차나 허브 등을 배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녹차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차 생산지가 다른 차들과의 배합이나, 차에 약재나 허브 등을 배합하는 방법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현대 사회의 차문화를 고려해 볼 때, 순수한 단일 차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배합 기술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제다 기술 방법을 응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배합차를 생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조선시대의 차문화가 후대에 제대로 보급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이덕리의 『동다기』는 전통적 차문화의 전수를 위한 획기적인 제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학의 중상학자들을 중심으로 차의 해외 수출을 강조했던 사실은 차 무역의 확대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룩하려는 실학자들의 적극적 자세를 엿볼 수 있으며, 이들의 차 무역 확대 및 활성화를 통한 부국강병은 그 시대의 진보적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차문화에 박학다식했던 정약용은 다양한 제다방법을 시도했던 실천가였으며, 차의 실용화와 현실화를 통해 사회적 변화를 주창했던 실용주의 학자였다. 그는 다양한 제다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차를 음용과 약용에 모두 사용함으로써 차의 효용성을 실용화시켰던 대표적 차 애호가였다. 또한 그는 「각다고」를 통해 중국의 역대 차 전매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조선시대의 차문화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우리의 차문화는 문화적·역사적 인식을 통해 민족정신의 자각을 일깨워

주었다. 민족정신의 자각은 차문화의 주체성 확립으로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우리 차의 우수성과 실질적 효용성이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실학자들이 제기한 신분제도 개혁과 평등사상은 차문화의 대표적 학자인 초의선사와 실학자들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조선 차문화 정신의 확립으로 이어졌다. 이는 불가의 차문화와 유가의 차문화가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 중용정신을 낳는 계기로 발전하였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이 차문화 발전에 끼친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상적 측면에서 실학사상은 불교사상과 유가사상과 도학사상을 습합하여 실용주의와 중용주의를 추구하였다. 이는 불교가 성행했던 고려시대의 차문화와 유교가 성행했던 조선시대의 차문화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쇠퇴 과정을 거친 후, 새로운 변화를 갈망했던 시기에 학자들의 연구방법과 능력을 증대시켜 실학사상의 실용주의를 도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학문연구에서 차와 함께 하였으며, 친구들과 학문적·사상적 교류를 하면서 차를 중요한 도구와 수단으로 삼았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학문연구와 소통에서 차는 실학사상과 함께 하였으며, 실용성과 중용, 그리고 소통의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둘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조선 후기의 문화계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 추세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연출하였다. 특히 서민문화가 새로이 형성되었으며, 사회 전반에서 산업이 융성하고 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유학자들의 학문과 문학 활동도 활성화되었다. 평민 대중 중심의 서민문화가 활성화되자 여가문화와 시·서·화 문화가 발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차문화는 평민들의 소통을 자유롭게 하고, 자연과 소통하며, 다양한 예술 활동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실학자나 예술가들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면서 차를 소통과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였다.

셋째, 산업적 측면에서 18세기의 실학자들은 차의 체다법, 음다법, 약용 활용법 등을 연구하였으며, 이를 차 재배 확대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였다. 이는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의 전형적 사례였다. 또한 상업적으로 이덕리의 『동다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국가 재정 확충

과 국방 강화를 위해 차 무역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기다’와 함께 국가 경제와 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상토지』를 저술하였는데, 여기에는 차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국제 무역을 통해 국부 창출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조선은 아직 차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으며, 그의 구체적 시행 방법과 세부 절차는 커다란 방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또한 정약용은 차마 무역을 통한 국방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중국의 사례를 들어 국가에서 관장하는 각종 세수(稅收) 중 각다, 즉 차 전매 정책의 운영 방식과 이익, 그리고 폐해 등을 제시하였다. 그의 「각다고」는 중국 역대의 차 전매 정책을 통해 중국의 차문화를 살핀 최초의 저술로서 역대 중국에서 차가 국가재원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역할, 구체적 차산지의 이름, 제도 시행 상의 세부 내용 등을 시대별로 제시하였다. 또한 정약용은 산차와 편차, 그리고 말차 등 시대 변화에 따른 차의 제법과 특성, 음다법 등을 제시하여 차문화의 변천과 차 전매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자세히 제시하였다. 하지만 그는 차 무역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덕리보다 소극적 입장을 취했다.

결론적으로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은 중국차 문화를 활용하여 우리 차문화의 지평을 확대하였고, 우리 차 맛과 효능의 우수성을 강조하였으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중용과 평등사상을 장려하는 계기가 되어 실용적인 차문화의 정착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울러 실학자들은 우리의 전통문화 정신과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전통문화의 정신과 가치를 차문화와 연계시켰으며, 차음용을 정신적 순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조선의 학문적 위상을 실용적이고 실질적으로 고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당시의 차문화에 대해 중상주의적 입장에서 정부주도의 차문화 산업 발전, 차문화에 대해 학문적 연구, 다양한 제다 방식을 통한 차 배합, 차 무역을 통한 경제적 자원 창출, 그리고 차문화를 통한 체계적 인성교육 등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목격되는 차문화의 문제점이 조선시대의 차문화 상황과 매우 유사했다는 점과 실학사상이 차문화 발전에 실용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박제가, 『정유집(貞蕤集)』
- 박지원, 『연암집(燕巖集)』
- 서명응, 『보만재총서(保晩齋叢書)』, 1822.
- 서울대학교 출판부,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1978.
- 유성룡, 『서애집』, 1633.
- 유형원, 『반계수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이규경, 『백운필(白雲筆)』
- 이규경, 『오주서종박물고변(五洲書種博物攷辨)』
-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 이궁익,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이덕무,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 이상적, 『은송당집』
- 이수광, 『지봉유설』
- 이이, 『栗谷全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경세, 『우복문집(愚伏文集)』
- 정약용, 『경세유표』, 1817.
- 조선총독부, 『조선도서해제(朝鮮圖書解題)』, 민중시룽사, 1944(재판).
-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청주시지(淸州市誌)』, 1997.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청주읍지(淸州邑誌)』, 2003.
- 청주시지편찬위원회, 『청주지(淸州誌)』, 1961.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163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조방목(國朝榜目)』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조선왕조실록』, 173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청선고(淸選考)』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91.

홍대용, 『담헌서(湛軒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939.

홍인모, 『족수당집(足睡堂集)』, 1824.

효명세자(孝明世子), 『경헌집』

2. 저서

강만길, 『한국의 고전백선』 「임원십육지해제(林園十六志)」, 신동아, 1969.

금장태,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성호, 『씨성으로 본 한일민족의 기원』, 푸른숲, 2000.

김용옥, 『讀氣學說』, 통나무, 2003, p. 60.

김용섭, 『조선후기농업사연구』 II 「신·구농서(農書)의 종합과 그 농학사상」, 일조각, 1971.

김태영, 『국가개혁안을 제시한 실학의 비조, 유형원』 실학박물관, 2011.

김태준, 『홍대용과 그의 시대』, 일지사, 1982.

박찬영, 「한국사를 보다」, 리베르스쿨, 2011.

반제동, 『조선시대사론강』, 서울, 교문사, 1995.

송재소, 유흥준, 정해림 외 옮김, 『한국의 차문화 천년1』, 들베개, 2009.

신병주,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책과 함께, 2007.

신창호, 『유학자 추사 실학 교육을 탐구하다』, 서현사, 2006.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역사비평사, 2009.

유원동, 『한국의 명저』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 현암사, 1969.

유형원의, 강만길의 역, 『한국의 실학사상』, 서울, 삼성출판사, 1994.

李佑成, 『實學思想入門』 「實學研究序說」, 일조각, 1973.

장동익 외2 공저, 『한국사 강론』, 흥진출판사, 1999.

정민,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김영사, 2006.

조연숙, 『한국고전여성시사』, 국학자료원, 2011, p(洪大容)의 과학사상 『한국학보』 23, 1981.

주홍성·이홍순·주칠성 공저, 김문용·이홍용 역 『한국철학사상사』, 서울, 예문서원, 1989.

최남선, 『조선역사』, 1931, p. 993. 재인용 : 김용옥, 앞의 책.

崔英成 著, 『韓國儒學思想史 IV』, 아세아문화사, 2004, pp.64. 등

최완기, 『조선시대사의 이해』, 서울, 느티나무, 1992.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실학사상사』, 다운샘, 2002, pp.26-27.

한영우, 『실학의 선구자, 이수광』, 경세원, 2007.

3. 논문

강만길, 「조선후기상업의 문제점-우서(迂書)의 상업정책분석-」, 『한국사연구』 6, 1971.

박석무, 「역사의 땅, 사상의 고향(15) 실학적 역사학 창시 한백겸」, 경향신문, 2007.

박성래, 「홍대용 『花潭集』

서근식, 「보만재(保晩齋) 서명응(徐命膺)의 선천역학 연구」,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19권 0호, 2006.

송향룡, 「서계 박세당의 노,장연구와 도가철학사상」,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16권 0호, 1982.

오기수, 「조선후기 전세(田稅)의 공평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7권 제1호, 2010.

윤사순, 「이규경(李圭景)의 실학에 있어서의 전통사상」, 『아세아연구』 1973.

윤병주, 「19세기 중엽 이규경(李圭景)의 학풍과 사상」 『한국학보』, 1994.

원유한, 「조선후기 화폐류통구조의 개선론의 일면-류수원(柳壽垣)의 현실적 화폐론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56, 1972.

이진경, 「조선후기 과학과 실학에 미친 도가철학의 영향 - 이익의 서양과학 수용과 도가적 이해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75권, 한국동서철학회, 2015.

전상운, 「이규경(李圭景)과 그의 전물학」, 『성신여대논문집』 4·5, 1972.

지금완, 「한백겸의 『구암유고』 역주 (韓百謙의 『久菴遺稿 譯註)」,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5.

- 천관우, 「홍대용(洪大容)의 실학사상」 문리대학보』,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1958.
- 한영국, 「류수원(柳壽垣)의 우서(迂書)」, 『창작과 비평』 11, 1968.
- 한영우, 「류수원(柳壽垣)의 신분개혁사상」, 『한국사연구』 8, 1972.